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태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3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92 호

## 불교계 화장문화 '선도'

### 사찰상조회등 화장장려 프로그램 마련 적극홍보
### 생명나눔회·서천사, 10월10일부터 '화장유언 캠페인'

'화장 장려' 운동이 불교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수덕사 광명포교원 서천사(주지 진석)와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오는 10월10~31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6시부터 4시간씩 광명시청앞에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 유언장 쓰기'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생명을 나눕시다. 삶을 나눕시다' 주제의 장기기증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화장문화의 정착을 통한 국토 활용의 효율화와 장기기증을 통한 새생명 구제를 목적으로 화장문화에 대한 여론조사, 음성공양 등 문화행사도 매번 개최해 시민들과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미 입종시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염불기도에서부터 수시, 염습, 입관, 발인, 다비(또는 매장)까지 장례의 전과정을 도맡아 화장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각 사찰·불교단체 상조회도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를 계기로 지역별로 적극적인 화장문화 장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24년 전통의 불광사연화부를 비롯 우리나선우 백련상조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관왕생탑, 부산불교복지상조회, 광주불교농인회, 석왕사 108상조회, 능인선원 상조회, 대전아미타상조회 등 각 사찰 상조회와 불교장례봉사 단체들은 불교식 장례의 노하우를 살려 화장 권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돈 없는 사람들이나 불교에 심취한 불자, 교통사고자 등 변사자 위주로 화장이 실시되던 풍토도 이들의 활동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에는 장례비용의 부담으로 화장을 택하는 유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의 수해로 인한 분묘 유실 등도 화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키키고 있다는 것.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불교장의업체인 연화회의 경우 올초부터 약 20~30%에 불과하던 화장률이 30~40%로 높아졌다.

조계종 사회부도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세미나,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제5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대회 법회'에는 1천5백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 불교 교양대 전법사 품수 금지

### 조계종 포교원…위반땐 종단등록 취소키로

조계종단에 등록한 불교교양대학이 졸업자에게 '전법사'나 '법사' 자격을 품수하면 종단등록이 취소된다.

조계종포교원은 21일 종단등록 51개 불교교양대학에 공문을 보내 "종단이 인정하는 포교사 응시자격 이외에는 일체의 자격 품수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종단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포교원은 공문에서 "각 학교의 임의적인 자격 품수에 따른 재가 교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지난 5월에도 포교사 응시자격 이외의 품수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현재 7개 불교교양대학에서 전법사 법사 교수아사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不二정신으로 난국 해결하자"

### 제5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 총지종 정각사서 1천5백여 대중 동참

부처님의 지혜로 국난을 극복하기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이 주관한 전국순회 제5차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각계 인사 등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진호(鎭護)국가기원 참야정진'으로 열린 이날 회향대법회는 특정 총지종 종령의 법어, 총지회통리원장의 봉행사에 이어 전두환 前대통령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최인상 부산부시장 진각종 성초통리원장의 기원사가 있은 후, 실직자를 위한 기금전달에 이어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의 설원문 낭독 등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특정 총지종 종령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이웃을 내몸같이 아끼는 불교의 불이(不二)정신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자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실상을 바로보기위한 법문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 남과 이웃도 믿을 수 있게 되자"고 기원사를 했다.

김원기노사정위원장은 "오늘의 국난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수술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공덕으로 위기가 도약의 기회로 전환될 수있기를 기원했다. 이에앞서 22일 오후9시부터 총지종 스승 50여명과 부산 정각사 신도등 불자 5백여명이 정각사 3층법당에서 3시간동안 정통 밀교수행법으로 진호국가 기원 불사를 올렸다.

국난극복 제6차 참회대법회는 10월15일~16일 오후2시 진각종 서울 통리원, 제7차는 11월15~16일 오후2시 태고종 순천 선암사, 제8차 회향법회는 11월28~29일 오후2시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서 열린다.

부산=위영란·김원우 기자 (yryui@buddhapia.com)

## 추석연휴로 다음주 휴간

##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강화 보문사, 선원사지, 무애원 등을 찾아갑니다.

마애관음보살상(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9호)과 천연동굴 법당(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7호)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음기도도량 보문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인 선원사지 등을 답사합니다. 특히 무애원에서 설봉스님과 함께 흙을 빚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은 옹가을 소중한 추억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설봉스님과 함께 빚는 도자기"**

'강화 보문사·선원사지·무애원'

◇출 발: 10월18일(일) 아침6시30분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 제공, 도선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현대불교신문사 주관:혜초여행사 협찬:일양약품

##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전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 떡 만드는 수요일



매주 수요일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도 부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보살이 있다. 딱살을 만질 때는 어깨가 힘들고, 어묵을 삶기 위해 양파를 자를 때는 자꾸 눈물이 나오지만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않는 보살.

"수요일은 교도소를 찾는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잠을 설치지만 재소자들이 떡과 어묵을 맛있게 먹으며 터뜨리는 얘기와 웃음꽃에 비하면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7년동안 영등포교도소를 안방 드나들 듯이 오갔던 이무련보살(51).

이보살이 이곳을 찾는 것은 10명의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교도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초범들을 결연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교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보살의 자매들이 바로 그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매주 수요일 교도소를 방문해 자매들과 먹거리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뿐이죠."

그러나 영등포교도소에서 이보살의 인기는 어느 연예인 못지 않다. 재소자에게 살갑게 다가서는 이보살의 자비행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결국 올해 초 규율이 엄격한 교도소 조차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교도소에서는 매년 초 자원봉사자와 자매를 새롭게 선정 결연을 맺어주는데, 이보살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수감자들이 수 십명에 이른 것이다. 교도소 측은 할 수 없이 규칙을 깨고 지난해 자매들과 그대로 맺어 줄 수 밖에 없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수요일 교도소를 방문해 온 것 밖에 없어요. 그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사실 이보살은 영등포교도소에 유일하게 개근한 자원봉사자이다.

수 년간 지속한 일인만큼 이보살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출소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이보살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여비를 쥐어주곤 한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에 동참할 것을 권할 생각입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불교미술대전 수상작 발표 7면
"선생님이 개종하래요" 23면
불교 사회복지 저조하다 3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법당 준공 및 점안법회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은…

대행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은혜를 갚고 모두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 모르는 이로 하여금 자비광명속에 안주케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발원으로 세세생생 영원한 진리의 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법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지금 대행큰스님을 모시고 불상점안과 준공법회를 마련하오니 많은 동참 바라오며, 이 법연으로 고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주지원 사부대중 삼배

● 일시 : 1998. 10. 18. (음 8. 28) 일요일 ● 장소 :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 0591)746-8163

# 사 설

## 사찰을 문화중심지로

가을은 문화의 계절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익고 문화행사가 많아 문화의 계절이라고들 한다.

오페라 '원효'가 불국사에서 열렸고, 경주관화전, 제23회 전승공예대전, 제17회 불교미술대전 등 미술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강백이 쓴 희곡 '느낌, 극락같은'이 대학로에서 막을 올렸고, 영화 종교영화제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열린다. 제1회 세계문화엑스포도 · 불교의 본고장인 천년고도 경주에서 두달간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행사들이 사찰단위로 열리고 있거나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의 문화사를 보면 그 근간에 흐르는 바탕문화가 불교문화임은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 불교가 종교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지금까지 종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끼친 문화사적 영향은 아주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이젠 이런 문화적 바탕을 떠나선 한국을 설명할 수 없게도 된 그런 문화적 바탕을 지니고 있다. 바탕문화가 이렇고 보면 이를 바탕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환경 또한 불교적 맥락을 떠나서는 가늠이 되지 못한다.

긴 역사적 흐름을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발자취, 그것이 바로 한국을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친근감을 들 수 있다. 불교가 초기에는 종교로 전파되어 들어왔지만 그것이 바로 생활의 바탕문화로 자리를 잡고 이어온 역사적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근한 밑뿌리감정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다양한 종교가 도래하여 신자들이 늘고 있지만 그들의 밑바탕이 되는 정서는 역시 불교를 바탕으로 오래도록 전해져 온 국민정서가 불교적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바탕문화적 토양과 오랜 불교사적 역사의 흐름, 그리고 친숙한 정서 등은 한마디로 불교를 앞으로 중흥시켜나갈 수 있는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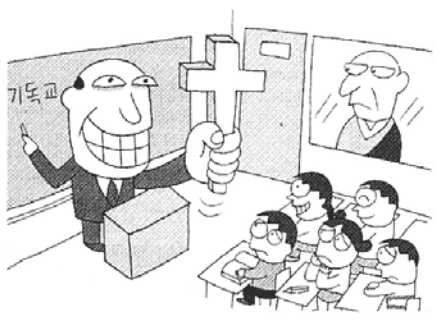
지금까지 불교문화를 보면 종교적 전유물이거나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도 한 번쯤 짚어볼 일이다. 흔히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정보문화가 21세기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교통 특히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의 교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변동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동의 세기를 맞자면 우선 우리들의 의식부터 적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1세기를 맞으면서 구태의연한 의식과 적응양태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필시 낙오될 것은 명백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 박제된 문화재는 영적인 점화가 필요하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비록 천년전에 만들어져 그 주인은 지금 없지만 혼을 불어넣는다면 그때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제된 문화유산을 생명과 함께 대중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불교문화행사를 통한 넓은 의미의 포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양한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야하는 21세기인 만큼 불교를 알리고 전승하고 실천하는 방편도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야 할 것같다. 이런 다양성의 수용을 불교문화행사를 풍성히 하는 것으로부터 그 출발으로 삼아보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철없는 우리선생님

# "훼불방지 담당경찰관 배치"

## 경승단 연수, 결의문 통해 촉구
## 지역사암-경찰 협의기구 추진

경승단(총재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은 23~24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수회를 열고 종교편향 및 훼불 방지에 적극 대처키로 결의했다.

전국에서 1백80여명의 경승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 경승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족문화 수호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종교편향 및 훼불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훼불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에 담당 경찰관 배치토록 촉구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포교원은 올해 안에 지역 사암연합회와 경찰서와의 협의기구인 '교경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종교편향 및 훼불사태 실태와 대책'(원혜 포교원 포교부장) '경찰조직 및 직무 이해'(이상현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경찰포교 활성화 방안' 등의 강의와 '종교편향과 훼불 대책' '경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과토론으로 진행됐다.

원혜스님은 강의에서 "훼불사건이 급증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단협의회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재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훼불사건의 예방과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특정종교편향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포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진흥포교사(서울경찰청 경비과)는 "전국 경찰서에 1천1백여명의 경승을 위촉할 수 있으나 5백80여명만이 활동하고 있어 개신교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포교인력의 보강 △포교방법의 개선 △경찰포교의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재식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경찰청 서성근 경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경승단은 23~24일 연수회를 갖고 종교편향과 훼불방지에 적극 대처키로 결의했다.



◇2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린 "불교방송후원회 확대개편 발족대법회"에는 신임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 불교방송후원회 확대

### 회원 1만명 확보키로…도후스님 1억 기탁

불교방송 후원회(회장 월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는 후원회 조직 확대개편에 따라 새 출발을 다짐하는 "불교방송 후원회 확대개편 발족대법회"를 24일 오후3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으로 추대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해 후원회 부회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운영위원장 도후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성낙승 불교방송사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한국불교언론인회 신광식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은 그동안 법음을 통한 전파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해 경제한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이 정상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적극 후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22일 불교방송 후원기금 1억원을 후원회에 기탁한 운영위원장 도후스님은 "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전국 방방 곳곳에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쌍용화재해상보험(주) 명호근사장,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일승종 혜종 총무원장 등 30여명이 운영위원에 위촉됐다.

한편 불교방송 후원회는 10월 1일부터 1만여명의 후원회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조계종 총무원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2일 총무부장에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 기획실장에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스님, 사회부장에 사서차장 일화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총무부장 정련스님은 58년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63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아대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산불교유치원 원장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유아교육과 불교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문교부장관상과 조계종포교대상 교육부장관상등을 수상했다.

### 총무부장 – 정련스님
### 기획실장 – 지홍스님
### 사회부장 – 일화스님

신임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조계종 개혁회의 포교부장에 이어 제11대 종회 포교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70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5년 쌍계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교육과를 수료한 스님은 불교문화교육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신임 사회부장 일화스님은 78년과 80년 월주스님과 자운스님에게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총무원 사회국장과 사서실장을 지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련스님



◇지홍스님



◇일화스님

# 종단내 괴문서척결 '결의'

###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지선)은 18일 통도사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종단내 괴문서 척결과 통도사 앞 인터체인지 이전 반대, 성원기업 살리기 동참 등을 결의했다.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최근 종단내에 부쩍 늘어난 각종 괴문서가 혼란과 갈등구조를 형성해 승가화합을 깨뜨린다"고 지적하고 "괴문서 작성자와 발송자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도사 인터체인지 이전 계획과 관련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통도사 인터체인지를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주민과 통도사 대중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다.

성원기업과 관련 주지모임은 "성원기업은 영세민과 어린이 · 고아원 · 불우노인돕기 등에 상당한 무주상보시를 해왔다"며 성원기업의 화의신청이 당국에 받아들여지도록 불자들이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 국립공원 야영시설 10월부터 예약제

### 사찰-개인시설은 제외

10월 1일부터 국립공원내의 야영장 대피소(산장)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공원내 숙박 · 체류시설에 한꺼번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0월부터 13개 대피소와 34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7.10~8.20, 10.1~11.14,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이다.

시설이용자는 해당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사용하기 5일 전까지 팩스나 전화, 하이텔로 예약해야 한다. 사찰을 비롯해 개인이 운영하는 체류시설은 예약제에서 제외된다.

정성운 기자

## 조계종 기초선원 교과안거 입제

조계종 기초선원(선원장 진허)은 22일 제9교구본사 등화사 설법전에서 교과안거 결제식을 봉행하고 교과안거에 들어갔다. 1백4명이 참가한 이번 교과안거의 주교재는 기초선원은 주교재인 '몽산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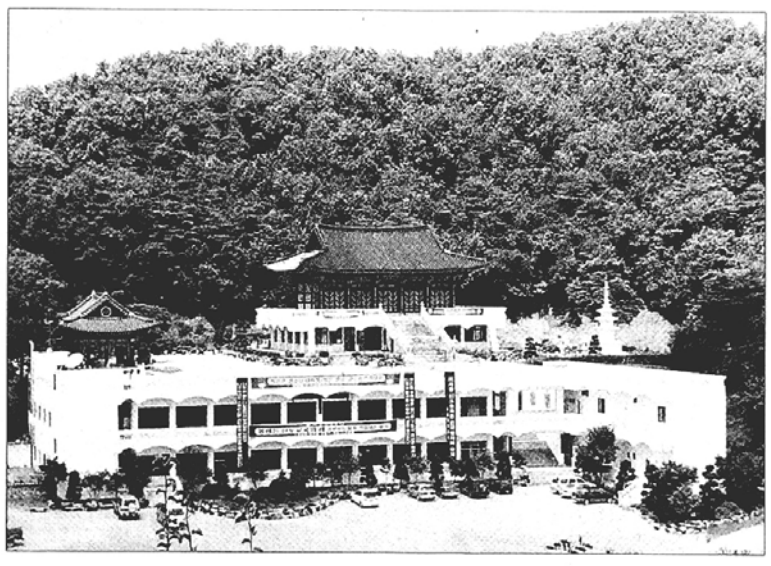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10년기도회향 및 불사낙성식

제2회 라야 어린이, 청소년 포교대상 시상식
신흥사 포교 공로대상 시상식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시작한 두문불출 10년 기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어 그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사히 회향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교계의 큰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에서 물어물어 찾아와서 정성어린 시주를 해주신 수많은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크신 가피 한없이 내리시길 빕니다.
그동안 건축에 기울였던 힘을 보태 앞으로는 내실있는 불교수련과 전법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회향법회에 참석하시어 크나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합장

▣ 회향법회 안내 ▣
● 증 명 : 고산 큰스님
● 일 시 : 불기 2542(1998)년 10월 11일(양력) 둘째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신흥사 · 청소년 수련원
● 전 화 : Tel: 0339) 357-2695, 3916 Fax: 0339) 357-8687
● 교통편 : (좌석버스) 수원역 400-1, 999번 신흥사 하차
(대절버스) 1. 수원 역전 북문농협앞 〉오전 8시 출발
2. 용산역 광장 시계탑 앞 7시 출발

# 불교 사회복지 저조

## 문화부 조사 '종교계 사회봉사 현주소'

### '깨달음 사회화' 이후 복지불사 관심늘어
### 복지관 운영 '우세'…여성·아동·장애인 등 '열세'

'종합복지는 최고, 실직자복지는 양호, 보육 및 아동·청소년복지는 초보, 여성복지는 전무(全無).'

불교계 사회복지활동의 현주소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조사·집계한 〈종교계의 사회봉사단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종교계가 설립·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는 고두 1천1백46곳. 이는 정부가 처음 공식집계하는 것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종교계의 사회봉사활동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에 따르면 종합복지관은 불교가 33곳으로 가장 많으며,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가 14곳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는 3년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족한 이래 조직적인 종합복지관 수탁사업의 성과로 보인다. 타 종교계가 개별적으로 복지관 위탁경쟁에 나선 반면 조계종은 종단차원에서 결집된 힘을 모아 수탁에 나섬으로써 관할기관에 신뢰성을 심어준 것이 주요한 전략이었다.

이와 함께 IMF사태 이후 급성장한 분야는 실직자 프로그램이다. 불교는 70곳으로서 개신교 1백5곳, 천주교 79곳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문제에 발빠른 대응을 계속해 온 '관성의 법칙'에 힘입은 성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는 달리 보육·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육·아동시설은 개신교가 1백19곳, 천주교가 18곳, 불교가 12곳, 원불교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천주교 34곳, 개신교 19곳, 불교 5곳에 달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은 개신교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주교 9곳, 원불교 6곳, 불교 5곳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가 새싹 기독교인들을 집중 양성한 것과는 달리 불교계는 미래의 불자들을 타종교 기관의 아동·청소년시설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냄으로써 불교신자의 노후화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독교계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장애인복지도 아직 성장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천주교가 1백11곳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불교와 개신교가 각각 23곳이었다. 숫자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승가원이 횡성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를 성공시킬 경우 한국 최대의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탄생시키게 되는 등 어느때 보다 전망이 밝다.

노인복지시설은 안정을 다지고 있는 분야다. 천주교가 68곳, 개신교가 39곳, 불교가 35곳, 원불교가 14곳이다. 노령의 불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불교 노인복지를 이끌고 있는 연꽃마을 처럼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점이다.

최악의 복지분야는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여성복지로 나타났다. 개신교가 21곳, 천주교 17곳, 불교 1곳(한국불교교화원 무료직업소개소) 등이 전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무하다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계 복지시설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한편 종교계 사회봉사단체중 사회운동단체는 총 3백20곳으로 유교의 향교가 절대다수인 2백34곳이며 나머지는 개신교가 운영하는 단체가 38곳, 불교가 26곳, 천주교가 12곳, 원불교가 10곳으로 나타났다. 사회운동단체의 주요사업은 △의식·생활개혁 △환경·생활보호 △사회봉사 등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교계 사회봉사단체 현황

| 구분 | | 계 | 불 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및 기타 |
|---|---|---|---|---|---|---|
| 사회운동단체 | | 320 | 26 | 38 | 12 | 10 |
|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 노인복지 | 156 | 35 | 39 | 68 | 14 |
| | 보육 및 아동복지 | 151 | 12 | 119 | 18 | 2 |
| | 여성복지 | 40 | 1 | 21 | 17 | 1 |
| | 장애인복지 | 157 | 23 | 23 | 111 | |
| | 청소년복지 | 58 | 5 | 19 | 34 | |
| | 종합복지 | 75 | 33 | 14 | 14 | 14 |
| | 기타 | 147 | 21 | 25 | 99 | 2 |
| 청소년수련시설 | | 42 | 5 | 22 | 9 | 6 |
| 총계 | | 1,146 | 161 | 320 | 382 | 49 |

## 목어 화장문화

우리국민은 미리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보다 갈때까지 가서야 무슨 운동이다 캠페인이다 떠들면서 대책을 마련한다.

장묘제도만 해도 그렇다. 묘지의 국토잠식을 뻔히 알면서도, 뜻있는 이들이 수시로 화장제도를 거론해도 마이 동풍으로 들어 넘겼다.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의 땅이 묘지화 되는 사실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선뜻 화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매장에 대한 뿌리깊은 관습과, 몸뚱이를 애지중지하다보니 죽은 육신에서도 애착을 떼지못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장묘제도 개선의 시절인연이 왔나보다. 故 최종현 SK회장의 화장을 계기로 화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계,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화장유언장 남기기 서약을 하고 범시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화장서약' 시민캠페인을 지원키로 했다.

화장유언은 역사속에서도 볼수 있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불교법식에 따라 화장한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되서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고 했다. 경주 감포 앞바다의 대왕암이 문무대왕 수중릉이다.

화장은 불교의 장묘문화다.

스님들은 부처님이 하셨듯 다비를 한다. 그래서 재가불자들이 '화장서약'에 너나없이 나설줄 알았는데 망설이는 이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들도 있다. 여기서 한국불교는 불교를 상징하는 화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우리국민의 뿌리깊은 묘제선호의식을 바꾸겠다는 사명감을 갖자.

가톨릭사제들은 지난해 화장유서를 썼다. 기독교는 지난 7일 기독교 장례문화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장례문화 혁신방법, 납골당설치, 임종예비교실, 기독교장례문화개발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장례설교방법등에 관해 발표했다.

불교계는 '화장문화는 우리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일깨우고, 재가자들의 불교적 화장의식 통일작업도 해야한다.

화장하여 남은 뼈를 거두어 묻거나 가루를 내어 산이나 강에 뿌리는 화장의식은 1912년 일제시대에 제정된 '묘지화장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할일이 많다. 서두르자. 할일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자동퇴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국난극복' 부산 정각사법회 이모저모



◇5백여 총지종 스님과 신도들이 진호국가 불사에 동참했다.



◇회향식에 각 종단대표·정계인사 등이 참석 국난극복을 발원하고 있다.

### 밀교수행 철야정진

○…밀교수행법으로 철야정진한 22일 입제식은 엄숙함과 간절함 그 자체였다. 밤9시부터 1시간동안 효강 법장원장 집공으로 올린 진호국가 불사는 '수호국계주' 진언인 "옴훔야호사"를 21편 외고난뒤 결인을 풀고 염주를 돌리며 진언을 외었다. 이어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국난극복불사는 총지화통리원장의 집공으로 동참대중이 결인한채 '관세음보살육자대명왕' 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했다. 이자리에 법회소식을 듣고 경주에서 왔다는 김태연보살(원효사 신도)은 "'옴' 진언을 외우는 총지종의 진호국가 기원 정진은 특이한 수행체험이 됐다"고 말했다.

### 실업자 끌어안기 '발원'

○…법회는 한나라당불자회장 함종한의원이 등참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발원문을 낭독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정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자리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 모두가 평등해질 것이며, 그 평등이 부처님께서 가꾸시는 비로자나불의 전당이고 불국토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2백만 실업자를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돕게 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 백담사 시절 격려 '감사'

○…제1회 신흥사 대회에 이어 이번 제5차 대회에도 전두환 前대통령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 前대통령의 이번 부산방문은 6년 만에 처음이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역신문들이 전 前대통령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 전대통령은 국난극복기원법회에서 기원사를 통해 "이번 부산방문은 백담사에 있을때 찾아오고 위로와 격려를 해준 부산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함"이라고 일축했다. 전 前대통령은 23일 정각사 법회에 앞서 감로사(주지 혜총)를 참배하고 이튿날인 24일 오전 범어사(주지 성오), 오후에는 통도사(주지 월파)를 찾아 방장 월하스님을 예방했다. 이어 25일 삼광사 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 6백여 청사초롱 등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장인 부산 정각사를 중심으로한 동래구와 온천구 일대는 6백여개의 청사초롱 등불을 밝혀 지혜로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일깨웠다.

한편, 23일 오후2시 회향대법회에 앞서 약 1시간동안 정각사 일대 온천동 로터리에서부터 절입구까지 총지종립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길닦음 사물놀이가 흥겹게 진행됐다. 법회 부대프로그램인 문화행사로 진행된 사물놀이는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회에 앞서 전두환 前 대통령과 록정 총지종 종령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전 前대통령, 효강법장 원장, 록정 종령,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국난극복 염원에 한마음을 모은 각계 지도자들.



◇행사에 앞서 펼쳐진 길 놀이.


성일 스님 10년 기도회향 기념

"26년간 축적된 '포교 노하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일 스님 10년 기도회향기념

전법도량 시범사찰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의 생생한 포교현장 체험 자료집들








한 가지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하여 기획하고, 연구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장엄스럽고 상큼하게 행사를 잘 회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들은 행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환희심이 물결치게 해줄 좋은 포교 자료모음집입니다.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신국판 336쪽 값 6,000원

어린이 불교학교 실제 진행 방법, 어린이 불교학교 자료집 등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행한 자료들을 총망라




신도포교지침서 상 - 연중행사편

신국판 406쪽 값8,500원

일반 사찰들이 공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행사 안내문에서부터 진행, 설법문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수록




신도포교지침서 하 - 특별행사편

신국판 450쪽 값9,500원

장엄한 건축불사, 범종불사, 기사불사, 수계불사, 결혼식, 성인수련대회 등 사찰 특별행사 진행에 대한 제반 내용들을 상세히 수록




청소년포교지침서 - 근간

청소년 포교의 효과적인 방안, 프로그램, 설법, 예화 등과 실제적인 운영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실질적인 청소년포교지침서

현대판음기도 영험록 기도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 근간

신흥사를 찾은 전국의 수천 수만의 불자들이 기도 수행 공덕으로 일군 불가사의한 영험들 모음집

불광출판부 대표전화 : 420 - 3200 팩시밀리 : 420 - 3400

## 교차로 승가



### 일광정사 수계법회 증명

석주 칠보사 조실(조계종 원로의원)은 26일 서울 마포 일광정사에서 주최한 부처님·10대제자·5백나한 사리친견 보살계수계법회에 증명대종사로 참석했다.



### 탐마몽콤사원 보살계 증명

지남 수왕사 주지는 10월10일 태국 탐마몽콤사원 방장 안나 우리야 초청으로 탐마몽콤사원 마정수기(보살계) 증명법사로 참석하고 4박5일간 태국 불교성지순례를 위해 출국한다.



### 월정사 불이문 상량식

현해 월정사 주지는 21일 원주 자연학습원 개원식, 25일 월정사 불이문 상량식을 각각 봉행하고 진부유치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 및 불교도서 전시회를 월정사 누각에서 개최했다.



### 딸기원 어린이집 1돌행사

밀운 봉선사 주지는 28일 딸기원어린이집에서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딸기원어린이집은 봉선사가 위탁·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 '장애인과 함께' 자원봉사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 스님은 27일 송파구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이야기'를 주제로 장애자 40여명, 청소년 5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자원봉사를 실시했다.



### 청소년 전법대회 열어

도영 파라미타 전북지부장 스님(금산사 주지)는 10월25일 지부 창립 3주년을 맞아 무악산 일대에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등 4개 지회 중·고교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전법대회를 개최한다.



### 노인4백명 효도관광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24일 수원 거주 노인 4백여명을 초청, 아산 보문사 일대에서 효도관광을 실시했다. 이번 효도관광은 백중행사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 한·중 불교 교류방안 협의

지홍 양양 낙산사 주지는 1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절강대학 한국학연구소를 방문, 내년 부처님 오신날 '한·중 관음신앙'과 '한·중·일 고대 해양항로'에 대한 학술토론회 개최 등 양국 불교문화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 불자장병 6백명 수계

수진 해인사 승가대학장 스님은 20일 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불자장병 6백여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하고 법문했다.

## 망국의 恨 씻는 무궁화

Focus

"늦었지만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나눔의집에 무궁화가 심겨져 할머니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눔의집후원회(회장 이일웅)와 서울대·성균관대·경기대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등 2백여명은 9월20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집 주변에 무궁화를 심는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무궁화를'이라는 식수행사를 가졌다. 이날 심어진 무궁화는 한국재래종 홑꽃단심계 5~6년생(150Cm) 1천5백여주. 참석자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울창하게 자라 무궁화 나무가 할머니들의 노후에 푸르른 희망을 선사할 것을 기원했다. 나눔의집에는 누구든지 와서 무궁화를 심을 수 있다. (02)960-688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상담·치료전문 사이버 가정의

### 인터넷 종합병원 건강샘 개설 이근후 박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병원으로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적응방식으로 치료기능에서 예방 의료기기 및 가정용 의료기구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8일 발대식을 가진 인터넷 종합병원 '건강샘'의 원장을 맡은 이근후박사(이대 신경정신과, 본지논설위원)는 의욕을 피력했다.

'건강샘'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건강 및 질병문제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저하게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고 무료이다. 건강샘 주소 http://www.healthkorea.ne.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 경승 5명 경승단총재 표창



◇종호스님



◇혜경스님



◇법륜스님



◇승원스님



◇진공스님

제주경찰청 경승실장 금호스님, 서귀포경찰서 경승 혜경스님, 장수경찰서 경승 법륜스님, 익산경찰서 경승 승원스님, 정읍경찰서 경승 진공스님(사진 좌로부터)이 23~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승단 연수회에서 경찰 및 유치인 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경승단 총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공로상을 수상한 종호스님 등 경승들은 △지역주민들과 유대강화 △경찰 교리법회 및 정신교육 강화 △모범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실직자에 무료급식·취업알선

### 부산 '보현의 집' 개원 이기표 소장

"불교계에서는 부산·경남에 처음 개원한 시설이라 책임감이 큽니다. 자비·보살행을 실천해 보현의집을 이용하는 이들의 재활을 돕고 가정복지에 힘 쓸 것입니다."

26일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종계종 부산 보현의집(동래구) 이기표소장은 이렇게 시작의 마음을 밝혔다.

5월부터 실직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들을 위한 일을 준비하던 이소장은 부산 보현의집 개원을 앞두고 부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지를 돌며 직접 노숙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소장은 "복지나 실직자를 위한다는 것은 가슴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몸으로 그들과 부대끼며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총 2백여평에 숙소와 부대시설을 갖춘 부산 보현의집은 상담, 무료급식, 취업알선, 무료진료 등의 사업을 펼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실직자 자녀에게 놀이방을 마련해주고 결식아동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표소장은 "실직자들의 삶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상담, 진료, 자매결연 등의 자원봉사를 같이할 불자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하불동 새시샵 김상일씨

## "국내 네티즌에 통신포교 확대"



하이텔 불교동호회는 23일 제8기 대표시샵으로 김상일씨(ID KIMSI·아시아나항공 근무)를 선출했다.

김씨는 "가상공간에서의 포교활동이 불교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회원들이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며 당선 소감을 말했다.

그는 94년 하이텔 불동에 유적답사회를 만들고 전통사찰과 폐사지 등 전국 불교 유적지를 답사했다. 그리고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등재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그는 신비로(shinbiro)에서 불동 '부처님 세상'의 시삽을 맡아 불동의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다. 신비로 불동은 6월16일 시험 개설, 최근 신비로 정식 동호회로 인가를 받았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교차로 재가

### 中서 '달마선…' 주제발표



오형근 대승사상연구원장(前 동국대 교수)은 10월10일 중국불교협회가 주최한 중국불교 2천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달마선과 유가행파 선(禪)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키 위해 출국한다.

### 농수산물 관리공사 사장에



허신행 前 농림수산부장관은 21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허사장은 서울대와 미네소타대에서 수학한 뒤 농림수산부장관, 소비자보호원장 등을 역임했다.

### 원효종 전국신도회장에



허문도 前 통일원 장관은 21일 원효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전국신도회장에 추대됐다. 허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 실업극복 본부에 1천만원



조성준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연등회 간사)은 17일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지난 11일 개최한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

### '스' 고승 탄신기념법회 참석



성순경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장은 21일 스리랑카 마하실디사 아나가리나 당마발라법사 탄생 134주년 기념법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출국했다.

### 마곡사 성지순례



홍성용 대한불교 약사회장은 20일 회원들과 함께 공주 계룡산 갑사와 마곡사 등에서 성지순례 행사를 가졌다.

### 어린이집 명예 원장에



김흥국 불자가수는 29일 동산반야회에서 서울시 성북구청으로부터 위탁·운영하는 '장위1동 어린이집' 명예원장으로 위촉됐다.

### 교사불자련 1돌 기념법회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은 19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사불자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 뉴델리서 '구도여행' 개인전



한기늠씨(조각가)는 10월9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 국립 미술아카데미에서 '구도여행'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이 전시회에서는 구도자의 수행과정을 다양하게 포착한 브론즈 작품 36점이 전시된다.


# 제 1189년 은해사 개산재 및 보살계 안내

⊙ 일시 : 2542년 10월 25일(음 9.6)일: 오전 10:30~오후17:00(정진법회)

화엄교학의 본산인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현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화쟁국사(和諍國師) 원효(元曉)스님, 해동 화엄종의 초조이신 의상(義湘)스님,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 지눌(知訥)스님,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성사(一然聖師)와 조선조 화엄학의 대강백이신 영파성규(影波聖奎) 대사를 비롯하여 근세의 향곡, 운봉, 성철 큰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善知識)을 배출한 은해사는 온국민의 정신적 귀의처요 정해결사 도량으로서 개산한지 어언 1189 성상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 불기 2542(1998)년 10월 25일 (음.9월 6일) 제방의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개산재를 봉행합니다.

아울러 본사 조실이신 일타 큰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을 모시고 보살계와 만등불사 그리고 지장보살 봉안불사를 봉행하오니 꼭 동참하심으로 선근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불기 2542년 9월

**법 회**
1. 보살계
2. 지장보살 봉안
3. 만등불사
4. 국악 한마당

**동참금**
보살계 2만원
만등불사 5천원
평생위폐 10만원(분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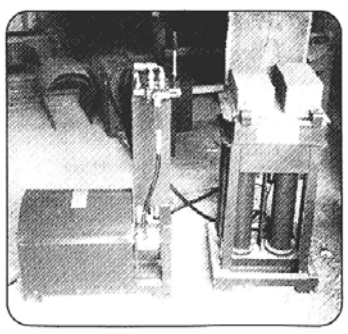
**문 의**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 은해사 (0563)335-3318-9
· 서울 평불협 (02)735-5558-9
·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구,경산,영천지역 버스를 운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실 東谷日陀 주지 中和法陀 합장

# 황토흙벽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간편 5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황토관련 전문회사

지역 총판 대리점 모집
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 충남, 충북, 대전
3) 경남, 경북, 울산, 부산, 대구 4)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위와 같이 광역단체로 총판대리점주를 4분만 모십니다.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 PC통신 '불동'도 경전 전산화

**천불동** 불교성전등 불경 점역화 추진
**하불동** 선림고경총서 11권 등록 공개
**유불동** 원각경등 16종 불서 입력진행

불교통신동호회들이 전자불경 입력작업에 나섰다.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심준엽) 보은회는 장애인불자들을 위한 점자불경 점역화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초 조계사 원심회에 문의하여 불경 점역화작업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간 보은회는 8월부터 부모은중경과 초발심자경문 점자화를 시작했으며 21일부터는 15명의 회원이 동참하여 첫 공동작업으로 동국역경원의 〈불교성전〉을 점역화하고 있다.

보은회 총무 금은수씨는 "경전 점역화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불교를 알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점자책은 쉽게 닳아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 만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원창스님(법주사) 제안으로 〈치문경훈〉 안진호본과 탄허본 〈능엄경 세조본〉 입력 작업을 진행중이며 올해말까지 〈조선불교시인선집〉 〈불교와 인도사상〉 〈자비도량 참법〉 〈원각경〉 〈금강경오가해〉등 16종의 불서를 입력한다는 계획이다. 법보시 대작불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원창스님이 필요도서를 직접보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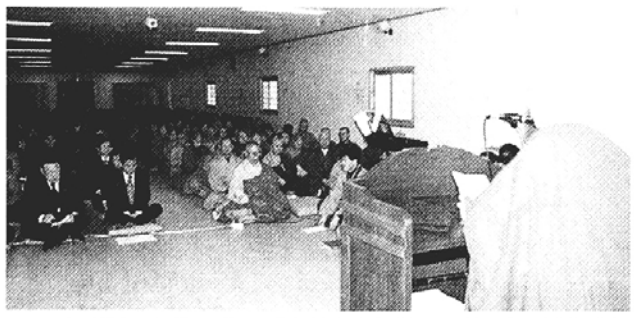
이에앞서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상일)는 14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6개월 동안 해인사 백련암에서 간행한 선림고경총서 11권을 입력하여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입력자료로 선림고경총서 CD와 D/B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통신동호회가 불경전산입력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교계의 한 불자는 "불교통신 동호회의 전자불경 입력작업 노력에 감사한다"며"정보통신시대에 포교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C통신 불교동호회 회원들이 불경을 입력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탐방 성북구청 법륜회


◇성북구청 법륜회는 오랜 역사만큼 활발한 활동을 준비한다. 길상사에서 가진 신년법회 장면.

## 불법 배워 지역주민에 회향

**지난해 재창립…49명 활동**
**명절 관내 불우시설 방문**
**결식아동·소쩍새마을 후원**

'불교의 육천(六天)에 대해 아십니까?' 매주 월요일이면 성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빠짐없이 '알기 쉬운 불교공부 한마디'가 올라온다. 9월 21일에 올라온 글이 벌써 19회째인데 짧은 불교상식 이지만 구청 내에서 인기가 높다.

성북구청 법륜회(회장 정후시. 민원봉사계장)는 49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원래 10년 전 김재일법사(現 동산반야회 회장)가 성북구청 재직시 법륜회를 창립했으나 한동안 맥이 끊겼다가 지난해 4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더 친절하게 봉사하자'는 취지로 재창립했다.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이면 정릉 천중사에서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을 지도법사로 법회를 열고 있는 법륜회는 자체교육자료집을 만들어 교리공부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법륜회는 매월 관내 스님의 법문내용을 실은 '法輪(법륜)'이라는 월회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지난해 소쩍새마을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명절 때면 관내 불우시설 9곳에 떡과 과일 고기등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비디오테잎을 판매하여 수익금 1백여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다.

또 매달 소쩍새마을에 후원회비를 전달하고 결식아동들에게도 매월 3만원씩 보조금을 보내고 있다.

법륜회는 10월중 정부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교계 비인가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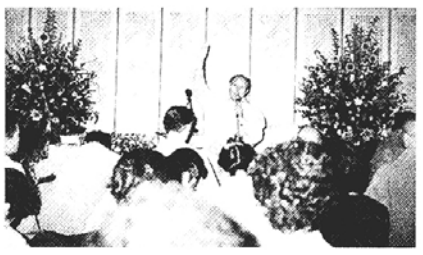
정후시회장은 "법륜회 발전을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리공부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금강경독송회 결식아동돕기 모금

### 경주서 전국연합 철야법회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9, 20일 경주 두대법당에서 5백5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단위 통합철야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웅법사는 1년동안 공부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은 19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로 금강경 7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했다. 각 법당별로 추천된 사람들이 중심이 돼 1년동안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김재웅법사가 공부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금강경독송회 철야법회 장면.

한편 이날 전국철야법회에서는 IMF시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도 실시했다.

## 인터넷 신비로 '불동' 개통

### 채널i 불동도 지역·소모임 활성화


◇인터넷 신비로 불교동호회 '부처님 세상' 초기화면.

인터넷에 불교동호회 모임이 활발하다.

인터넷 상용통신망 신비로에 불교동호회 '부처님 세상'이 최근 개통됐다.

부처님세상은 6일 첫 모임을 갖고 불교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사찰모임 △게시판 등록 △지역 또는 취미모임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님 세상에는 '자유게시판' '나의 문학/습작' '불자들의 이야기' '불교소식/행사' '불교서적/간행물' 등의 방이 올라 있다. 또 '한국불교를 위한 나의 제언' '팔만대장경' '가람의 향기' '메시지의 꿈' 등 다양한 내용을 올릴 수 있다. http:www.shinbiro.com/@bud

또 채널i 불교신힝회는 20일 메뉴담당 부시삽 5명을 선출했다. 8월 30일 동화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불교신행회는 동호회방에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신행활동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불교신행회는 동호회 발전을 위해 소모임과 취미모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모임은 만들기로 하고 24명의 지역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http:forum.channel:.net/go bul

## 우리 모임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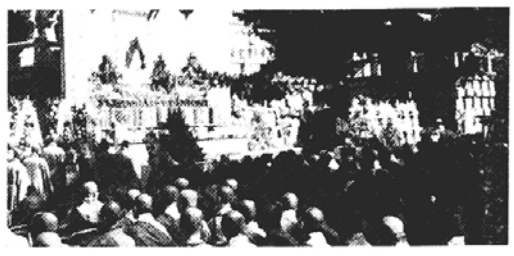
### 1회 교계 직장 축구대회

제 1회 교계직장 축구대회가 10월10일 오후 1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BBS btn 현대불교신문 조계종총무원 진각종통리원 전불련 등 6개 불교계 직장축구단이 참가할 이번 축구대회는 불교직장단체의 친목과 연대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02)529-3861

### 광주·전남 청소년 수계

광주·전남교사불자연합(회장 김진택)은 10월 24일 순천·나주여상, 벌교상고 등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3천여명이 참여하는 제 3회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수계식을 봉행하고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김진택회장은 "청소년 가을 대축제를 통해 수행과 정진으로 참나를 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불국사 월산스님 1주기 추모식

성림당(聖林堂) 월산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가 25일 오전 10시 불국사 범영루앞 마당에서 엄수됐다.

이날 법회에는 승찬 도견스님 등 원로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문도대표 탄성, 성타, 월탄, 설조, 법장, 지선, 성덕, 정휴, 법등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하여 스님을 추모했다.




## 제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제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 지하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보각스님, 홍윤식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홍기삼교수(동국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역경상 현대부문에 법성스님(대승사 주지)·고전부문에 송성수위원(동국역경원)이, 문학상에 김성동씨, 예술상에 안숙선단장(국립창극단) 등 4명이다.



##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 착공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19일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 (주)국영테크 대표이사 최종학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승가대학교 기원학사에서 장애아동요양시설인 상락원 착공식을 거행했다. 기원학사는 대지 6백70평, 연면적 4백12평의 반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 상락원과 중앙승가대 보육사교육원은 1층에 자리잡게 되며, 2층에는 주간보호센터 녹야원·상락원이 자리잡게 된다.



##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 입재식

18일부터 24일까지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작 이윤택 연출)이 연극으로는 최초로 18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무진법장사 주지 법장스님, 광명선원 주지 초격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장 심산스님 등과 자민련 불자회장 박철언의원 등 불교계 인사와 연극인 1백여명이 동참했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 천일기도 四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된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 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한 선학원은 한국선종불교로 이 時代의 聖地임은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로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두분의 아미타불 부처님을 조성하여 한부처님은 선학원에 모시고 한부처님은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신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을 뿐아니라 선학원 중앙선원 동·하안거 방함록은 전국선원중 제일 먼저 실려 있든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써 옷깃을 여미며 三寶任께 발원하여 선학원은 24년 만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의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선남선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입제법어 **華溪寺 祖室 崇山行願 大禪師**

선종소의경전 금강경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8년 10월 3일(음 8월 13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 주 최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화주단**
■ 주 관 : 신도회·운영위원회·합창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2년 (음) 8월 13일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千日기도 四百日 大法會**

**제5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華溪寺 祖室 崇山行願 大禪師**



**약 력**

· 화계사 주지
· 동국학원 이사
· 조계종 비상종회의장
· 재미홍법원장
· 화계사조실
· 조계종원로회의 위원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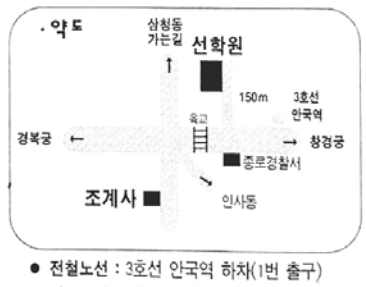
**2차**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四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 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⑦ 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⑧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 時代 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이관음행 유정혜성 손진여심 오만덕화 송법성심 박선해일 정선덕행
김복덕성 박보리성 민길상심 권지애심 정본각성 이법왕자 이보현심 윤보광심
송 경 헌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월
고문 양보타월 이연화심 이 경 희 김명심행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이법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원명심
감사 박선혜월
감사 권법연화
1지역회장 이반야행
2지역회장 유정혜성
3지역회장 최 복 식
4지역회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창단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배 경 주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 상 은 회섭
총무 최
운영위원일동
청년회장 이 상 훈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1번 출구)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쌓았던 업적은 물론 자신의 인격에도 큰 손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도 흔한 일이다. 불륜이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패가망신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불륜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일반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성직자들 역시 가장 경계해야 할 악덕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통해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이렇게 들었다

불륜

### 예쁜 여인 보면 참모습 관찰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가거나,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가도(家道)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악도(惡道)에 떨어진다. 〈잡아함경〉

▨만일 사랑스럽고 어여쁜 여인을 보거든 참 모양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바로 생각해 보라. 〈중아함 식지도경〉

▨서쪽을 예배하면서는 처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하라. 남편은 처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처는 남편에 대해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처에게 절하는 이유이다. 〈육방예경〉

▨남편은 다섯 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떠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거든 일어나서 맞이함이요, 둘째는 남편이 외출해 집에 없거든 밥을 짓고 집을 치워서 기다림이요, 셋째는 남의 남편에게 음탕한 마음을 지니지 않음이요, 넷째는 남편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집에 있는 가재구를 숨기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남편이 잠들고 나서 눕는 일이다. 〈육방예경〉

▨남의 부인과 관계를 맺지 말고, 음행을 멀리 여의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십선경〉

▨자기 아내에게 족한 줄 알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치게 하는 술 마시기를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중아함경〉

▨아내를 박대하고 남의 여자 육뵈는 사람이 진실로 천박한 사람이다. 〈별역잡아함경〉

▨오직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적질, 이 세 가지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그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과보가 서로 연속되나니라. 〈능엄경〉

▨예전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금·은이 많았다. 그녀는 다른 사내와 사귄 끝에 집안의 금·은·의복 따위를 훔쳐내 그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 급류가 흐르는 물가에 이르렀을 때 남자는 재물을 먼저 옮긴 다음에 부인을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재물을 가지고 건너간 남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그때 매를 잡으려던 여우가 잡았던 고기를 버리고 매에게 접근했으나 매는 날아가 버리고 결국 고기와 매를 다 놓치는 결과가 되었다. 여인이 여우에게 말했다. "넌 참 어리석구나.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잡다니…."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내 어리석은 것은 그래도 낫다. 네 어리석음이야말로 나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구잡비유경〉

# 열린마당

##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은 20개 구역으로, 총 면적은 6천4백73㎢(약 21억3천6백만평)이며, 그중 35%가 사유지, 8%가 사찰 소유지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이다.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애초 잘못 지정된 구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사실상 공원구역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차제에 국립공원 관리권의 강화 등 공원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편집자 주〉



◇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

## 객관적 기준토대 구역조정 보존 해치지 않는 범위서 추진

김상훈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사업에 해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국 공원은 철저히 보전위주로 관리되어 마땅하지만, 애초부터 공원지정 자 가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 조정의 필 성이 인정된다.

다만 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할 경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 해을 것이 뻔하며, 이러다 보면 공 구역 해제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확 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구역조정 업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 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 작된 공원구역 조정작업은 이러한 유에서 현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역진에서 구역조정 기준안을 마련중 있으며, 최근의 언론은 이 기준안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도하여 많은 오해와 우려를 자아낸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구역조정작업을 2 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1단계에서는 원의 자원성과 문제지역의 조정타당 을 평가하여 양자의 요건을 공히 충 하는 지역을 구역조정 후보지역으로 정한 후, 2단계에서 구역조정시의 태계·경관·수질 등 환경영향을 검 하여 최종적인 구역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 구역조정 대상지역으로 보도된 지역들은 기준안에 따르면 조정타당성이 인정된 지역에 불과하므로 이들 지역이 실제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자원성 검토에서 일정수준 이하여야만 하고 아울러 구역조정시의 영향성 평가에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구역조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준안은 구역조정을 경계부에 한정하되 다만 해상공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이 우려하는 만큼 무분별한 구역조정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기준안은 원칙적으로 공원별 면적총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공원면적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기준안은 현장적용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보완되고 아울러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련학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원계획 재정비사업은 공원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소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 자연파괴·예산낭비 등 우려 '국가공원청' 신설 관리 강화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

국립공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의 보고다. 어느 나라든지 자신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곳을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16개가 산악형으로 지리산 설악산 등의 공원이다. 해안형의 국립공원은 3개로 태안반도 변산반도 한려수도 등이다. 사적형은 유일하게 경주국립공원이 있다.

현재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도와 통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관리권이 이양되었다. 이와 함께 내무부에서 무려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이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작업도 물려 받았다.

일부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정치권의 로비에 의해 추진된 공원구역 재조정작업은 국립공원의 기본이념을 도외시한 사업으로 많은 우려와 염려를 낳고 있다. 만약 재조정작업이 계속된다면 예산낭비와 더불어 환경파괴라는 이중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원구역 재조정작업은 하루빨리 백지화되고 40억원의 예산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로 돌려져야 한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국립공원보다도 더 낙후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립공원에 대한 이념과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

현재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공단이라는 애매한 위탁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국가공원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원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과 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예산과 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적어도 국립공원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삭감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국립공원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발상이다.

자손만대로 영구히 보존해야 할 으뜸의 자원중 하나가 바로 자연자원의 보물창고인 국립공원이다. 기본이념이 부재한 국립공원 접근법이 너무 안타깝다.

## 국립공원 재조정 '찬반팽팽'

이미 시가지화 지역 해제 [당위론]

녹지훼손 행정 땅투기 조장 [반대론]

환경부는 21일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전면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11월까지 재조정 기준이 확정되면 곧바로 9개 권역별로 구체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대상지는 △국립공원 경계선 부근 지역중에서 시가지화한 지역 △공원지정 이전에 집단주거지가 형성된 지역 △도로개설 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면서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지역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작업 실시 배경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작업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주장해온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립공원발전연구회의 주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공원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로 모인 국립공원발전연구회가 중심이 돼 95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됐다. 국립공원에 대해 10년을 주기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원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립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용도변경 대상지역의 땅들이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둔 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을 지정한 본래 취지가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유지한다는 데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경제교수(서울시립대·조경학)는 "일본은 환경청 내 자연보존국, 미국은 내무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반면 우리는 환경부의 1개과(자연공원과)에서 관리업무를 지휘한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국립공원 관리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독립 외청 신설 △사법권을 가진 공원경찰제 도입 △인원장비의 대폭보강 등을 제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권 선 문

호선사 사찰 건립불사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에 널리 비추네 인연 따라 미치지 않는 곳 없지만 항상 보리좌를 떠나지 않네……

부처란 명과 상을 떠났으되 충만하지 않는곳이 없으며 시방과 삼세를 초월하였으되 그 광명이 법계에 창일하여 일초일목이라도 그 은혜에 젖지 않음이 없습니다.

재재처처가 불찰불신이오 삼라만상이 청정법신입니다……

어느곳 어디엔들 상적광토가 아닐 수 있겠읍니까마는 지혜가 암둔하고 업장이 후중한 우리 중생들로서는 동정을 같이 하는 부처를 부처로 볼줄 모르며 청정법신속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웁기 그지 없고 담담하기 한량 없는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찰이 하나 초창되었다는 말은 부처의 화신이 하나 새롭게 나타났다는 말과 같은 것이며 짙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도량이 또 한군데 건립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찰이란 대중이 공동으로 마음에 물어 있는 후중한 진구를 세척할 수 있는 선지이며 대도만행을 고루고루 수행하여 정각의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신성 장엄한 영장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유명산내력 대부산 줄기에 건립하고저 하는 호선사 대웅전 요사채 연수원 유치원 건립은 참으로 그 의의 자못 중대하기 이를데 없고 그 사명과 책임 진실로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이타의 대원이 구현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일시성불의 대과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누적의 죄업이 여기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내성의 정진으로 증오의 불과를 여기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목을 열 수 있는 명안 종사가 이 도량에서 쏟아져 나와 격외의 고준한 설법으로 미륜을 제도하는 부처님법회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강론 현담으로 항상 법륜상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고해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을 상락아정의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법열의 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 건립의 기본 정신이며 수행납자의 본분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심현한 뜻으로 이곳에 사찰을 초창함에 있어 물심양면의 다대한 원호아래 오늘 청신남청신녀 불자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사회 유지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원만히 건립불사가 이루어지길 본사 주지 덕산스님의 지대한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41번지

호선사 주지 덕산 합장

☎ 018) 359-3573, 0342) 743-9087

■ 온라인 번호 : 농협 711-02-017227 (예금주:이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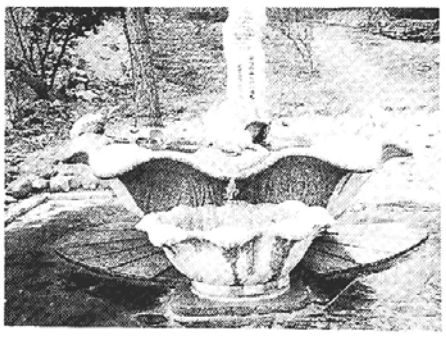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겸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제 17회 불교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주영씨의 목조각 '아미타삼존불'(200㎝×200㎝). 불상에는 은행나무를, 대좌는 백송을 사용했다. 섬세하고 치밀한 조각솜씨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을 받은 오진균씨의 회화 '깨달음'(144㎝×192㎝). 크레파스와 아크릴을 사용해 스크래치(긁기)기법으로 깨달음을 상징화했다.

# 17회 불미전 대상작없이 금상 2편

## 한주영씨 '아미타삼존불' 오진균씨 '깨달음' 금상

### 입상작 10월14~27일 공평아트센터 전시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한주영씨(40·부산 금강불교조각연구소)의 조각 '아미타삼존불'과 오진균씨(26·동국대 대학원)의 회화 '깨달음'이 금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차지했다. 24일 발표된 불미전 심사결과와 입상작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해당작이 없이 은상에는 조각 '심우도(최경교)' 탱화 '일백사위신중도(김성희)' 서예 '상수불학가(이종선)'이, 동상에는 탱화 '만불탑(김현창)' 조각 '달마의 전설(김평기)' 회화 '치성(김민정)' 서예 '사명당시(이혜숙)' 등이 각각 차지했다.

금상으로 선정된 조각 '아미타삼존불'은 전체적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히 조각해 조형미를 잘 갖추었다는 점에서, 회화 '깨달음'은 창작성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예 △사진 부문이 제외된 이번 불미전에는 출품작이 대폭 줄어 △탱화 △조각 △회화 △서예 등 4부문에 모두 163점(지난해 269점)이 응모했고 이중 94점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출품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한정된 기능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 작품구상에서부터 창의성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상작들은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전시되며, 입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4일 오후 5시 공평아트센터에서 갖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불미전 금상수상자 인터뷰

조각부문 한주영씨



**2년전부터 작품준비**

"'불미전'에 처음으로 출품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모두 부처님의 가피인 듯 싶습니다."

한주영씨는 20여년이 넘게 불교조각을 해온 불모. 2년전부터 은행나무와 백송을 골라 조각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는 한씨는 조각이 잘 안될 때는 가까운 절에 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려왔다고. 한씨는 이번 수상을 "더 훌륭한 불모가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한다.

회화부문 오진균씨



**"탐진치 정화 했으면"**

오진균씨는 크레파스와 아크릴을 사용하여 스크래치기법으로 현실의 갖가지 유혹과 이에 따르는 고통을 묘사하고 아랫부분에 부처님과 연꽃을 배치, 현실세계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불미전 첫 출품작으로 금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씨는 "탐진치로 얼룩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혼이 담긴 그림을 계속해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와 자하문이 그대로 무대가 된 오페라 '원효'의 한 장면.

## 오페라 '원효' 관람기

# 불국사 배경 환상적 무대 1300년전 신라의 사랑 재현 6천여 관객들 감동의 시간 상징적 아리아 보완했으면

민족의 영원한 스승 원효스님과 요석공주가 1천3백년 세월을 거슬러 고향 경주로 돌아왔다. 18일부터 3일간 불국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원효'는 고색창연한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와 자하문이 무대로 활용되고 군데군데 서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소품으로 사용되는 등 불국사는 그 자체로 훌륭한 공연무대가 되었다. 특수 조명을 받은 울긋불긋한 단청과 기하학적 무늬의 석축이 무대가 된 배경은 오색 연등의 물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혼신을 다한 연주자들의 화음은 깊어가는 산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6천여 관객들은 1천3백년만에 환생한 원효스님의 무애행과 요석공주의 애절함에 일희일비했다. 원효스님이 요석공주의 간청을 뿌리치고 청운교 백운교를 걸어 중생구제의 길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뭉클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페라가 보편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야외무대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찰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무대는 다소 모험적이기까지 했으나 주최측과 출연진들이 호흡을 맞춰 기대 이상의 감흥을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가장 신라다운 장소인 불국사에서 불교소재의 오페라가 열렸다는 점은 불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고 타종교인들도 "불국사를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무대와 잘 어울리는 서정연한 관람태도를 보고 불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

그러나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야외무대는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 그리고 현장감있는 음향을 특징으로 한다. 장소가 협소했던 탓인지 본래 계획했던 이등식 무대가 취소됐고 하나의 무대를 사용하다보니 막이 바뀔 때마다 관객이 보는 앞에서 소품을 바꾸어야 했고, 웅장한 신라왕궁 등은 거의 표현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관객들은 다소 시각적인 지루함을 감수해야 했다. 또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만큼 외국인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 자막이나 영문 번역본을 나눠 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베르디의 '아이다'나 푸치니의 '투란도트' 등에서와 같은 대표할만한 아리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성악가는 "오페라 '원효'가 세계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불멸의 아리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몇가지 부분만 보완한다면 오페라 '원효'는 세계로 진출해도 손색이 없을 듯 싶다. 이번 공연은 불교가 서양의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소재로도 얼마든지 흥미로울 수 있음과, 산사가 문화 공연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찬불가 작사 25년 대중에 회향"

### 반영규씨 고희기념음악회…10월 16일 문예회관

"찬불가로 인연맺은 도반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 준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있는 좋은 가사를 쓰며 여생을 회향할까 합니다."

'붓다의 메아리' '무상계' 등 널리 불리는 찬불가의 작사자 반영규선생(불교문서포교회 대표)의 고희를 맞아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음악회가 10월 16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부처를 향한 어느 시인의 노래이야기 그리고 서원'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음악회는 평소 반영규선생의 사(詞)에 곡을 붙인 최영철 이찬우 조영근 김희경 정옥녀씨 등의 지휘로 진행된다. '개경게(김희경 곡)' '출가일의 노래(정부기 곡)' '보리이루리(박범훈 곡)' '자비의 나라(김희경 곡)' '나의 서원(김동환 곡)' '붓다의 메아리(서창업 곡)' 등 반영규선생 가사의 찬불가 19곡이 공연되어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 특히 김성녀 김영임 오승희씨 등 국악인과 성악가들도 동참하며 중앙불교합창단 청룡사 길상사 삼선포교원 합창단과 예노중창단, 오느름국악실내악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

반영규선생이 25년동안 작사한 찬불가는 모두 1백여 곡. '붓다의 노래'(정부기 곡) '불밭에 핀 꽃'(김희경 곡) '사바의 노래'(김동환 곡) 등은 불교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대작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었다.

소책자 '자비의 소리'로 쪽지포교의 선구자로 활약해온 반영규선생은 칠순인 현재도 2개의 오페라와 1개의 뮤지컬 가사쓰기에 몰두하고 있는 등 불교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쉼없는 정진을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 대구불교방송예술단 창단

대구불교방송(사장 법타스님)이 국악합주단, 교향악단,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창단, 10월13일에 창단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악합주단 30명, 교향악단 40명, 합창단 80명 등 총 150여명 규모로 조직되는 이번 예술단은 불교방송 열린음악회를 비롯 사찰순회 연주회, 해외교류 음악회 등 불교 음악 전파를 위한 법음포교에 나선다. 대구불교방송예술단은 9월말 각 부문별 오디션을 거쳐 11월12일 대규모 창단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 왕궁리유적등 3건 익산시, 사적지정 고시

### 문화재 소식

문화관광부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왕궁리 유적, 부안군의 백산성, 전남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등 3건을 17일 사적으로 지정 고시했다.

왕궁리 유적에는 국보 제2백8호인 왕궁리 5층석탑이 있으며 8년 이후 실시된 발굴 조사 결과 5층석탑과 관련된 금당지와 강당지 등 사찰의 배치를 알 수 있는 건물지 유구와 유물, 사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약 1.5㎞의 석성이 확인됐다. 74년 9월 27일 전북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은 사적 제4백5호인 제석사지와 함께 백제 말기(7세기 무왕대)의 익산 천도설을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편 익산시는 왕궁리 유적에 대해 163억원을 들여 성곽을 복원하고 전시관을 짓는 등 유적지 정비를 벌인다. 국비지원을 받아 이 일대 6만 5천여평을 사들여 길이 1천4백90m의 성곽을 복원하고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오는 2005년까지 신축하기로 했다. '모질메 산성'으로 불리는 이 성은 남북 495m, 동서 235m인 장방형이며, 출토된 기와와 와당 등으로 미뤄 백제의 궁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 보일러 —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于 430-043
본사 :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무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버섯 좋은것 다아시죠!
(암 및 당뇨, 성인병 예방 특효)

동충하초
누에동충하초:중량100g
값:150,000(1개월분)

상황버섯
상황:중량340g(170g×2개)
값:135,000원(40일분)

아가리쿠스
중량150g
값:105,000원(1개월분)

"엄선한 수리산하에서 재배한 버섯"

(주)동해농·축·수산 건강사업부
(건영백화점내)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서울 02)926-6981
철원 0353)458-4534
제주 064)752-1611
휴대폰 011)262-6981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청담스님 외 지음

## 밥그릇 독차지하려는 이들에게 꾸짖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독차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네 삶에 대한 꾸짖음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곽만연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들 속에서 법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과학, 8천원〉

화제의 책

평상심이 곧 도다 3 이은윤 지음

## 중국 강서·호남 86개 선종사찰 답사기



중국 강서성 남창 우민사는 마조도일선사의 선맥이 서린 고찰이다. "만법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대가 한입에 서강의 물을 몽땅 들이마신다면 그때나 말해주리라" 방온거사가 묻고 마조도일선사가 답한 선문답이 생생히 전해 내려온다.

'중국 선불교 답사기' 세 번째 권인 〈평상심이 곧 도다 3〉은 중국 선불교의 황금기였던 당·송대 거물 선사들이 주석했던 강서·호남의 86개 선종 고찰을 현장 답사한 기록을 담았다. 각 사찰을 대표했던 선사들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엮어 중국 선불교의 진면목도 아울러 볼 수 있다. 책 앞부분에 실린 30여점의 현장사진이 생생함을 더해준다. 〈자작나무, 9천원〉

화제의 책

항문을 조입시다 김도향 지음

##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




가수로, 광고 음악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명상가로 더 잘 알려진 김도향이 풀어놓는 순리에 맞는 자연스런 삶을 노래한 에세이집.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세상 사는 일이 즐거울 수도, 괴로울 수도 있다. 이 글은 삶에 대한 사랑과 관조가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지름길임을 보여준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자신감 있는 삶으로의 회귀. 이 모든 것이 마음 다스리는데 있음을 저자는 말한다. 자신이 수행한 여러가지 수행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혜음, 7천5백원〉

'월산선사법어집' 출간

# 승풍일신 주창한 월산스님의 가르침 후학들 일깨운다





뛰어난 선풍도골로 수행자의 귀감을 보이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켰던 월산스님(1912~1997). 구습을 혁파하고 새롭고 올곧은 승풍으로 종단 정화불사의 정신적 기초를 이뤄냈던 스님의 가르침이 9월25일 열반 1주기를 맞아 책으로 담겨 나왔다.

월산문도회에서 펴낸 〈월산선사 법어집〉에는 초심납자 시절의 사진 등 각종 행사의 기념사진과 다비식 장면, 친필휘호 등을 수록한 사진자료와 함께 스님의 상당법어와 수시법어 등 1백여편의 법어가 실려있다. 특히 넙어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게 내용별로 묶어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어 제1부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는 선문(禪門)에서 드러난 스님의 본래면목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 실려 있으며, 제2부 '월산가풍(月山家風)'에서는 선사의 가풍을 드러낸 법문들이 담겨있다. 제3부 '파수공행(把手共行)'에는 절기에 따른 법어와 신도들에게 들려준 설법이 묶여져 있다.

월산스님은 1948년 도반인 청담·향곡·자운·성철스님 등과 함께 결사수행중 공주청규(共住淸規)를 만들어 백장선사 등 옛 조사들의 가르침에 따른 승풍일신을 주창했으며, 1970년 불교·천주교·유교·원불교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창립된 한국종교협의회 초대회장에 취임해 종교간 화해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스님은 언제나 수행에 게으르지 말 것을 후학들에게 엄하게 당부하되 무지(無知)는 늘 자상하게 깨우쳐 준 것으로 유명하다.

"돈오돈수는 움직일 발이 없는 범이요, 돈오점수는 바라 볼 눈이 없는 봉황이로다"며 말끝만 좇는 어리석음을 경계시켰던 스님의 깨우침은 지금도 제방의 학승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행처는 불국사. (0561)746-9913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시대순 불교사상 발전 '정리'

한종만교수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한국불교사상의 전개〉(민족사 刊)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불교를 강의해 온 원광대 한종만 명예교수의 평생의 연구업적을 모은 책이다.

그동안 학계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에 의해 연구된 20여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신라·고려·조선전기·조선후기 등 시대순으로 불교사상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화엄사상과 천태사상, 그리고 선사상과 삼교회통사상이 한국불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불교가 당대(唐代)의 화엄학과 선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불교학계의 일반론과는 달리 이미 남북조시대 영향을 끼쳤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그동안 성리학자이자 배불론자로 알려져 왔던 정몽주가 긍정적인 불교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던 논문도 내용을 보강해 실었다. 정몽주는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스님들과 불교에 관한 지식과 유학적 식견을 주고 받는 등 불교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의 시는 불교의 진리체험을 소재나 내용으로 담고 있음도 언급하고 있다.

김시습의 화엄·선사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균여가 의상화엄을 교학적으로 분석했다면, 김시습은 화엄정신에 입각해 의상화엄을 파악함과 동시에 화엄을 선과 일치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효스님은 자신의 저술인 〈기신론소〉와 〈금강경 삼매경론〉에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원효스님과 노자의 사상이 회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값 1만8천원.

한명우 기자

# 14살 소년의 시각으로 본 세계의 종교와 문화

테오의 여행




"혹시 고모도 불교 신자세요?" "응, 그래" 마르트 고모는 그제서야 테오에게 사실대로 고백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도가 늘어나는 추세야.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인도에 들어서면서 고모는 테오에게 불교의 역사와 종교적 의미를 설명한다. 테오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초전법륜은 무엇인지….

세계의 종교와 문화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테오의 여행〉(동문선 刊) 전5권이 완간돼 나왔다. 저자는 카트린 클레망.

이 책은 불치병에 걸린 14살 소년 테오가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고모와 세계의 성지를 여행하면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본질을 배운다는 줄거리다.

특히 3권에서는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의 대승불교권과 티벳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권에 대한 종교인식과 문화가 자세히 묘사돼 있다. 각 지역 원주민들과 민족정서까지도 잘 표현돼 있어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 권 6천원.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 북녘사찰 풍수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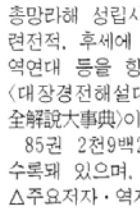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평양의 영명사가 대동강변에 세워졌던 이유는 실질적인 홍수대비책을 위해서였다. '절이 피폐해지면 중이 흩어질 것이요, 중이 흩어지면 평양의 북성(北城)이 허해지고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비문에서 드러났듯이 영명사가 평양 북쪽의 허결처(虛缺處)를 비보하기 위한 비보사찰임을 밝힌 내용이다.

풍수지리학자인 최창조 전 서울대교수가 펴낸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중앙M&B 刊)는 풍수학을 땅에 대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지리학이라고 강조한다. 진정한 우리의 자생풍수는 산소자리 잘 잡아 저 혼자 호의호식하자는 잡술 나부랭이가 아니란다.

구월산 월정사, 정방산 성불사, 개성의 만월대 등을 통해 자생풍수의 흔적을 찾으면서 북녘땅 풍수답사가 남과 북의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통일 풍수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값 8천원.

해외신간

### 부처님 노래




저널리스트 그레이 가취(美)는 1세기 동안 '마음챙김'을 노래한 아티스트 1백25명을 선별하고, 그들의 노래 3백여 곡을 소개한 책 〈부처님 노래:비트에서 힙합까지〉를 발간했다.

짐 콘, 위리암 카이스틀러, 요코 오노 등 우리에게 낯익은 아티스트들과 추억의 노래를 살필 수 있다. Parallax Pr. 刊. 〈pp 225, ISBN 0938077929〉

### 침대와 나무




불교와 심리학을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병마를 어루만져 주었던 스님·학자·작자들의 글을 모아논 책이 발간됐다. 저명한 심리학자 안토니 모리노박사(美)의 〈침대와 나무:불교와 심리학의 대화〉에 수록된 글에는 달라이라마, 스즈키스님, 에릭 포름, 리차드 마티노 등의 평생의 사유를 통해 빚어낸 철학을 담았다. North Point Pr. 刊. 〈pp 400, ISBN 0865475202〉

### 대장경전해설대사전

경·율·논·소(經律論疏)를 총망라해 성립시기와 내용, 관련전적, 후세에 미친 영향, 번역연대 등을 항목별로 해설한 〈대장경전해설대사전·大藏經全解說大事典〉이 나왔다.

85권 2천9백20부로 나누어 수록돼 있으며, 각 부(部)마다 △주요저자·역자 해설 △대장경과 일본 고전문학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와타나베 카이교쿠(渡 海旭), 고오노 켄묘오(小野玄妙) 編 웅산각출판(雄山閣出版) 刊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편자 | 출 판 사 |
|---|---|---|---|
| 1 | 불교입문 | 조계종편집부 | 조계종출판사 |
| 2 | 산에는 꽃이피네 | 법 정 | 동쪽나라 |
| 3 |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 김 용 옥 | 통 나 무 |
| 4 | 화두 짓는 법 | 토방 편집부 | 토 방 |
| 5 | 법수로 배우는 불교 | 이 제 열 | 여시아문 |
| 6 | 산승의 향기 | 이 학 종 | 운 주 사 |
| 7 | 불교신행의 주춧돌 | 우 룡 | 효 림 |
| 8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 윤 율 순 | 신 우 당 |
| 9 | 생활속의 기도법 | 일 타 | 효 림 |
| 10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백가지 | 성우·지현 | 민 족 사 |

구입문의:(02)737-0695

## 한국복식문화사전

3천5백여 어휘 해설

한국 전통복식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복식문화사전〉(미술문화 刊)이 나왔다.

상고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복식의 변천사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주요 어휘 3천5백개를 해설해 놓은 이 책은 각종 의복·관모·띠·버선·신·장신구·머리모양 등에서부터 관혼상제의 의례나 생활공예품, 복식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저자는 문화재 전문위원이자 동양복식연구원장인 김영숙씨. 한명우 기자

한국최초의 사군자기법의 체계화

四君子




특 징

■ 사군자기법을 기초부터 체계화하여 혼자서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 저자 자신의 체험 미학을 통한 생생한 실기와 이론을 겸전한 기초실기 집이다.
■ 진부하고 고루한 형식과 규제의 너울을 벗어 던지고 현대적인 문인화에 의한 사군자를 다루고 있다.
■ 단순한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작가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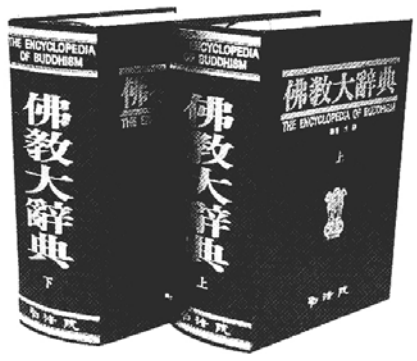
최고급 양장
정가 ₩120,000 (부록포함)
· 타블로이드판/쪽수 : 253쪽

■ 유강 유수종 작가 프로필
· 한국 문인화공모전(미술세계) 대상 수상
· 한국 현대문인화 연구회 회장
· 예술의 전당 서예관, 서울시립 도봉도서관 문화교실 강의중

유강화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59-10 세종 B/D 3층 303호
02)743-0305 (FAX 겸용)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佛教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팔리어·티벳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 "불·유·도 철학사상 기초로 정보화시대 가치 창출"

## 동국대-북경대 주최 '한 · 중 전통문화' 세미나



◇22~23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 · 중 국제학술세미나'

유 · 불 · 도 철학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사상은 첨단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사상인가, 아니다.

유 불 도 사상은 '정체적(整體的) 우주관'으로, 인간정신을 주체로 하는 사물 · 동물 · 기타 생물의 체계적 조화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전망한 한 · 중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중국 북경대(부총장 林鈞敬)가 공동주최해 22~23일 동국대 90주년 학술기념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보화 시대의 한 · 중 전통문화-유 · 불 · 도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 · 중 석학들은 불교 · 유교 · 도교의 전통사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문화가 정보화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고, 그 사회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정보화 시대의 한 · 중 전통문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송석구 총장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동양적 세계관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움직임은 동양의 비선형적(非先形的) 시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 인간에 대한 강조와 도덕 강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 · 중의 전통문화는 불교의 보편, 유교의 절제, 도교의 무한(無限) 사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신과 인간, 다른 동 · 식물과 무생물까지도 근원적으로는 인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조화로운 체계, 즉 정체적 우주관을 형성한다는 것.

'한국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정의와 불교윤리'에서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불교의 경제윤리로 제시했다.

권교수는 "경제활동은 단순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 문화적 배경과 함께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써 불교가 직접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불교적 윤리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 권교수가 불교 경제윤리로 제시한 '삼취정계'는 △섭율의계(攝律義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로, 법규를 어기지 않고 모든 행위가 선의 입장에 서며 중성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불 · 유 · 도교 유기적 결합은 정체적 우주관"
### 사원불교-거사불교 결합할때 생명력 배가

권교수는 "삼취정계에 바탕한 불교윤리적 시각은 한국자본주의의 경제를 한층 성숙시키며 경제정의 정착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근대 불교의 새로운 사조로 대두된 '인간불교'에 대해 발제에 나선 위상해 교수(魏常海 · 북경대 철학과)는 '인간불교의 정의(略議人間佛敎)'에서 "인간불교는 뚜렷한 입세(入世)의 색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인간생활 · 사회현실과 결부시켜 발전해온 중국 불교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교수는 '인간불교'의 특징에 대해 △인간본질에 대한 긍정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긍정 △중생의 이익과 사회개선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 △종파성의 초월 △승속(僧俗)의 결합이라고 밝혔다. 위교수는 "산림사원(山林寺院)의 범위를 넘어 사원불교와 거사불교가 서로 결합했을 때, 불교는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현대화(吳同瑞 · 북경대) △한국자본주의와 한국의 도교문화(김항배 · 동국대) 등 6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남 먼저 건지는 정토신행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상"

### 정토학회 제1회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는 25일 동국대 소강당에서 정토신행의 교리적 근거 마련과 새로운 불교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현대사회와 정토신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태혁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현대사회의 종교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보편적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며 "나보다 남을 먼저 건지겠다는 대승불교의 극치에 있는 정토교는 현대가 요구하는 종교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사회에 사는 불교도는 자타(自他)의 동시구제를 위해 멀고 먼 서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만일염불결사의 성립과 그 역할'에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만일염불결사는 우리나라 특유의 일수염불 형태이며, 현대에도 살아서 실천되는 정토신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광스님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종교운동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장 종교적이며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전개될 수 있는 신행형태의 하나로서 만일염불결사운동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염불결사운동의 역할에 대해 종교적 · 경제적 · 사회적 역할 등을 제시했다.

홍윤식 교수(동국대 역사교육)는 '정토예술'에서 정토교가 문화 · 예술분야에서 다양한 불교예술의 창출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정토경전의 내용과 아름다운 묘사법 △정신적 이상세계인 극락세계를 현실세계로 묘사 △구칭(口稱) · 관상(觀想) 등 염불 수행법의 음악적 · 미술적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대승불교가 표방하는 불국토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정토문화 · 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토사상의 현대적 의미'(강동균 · 등아대) 등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 "일제하 보성고보 운영권 포기는 교육불사의 중요성 망각한 일"

### 김광식씨 주장

일제하 불교계에서 운영한 대표적 고등보통학교인 보성고등보통학교의 경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계의 학교 경영의 문제점과 교육불사의 교훈을 도출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는 최근 발행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집에서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普成高普) 경영'을 통해 "대표적 불교 교육기관이었던 보성고보 경영권이 본산간의 마찰과 분권적 요소에 의해 고계학원(高啓學院)으로 인계된 것에서 불교계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준거를 살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성고보는 1924년 당시 천도교로부터 조계종 총무원으로 운영이 넘겨진 이후 운영되던 중, 불교전수학교가 중앙불전(中央佛專)으로 승격되면서 재정 분배지원을 둘러싼 교무원(1924년, 총무원과 교무원의 통합에 의해 교무원이 불교계 단일기관으로 전환됨)과 본산의 갈등으로 고계학원으로 경영권이 넘겨졌다.

김씨는 "보성고보의 고계학원 인계 계획이 알려진후 일부 본산들을 주축으로 반대운동이 추진됐으나 31본산 중 보성고보의 운영을 위한 지정액을 납부한 사찰은 2곳에 지나지 않는 등 비협조 분위기가 지배적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정과 다수 본산의 현실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보성고보의 운영권 포기는 교육불사에 대한 불교계 교정(敎政)의 일단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사례는 현 불교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 국제소식

### 수난겪는 방콕의 사찰

태국의 수도 방콕시내 사찰에 봉안된 불상과 불단이 수모를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추완 리크파이 수상을 비방하는 문구가 불단 뒷편에 적혀있어, 이 사찰의 불상과 불단을 치우도록 명령했다는 것.

방콕 시민들은 "사찰 불단에 리크파이 수상의 비방이 적혀 있는 것으로만 신흥종교를 추종하는 사찰로 선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상과 불단을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中, 방산석경 영구 보존

중국 정부는 수나라때부터 조성된 방산의 석경을 원래의 자리인 석경굴에 영구 보존키로 결정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나라 이후 사대왕조 천여년에 걸쳐 조성된 방산석경이 환경오염으로 훼손이 심각해 원래의 자리인 방산석경굴에 영구 보존키로 결정했다는 것.

지난 1956년 중국정부에 의해 발굴이 시작된 방산석경은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경판이 마모되는 등 피해가 심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스', 평화기원 거리법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타밀자유호랑이는 회담장에 나와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중심가를 가득 메운 황색가사의 스님 5백여명이 21일 '평화 기원' 거리법회를 봉행하고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평화기원' 법회와 캠페인은 최근 콜롬보 근교에서 잇달아 발생한 타밀자유호랑이의 테러를 규탄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리랑카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테러방지종교연맹'에서 마련했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달마링

## 우수불교사이트 검색 색인정리 美서 나온 한국스님들 책 정보도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인터넷, 이곳에서 우수한 불교 정보를 선별해 볼 수는 없을까. 빌 윌슨(43 · 미국)이 개설한 달마링 사이트를 방문, 포인터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달마링 사이트는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 사이트 중에서 불자 네티즌의 이용 빈도를 격월 · 격주간별로 분석해 우수한 불교 사이트를 색인 · 정리하고 있다.

달마링에서 제공하는 불교 사이트 수는 총 213개. 이중 '빌의 불교 페이지(Bill's Buddhist Page)'에는 불자 네티즌들이 격주간 283회, 격월간 576회 방문해 이용 빈도 가장 많고, '문(門)없는 문-선센타(The Gateless Gate Zen Center)'는 두 달 동안 5회 정도 방문을 받아 이용 빈도가 가장 낮다.

물론 달마링 사이트의 분석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불교 사이트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달마링은 불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나 개인의 요청을 받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포식(Infoseek)이나 야후(yahoo)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불교 사이트는 3만여개를 웃돌고 있다.

인터넷에는 각 사이트의 특성과 정보를 분석하고 네티즌의 이용 빈도를 조사하는 사이트가 몇 개 있다. 링(Ring) 사이트는 이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다. 달마링은 바로 링 사이트 업무에서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달마링이 제공하는 사이트 분석 자료는 충분한 신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달마링의 분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 곳에서 제공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면 된다.

달마링이 분석 자료에 실린 사이트 중에서 두 사이트가 눈에 띈다. 한국계 불교 사이트인 '시프러스 나무 선원'과 뉴질랜드 불교계에서 제공하는 '보딘야나라마 넷' 등이다.

'시프러스 나무 선원'은 달마링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한국불교계 사이트로 유일하다. 1972년 승산스님이 개원한 관음선원에서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승산스님 △관음선원 본원 및 지원 △선원의 스님과 법사 △화두 △법회 안내 등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의 나침반〉(승산스님) 〈부처의 한계를 넘자〉(대각스님) 〈입을 여는 순간 이미 실수한 것〉(우광스님) 등 미국 현지에서 출판된 한국계 스님들의 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뉴질랜드라는 작은 섬 나라에서 개설한 '보딘야나라마 넷'도 눈길을 잡는다. 1979년 아잔 슈메도스님이 뉴질랜드 전역을 돌며 포교한 이후 불교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따라서 이 곳의 불교계는 계율 사상이 투철한 남방계 수행을 따르고 있으며, 수행에 전심을 쏟는 승가와 이를 지원하는 재가들이 뉴질랜드 불교계를 지탱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교개관 △사찰소개 △아잔 슈메도 법어 모음 △뉴스레터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달마링 http://scribers.midwest.net/billw/dharmaring/
시프러스 나무 선원 http://gamet.acns.fsu.edu/~kap1877zen.html/cypress.html
보딘야나라마 http://yourname.co.nz/wwebz/bodhine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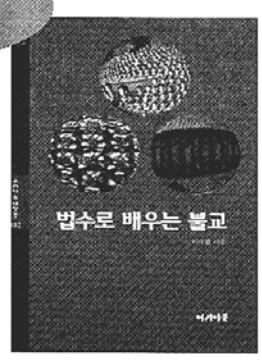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 · 입문편

#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 법수로 배우는 불교

▶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체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변(七辯),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횡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재(齋),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여시아문은 '붙은 마, 한 지의 어긋남도 없이 권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66(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한형조 무문관 열강 67

## 위산의 물병

* 위산화상은 처음 백장(百丈)의 문하에서 전좌(典座)를 맡고 있었다. 백장은 대위산(大潙山)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그를 수좌와 함께 대중에게 '말을 내리게' 했다. 격을 벗어나는 자가 그리로 갈 것이었다. 백장은 물병을 들고, 땅위에 놓으면서 물었다.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무어라고 부르겠느냐." 수좌가 말했다. "장작이라 불러서는 안되지요." 백장이 이번에는 위산에게 물었다. 위산은 물병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다. 백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수좌가 촌놈에게 졌다." 하여 위산을 개산조로 삼았다.

* 나 혜개가 말한다. 위산의 한 시대의 용맹이 백장의 울타리 하나 못 뛰어넘겠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무거움을 취해 가벼움을 버린 것이다. 어인 까닭이냐. 어허, 머리띠를 풀고, 칼을 목에 찼도다.

* 송하여 가로되, 조리와 바가지를 던져버리고, 힘차게 나아가 어수선한 논의를 잘라버렸다. 백장의 여러 관문도 그를 막지 못했으니, 발 끝에 차여 흩어지는 수많은 부처들.

倒淨甁:

山和尙, 始在百丈會中充典座. 百丈將選大 主人, 乃請同首座對衆下語, 出格者可住. 百丈遂拈淨甁, 置地上, 設問云, 不得喚作淨甁, 汝喚作甚麼. 首座乃云, 不可喚作木橛也. 百丈却問於山, 山乃倒淨甁而去. 百丈笑云, 第一座輸却山子也. 因命之爲開山. 鬱鬱地, 山一期之勇, 淨奈跳百丈圈不出. 檢點將來, 便重不便輕. 何故, 脫得鎚頭, 擔起鐵枷. 潙曰, 下轉轉木杓, 當陽一突絶周遮. 百丈重關關不住, 脚尖出佛如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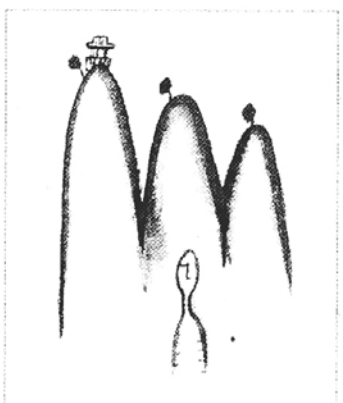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위산영우(潙山靈祐 771~853)는 백장(720~814))의 수제자이자, 앙산(仰山 814~890)과 향엄(香嚴 ?~898)의 스승이다. 그는 선문의 5대 문파 가운데 하나인 위앙종(潙仰宗)의 개창자이다. 오늘 화두는 그때의 인연을 적고 있다.

우선 일의 전후사정을 적어보기로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는 백장의 청규(淸規)를 기억할 것이다. 백장의 문하에는 그런 엄정한 규율과 조직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백장은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던 차, 풍수와 관상에 밝은 사마(司馬)라는 두타(頭陀) 하나가 이런 제안을 했다. "제가 이번에 호남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대위(大潙)라는 산의 지세가 천오백의 선지식을 품을 만합니다." 백장이 솔깃하여 "그래, 그럼 내가 갈까" 하자, 그 두타가 "아닙니다. 그 산은 육질(肉質)인데 선사께서는 골상(骨相)이라 많은 사람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백장은 아쉽게 입맛을 다셨다. (아마도 백장은 후덕한 부처님 상이 아니라 초기 붓다의 고행상처럼 깡마르고 가파른 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내 제자 가운데 하나를 보내야겠군."

사마두타는 제자들의 관상을 두루 감정한 다음, 영우를 추천했다. 백장도 내심 그럴 생각이었던 터라 기뻐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백장과 비슷한 연배의 수좌 화림(華林)이 이의를 제기했다. "본령을 따져야지, 아니 생긴 것 갖고 고른단 말이오." 일리 있는 말이라 백장은 두 사람의 법력을 대중 앞에서 겨루기로 했다. 이것이 이 화두의 배경이다.

줄거리는 별반 부연할 것이 없다. 몇 가지 까다로운 용어나 문장을 짚어보자. 1) '전좌(典座)'는 부엌일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2) '말을 내리다(下語)'는, 진리나 혹은 선의 비밀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나 동작 등 수단은 무엇이든 좋다. 3) '격(格)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틀에 매이지 않고 진리를 그 자체에 있어 구현한다는 뜻이다. 그럴 수 있게 된 인물을 출격장부(出格丈夫)라 한다. 4) "수좌가 촌놈에게 졌다"라고 할 때의 촌놈은 산자(山子)를 번역한 말이다. 여기서의 산(山)이 혹 위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의 이름은 다만 영우였을 뿐이다. 그가 백장의 인가를 받아 대위산의 주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위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산(山)을 일반명사로 보고 산골촌놈 정도로 해석한 것이다. 5) "가벼움을 버리고 무거움을 취했다"는, 조리와 국자를 던지고 한 문파를 열어 수많은 학인들을 이끌었다는 뜻이다. "머리띠를 풀고, 스스로 큰 칼을 목에 씌웠다"도 또한 흘로의 삼매를 버리고 그런 시대적 책무를 짊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다.

위산은 본래 인적이 끊긴 험준한 산이었다. 짐승들과 더불어 도토리 밤을 주으며 살았는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집을 얽고 절을 지어주었다. 지방장관의 청으로 황제가 동경사(同慶寺)란 이름을 내렸고, 정승 배휴(裵休)가 현묘한 진리를 물었다. 이로부터 천오백의 선객(禪客)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앙산과 향엄이라는 기라성이 끼어 있었고, 이윽고 위앙종이 있게 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수많은 부처 발끝에서 흩어지고 영우스님 위산의 주인 되었네

# "분별 멈추고 집중하자"

잭 콘필드가 쓰는

##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7



'집중'이란 다소 새롭고 젊은 통찰력으로 명확히 본다는 것을 뜻한다. 아상(我想)의 판단과 계획을 멈추고 명상을 통해 단지 이 곳을 본다는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세간에서 우리의 삶을 모습을 돌이키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삼파자나(sampajanna)', 즉 명확하고 바른 이해를 의미한다. 우리가 삼파자나를 실천하는 것은

정정 ②

현재에 집중하며 세간의 변화에 대해 외형 뿐만 아니라 어울림과 목적과 같은 내용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동 하나 하나에도 마음을 보고 그 동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를 방문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원 수행자를 찾아갔다. "늘 움직이고 숨쉬는 일상에서 조차 당신은 마음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체 그런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게 가능합니까" 수행자는 "미얀마와 인도 접경지역에서 두타행을 할 때 입니다. 발걸음에 온 정신을 쏟고 걸어가고 있는데 땡그랑! 땡그랑! 다급한 종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난 코끼리 무리가 출몰했다는 경종이었죠. 종소리와 거의 동시에 저는 그 길을 피해 다른 길로 향했죠. 순식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호흡 눈동자 등 감각기관과 마음이 변하면서 행동도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말이죠"라고 말했다. 세간에서 매 순간 집중한다는 것은 감각과 마음을 보며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순차적 변화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행동하나에서 동기 찾고**
**모든일 흘러가게 놓아두라**
**존재의 본성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집중'을 어렵게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 감정의 바로 이 순간 우리와 더불어 있으며 지루함이나 고독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전화를 걸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정처없이 걷는다든지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을 흐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평생동안 우리를 따라 다니는 습관도 집중을 방해한다. 공원의자에 앉아 과거를 생각하며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주·월·년간으로 계획을 짜고 빛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습관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집착이라는 멍에를 결코 떨칠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세간을 살아가는 대중들이다. 스님들과 같이 사찰에 살면서 천천히 말하고 오래도록 앉아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간의 삶에서 어떻게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끌어올 수 있을까?

왓뽕사원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아잔차스님에게 "장시간의 좌선 수행을 꼭 해야만 합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욱 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날 앉아있기로는 동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들이 더 잘한다. 지혜는 어떤 자세로든 쉬지 않고 마음을 챙기는 가운데서 얻어진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된 수행은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얼마나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지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일을 하든, 앉아 있든, 화장실을 가든, 오로지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마음챙김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깨달음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마음챙김을 '내가 만약…' 과 같은 바람, 기대 등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것들은 마음챙김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마음챙김은 바로 광경, 소리, 냄새, 맛, 인지(認知)와 같이 우리가 세간에서 체득하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일이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든 마치 숲속에 있는 맑은 연못처럼 점점 더 고요해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 존재의 본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6

불교와 수학 71 무분별지

김 용 운

지난호에서는 수학적 귀납법과 법장대사의 자연수에 대한 생각에 공통점이 있음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수학(넓게는 과학)의 지혜는 어디까지는 추리, 비교, 유추에 있다. 추리·비교·유추는 대상들 사이에 있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는 작업. 즉 분별의 세계에 있다. 한편 불교의 근본적인 지혜는 분별을 하지 않는 무분별(無分別)의 지혜이다. 여기에서 '무분별지를 근원으로 삼는 불교적 지(智)와 수학의 분별지에 왜 공통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나온다. 불교적인 무분별지는 단순히 분별을 초월한 지혜라고는 할 수 없다. 분별을 넘어선 그 부분이 곧 수도와 자비를 포함한 불교적 행위(보살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희랍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해보시오. 나는 그 말이 잘못임을 입증해 보이겠소. 또 다음에는 처음 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해보시오. 역시 그것도 부정해 보겠소.'

인간의 언어(분별의 세계)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주어진 화두에 분별지로 씨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깨우침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히 무분별의 지혜이다. 선을 통한 깨우침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추리·비교·유추의 단계에 있지 않다. 본래 화두 내용은 분별지로는 닿을 수 없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있다가는 때로 몽둥이가 날아오기도 한다(棒喝). 비수와도 같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전기(禪機)'를 잡은 경우도 있다. 삼매경(三昧境)의 상태(定)와 깨우침의 지혜도 구별되지 않으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큰스님과 대수학자 공통점**
**분별 초월한 순수직관**
**불교와 수학의 차이 '보살행'**

큰스님이 깨우침을 얻은 일에 관해서는 많은 신비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때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미숙한 사람이 엉뚱하게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다고 내세우는 것을 야호선(野狐禪)의 경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무념무상의 경지가 깨우침에 직접 이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연수에 관한 귀납법적 원리를 파악한 '십현연기무애법문의(十玄緣起無碍法門義)'와 같은 철리를 얻은 법장대사는 결코 무념무상만을 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분별지를 확고히 딛고서 그것을 넘어 큰 깨우침을 얻은 법장의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분별의 세계를 공(空)의 철학으로 철저하게 관찰한 뒤에 얻은 순수직관의 결과이다. 순수직관은 대상을 관통하는 철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하는 것. 곧 의지적인 사유에서 나온다. 공의 철학이 투철하였기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에 내재하는 연기의 이(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장은 공(空)철학의 기반에서 전우주의 끝까지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법장의 자연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理)를 파악하는 것은 낱낱의 수에는 자성(自性)이 없다는 공(空)의 관점에서 출발한 순수직관의 지혜이며 무분별지이다.

수학자의 대정리의 발견에도 큰스님의 무분별지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수학의 기초를 따지는 것은 수학적인 분별지라기 보다는 법장의 경우와도 같은 순수직관인 무분별지였다. 다만 불교적 무분별지가 수학의 경우와 다른 것은 보살행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자연수의 세계로 돌리자. 수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2'라는 것은 두 개의 사과와 두 마리의 새에 공통되는 성질인 개수를 갖는다. 즉 '양'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지금 누군가 'n'이라는 수를 말했다면 과연 그것은 n개 또는 n번째의 수를 말한 것일까. 옛부터 수학자들 사이에는 '개수의 수가 먼저 나왔는가, 아니면 순서의 수가 먼저 나왔는가?'의 논쟁이 있었다. 여기에는 개수와 순서의 개념이 연기로 얽혀 있으며 이들의 상반되는 의미가 동시에 인식되어 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 무분별지의 세계이다. 또 자연수 전체가 모여서 생기는 수는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는 분수까지 포함한 유리수체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수 전체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은 무분별지일 것이다. 이럴 때에는 기존의 틀(분별)을 넘어서는 무분별지가 작동한다. '침묵여뢰(沈默如雷:벼락소리와도 같은 침묵)-(유마경)'와도 같이 큰 깨우침을 얻은 무분별지혜는 대수학자의 분별지와도 같은 기반이 있을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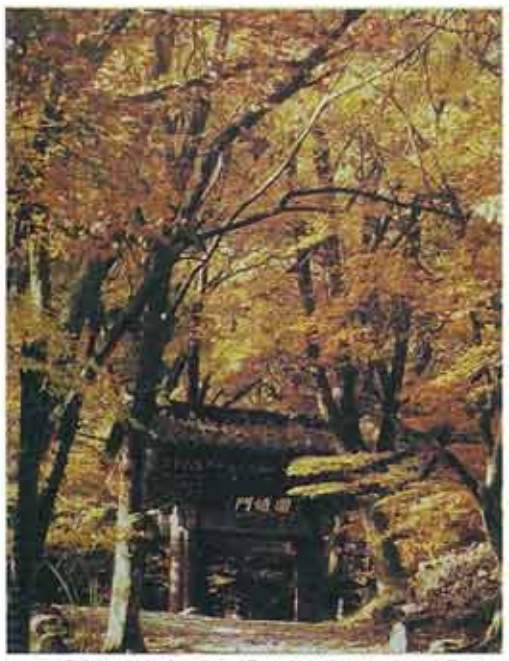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법(無碍法)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환경조건 풍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가을산사로 떠나는 기차여행



◇울창한 적송과 노란 가을빛 꽃잎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구룡사 원통문. 이 문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산사의 정취에 감싸이게 된다.



◇기차를 타고 떠나는 단풍여행. 정취와 함께 출발과 도착시각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 여행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곱게 물든 단풍과 고승 대덕들의 부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 더욱더 은은한 옛 향기가 풍겨나는 내장사 부도전.

**철도청, 단풍철 테마열차 운행**

## 세속의 삶 잠시 접고 단풍물든 산과 절로 본래면목 찾으러 가자

자, 떠나자 기차를 타고 가을 산사로.

곱게물든 단풍길을 따라 고즈넉한 산사에 이르면 경제불황이 주는 삶의 고통을 잊고 자신의 내면 깊이 움츠리고 있는 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차로 떠나는 여행은 출발과 도착시각이 정확해 여행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길위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달리는 기차속에서 가족끼리 마주앉아 그동안 미뤄놨던 얘기를 도란도란 정겹게 나눌 수 있기에 더욱 좋은 기차여행. 이런 추세에 발맞춰 철도청에서 단풍 관광열차, 백제 문화탐방열차, 해돋이 열차 등 사찰과 자연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철도청이 선보인 관광상품은 모두 다섯개. 또 관광 상품화된 열차가 아니더라도 행선지를 미리 정해 두고 알맞는 기차편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곳이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운행되는 지리산 단풍 열차다. 이 열차는 서울역에서 오전 7시50분에 출발해 구례구역에 낮 12시54분에 도착한다. 기차에서 내려 역 앞에 10분 간격으로 대기하고 있는 화엄사행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화엄사상의 으뜸 도량인 화엄사를 만나게 된다. 국보급 보물이 많은 이 사찰에서 눈여겨 봐야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등인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네 마리의 사자가 연화대를 받치고 있는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 신비한 전설과 함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각황전(국보 제67호) 등이다. 화엄사를 에워싼 숲이 가을 빛으로 물들면 절은 더욱 우아하면서도 고풍스런 분위기에 감싸인다.

단풍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 내리는 내장산 단풍열차도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운행된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20분에 출발한 기차는 오전11시50분 정읍역에 나그네를 내려 놓는다. 이때부터 오후6시 다시 서울행 열차가 정읍역에 당도하는 시각까지 내장사 단풍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백제때 영은조사가 창건했다는 내장사 단풍관광의 하일라이트는 일주문에서 출발해 벽련암과 원적암을 지나 내장사로 돌아오는 코스. 백제문화유산인 은선리 삼층석탑과 고려시대 석불 입상 등도 돌려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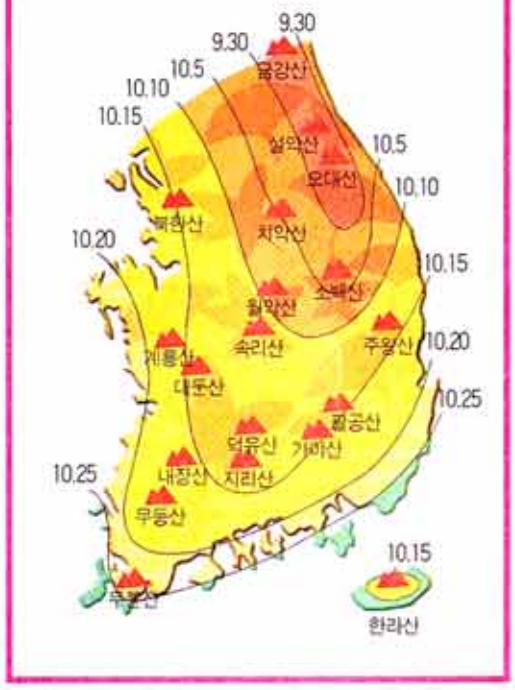
2박3일동안의 여정을 풀고 떠나는 설악산 단풍관광은 10월 초순부터 시작된다. 가을 단풍은 북에서 남으로, 산머리에서 산아래로 물들기 때문에 설악산은 남부지방의 산들에 비해 빨리 단풍이 물든다. 청량리역에서 밤9시50분에 떠난 기차는 다음날 새벽 4시57분 강릉역에 당도한다. 여기서 양양 낙산사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거리.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인 낙산사에 들어서면 시원스레 펼쳐진 동해바다와 함께 16m 높이의 해수관음상이 눈에 들어온다. 해안 절벽에 위치한 홍련암, 낙산사의 주불전인 원통보전과 삼층석탑(보물 제499호) 등이 소박한 답장에 물러싸인채 순례자를 맞는다.

계절에 관계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떠나는 문화 탐방 열차도 가을 불심을 살찌우기에 안성마춤. 서울역에서 오전 6시40분에 출발한 백제 문화탐방 열차는 오전9시32분 대천역에 멈춘다. 이때부터 향토사학자인 김인권(백제문화원 사무국장)씨의 안내로 농산리고분군을 비롯해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등을 답사하게 된다. 이어 백제양식을 계승한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과 극락전(보물 제356호) 등이 있는 무량사 앞에 서면 백제불교의 장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석조연꽃대좌와 3기의 3층석탑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9산선문중 가장 번창한 일문이었던 성주사지도 만날 수 있다. 또 매주 일요일 오전7시10분 서울역을 출발, 오전10시38분 동산역에서 하차한 뒤 버스로 이동해 마이산탑사와 금당사, 민속공예품전시장 등을 둘러 보고 돌아오는 전주지구 관광열차도 있다.

매주 수·금요일 두 번 운행하는 정동진 해돋이 열차도 사찰여행을 할 수 있다. 밤9시50분 청량리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5시30분 정동진역에 도착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등명낙가사 대웅전에 서면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 사찰에서 영산전 안에 있는 청자로 만든 5백나한상은 꼭 친견 해봐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역에서 수시로 떠나는 호남선을 타고 백양사역에 내려 버스를 이용하면 깎아지른 듯한 학바위를 배경으로 단아하게 앉아 있는 대웅전과 극락보전, 고승 대덕들의 부도들이 옛 향기를 은은히 풍겨주는 부도전 등으로 유명한 백양사를 찾아갈 수 있다. 내장사보다 이곳의 가을 풍광이 뛰어나다고 먼저 방문한 이들이 귀띔할 정도로 아름답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원주역에 내리면 20분 간격으로 치악산 구룡사행 버스가 떠난다. 역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구룡사 입구에 다다르면 아홉마리용과 거북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구룡교가 반긴다. 참간 설화를 음미하면서 경내로 들어서는 길은 맑은 계곡 물소리와 울긋불긋하게 채색된 일새들로 장관을 이룬다. 최근 새로 조성한 삼층석탑과 옛 건물인 대웅전이 신·구의 조화를 이루며 절마당을 경건한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단풍관광 열차시간표

| 출발역 | 출발시각(요일) | 사찰 · 관광지 |
|---|---|---|
| 서울역 | 07:10(매주 일요일)<br>07:35(월 ~ 토)<br>07:10(매주 일요일)<br>06:40(매주 일요일)<br>09:55(월 · 수 · 금)<br>23:30(토, 무박2일)<br>21:50(토, 무박2일)<br>21:55(토, 무박2일)<br>07:50(토 · 일)<br>08:20(토 · 일)<br>매시간마다<br>30분 간격 | 마이산 탑사, 금당사, 민속공예품전시장<br>마이산 탑사, 금당사, 민속공예품전시장<br>전주 송광사, 춘향묘, 광한루<br>무량사, 성주사지, 국립부여박물관<br>무량사, 석탄박물관, 대천비닷가<br>경주 불국사, 석굴암, 보문단지<br>여수 향일암, 순천 송광사<br>화엄사, 쌍계사, 지리산 노고단<br>화엄사, 지리산 단풍관광<br>내장사, 내장산 단풍관광<br>백양사<br>대구 동화사, 팔공산 갓바위 |
| 청량리 | 21:50(금 ~ 일, 2박3일)<br>21:40(토, 무박2일)<br>21:50(수 · 금, 무박2일)<br>매시간마다 | 삼악산, 낙산사, 산림사<br>대전사, 주왕산, 영덕 강구항<br>등명낙가사, 정동진 해돋이<br>치악산, 구룡사, 상원사 |



◇마곡사 대웅보전 천장. 1651년.

## 문양으로 널리 사용…청정함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6 연화문

연꽃은 더러운 진흙속에서 자람에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까닭에 '청정한 불성' '보리심'을 상징한다. 꽃 가운데서도 '군자'로 표현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는 연꽃은 문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이다. 사찰에서는 연화대, 광배, 닫집, 기와, 그리고 단청에 대부분 연화문이 쓰인다. 또한 법당의 천장도 연화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여기가 연화장세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왼쪽 그림은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801호)의 천장이다. 대들보에 의해 자연스레 3칸으로 나누어지고 칸칸으로 지른 우물반자속에 다시 무늬줄대를 돌린 소란을 꾸며서 그 안에 연화무늬를 가득 베풀었다. 오른쪽 그림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성모자' 그림에 나오는 성당의 천장이다. 반원형의 대리석 지붕을 우물 정(井)자로 나누고 그안에 연꽃무늬 조각을 나란히 배치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作 '성모자(부분)', 1472년, 브레라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도리품(道利品) ③**

有福爲天人 유복위천인
非法受惡形 비법수악형
聖人明獨見 성인명독견
常善承佛令 상선승불령

복이 있으면 하늘이나 사람 되고
법이 아니면 나쁜 몸 받는다
성인은 홀로 밝게 보아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든다

戒德後世業 계덕후세업
以作福追身 이작복추신
天人稱譽善 천인칭예선
心正無不安 심정무불안

계율의 공덕은 후생의 업
그것으로 지은 복덕 몸을 따르니
하늘과 사람이 착하다 기리고
마음이 바르니 불안한 것 없다

爲惡不念止 위악불념지
日搏不自悔 일박불자회
命逝如川流 명서여천류
是恐宜守戒 시공의수계

악을 행하면서 멈출 생각 않고
날로 욕정에 결박당해 뉘우치지 않으면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이에 부처님께서 가엾이 여겨
그를 위해 참된 이치 말씀하셨네
바른 법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若不從天人 약불종천인
希望求僥倖 희망구요행
亦不禱祠神 역불도사신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만약 하늘이나 사람을 좇아
요행 있기를 바라지 않고
또 사당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友賢擇善居 우현택선거
常先爲福德 상선위복덕
勅身從眞正 칙신종진정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어진이와 벗하고 좋은 곳 가려살며
항상 먼저 복덕을 짓고
몸을 경계하여 참된 도리 좇으면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去惡從就善 거악종취선
避酒知自節 피주지자절
不婬于女色 불음우여색

**"몸을 경계하여 참된 도리 좇고 법을 많이듣고 계율대로 행하라"**

저 흐르는 냇물처럼 명은 떠난다
이것이 두렵거든 마땅히 계율 지켜라

令我上體首 령아상체수
白生爲被盜 백생위피도
已有天使召 이유천사소
時正宜出家 시정의출가

이제 내 몸 상체 머리 위에
흰털 생겼으니 목숨 도둑맞았네
이미 하늘 사자의 부름 있으매
이 때라도 마땅히 출가하리라

**길상품(吉祥品) ①**

佛尊過諸天 불존과제천
如來常現義 여래상현의
有梵志道士 유범지도사
來問何吉祥 래문하길상

부처님 존귀하심 모든 하늘 벗어
여래는 언제나 이치 드러내시네
어떤 범지 도사가 와서
무엇이 길상입니까 물었다네

於是佛愍傷 어시불민상
爲說眞有要 위설진유요
已信樂正法 이신락정법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악을 버리고 선으로 좇아 나아가고
술을 피하여 절제할 줄 알며
여색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多聞如戒行 다문여계행
法律精進學 법률정진학
修己無所爭 수기무소쟁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법을 많이 듣고 계율대로 행하고
꾸준히 노력해 이를 배우고
몸을 닦아 다툴바 없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居孝事父母 거효사부모
治家養妻子 치가양처자
不爲空之行 불위공지행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집을 다스려 처자를 기르며
부질없는 짓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龍眼

## 큰스님 수행한담

# "해가저도 어둡지 않은

## 벽암스님 〈도봉사 주지〉



약력
- 1923년 서울 生
- 38년 서대문 백련사에서 차학 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묘향산 보현사에서 대교과정 배움
- 태고종 법규위원장, 고시원장 등 역임
- 現 서울 도봉사에 주석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내고 살면 진리의 자리 누릴 수 있어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 불교**

요새 금강산 유람을 가느니 마느니 분주합니다. 두고 온 고향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은 실향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 휴전선을 걸어 내 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합니다.

나도 살아 생전에 휴전선을 넘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묘향산입니다. 열 여섯살의 푸른 나이에 첫 발을 디뎠던 묘향산. 그 푸른 산빛과 맑은 냇물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 찬란한 나이에 보현사 큰 방에서 6년을 살다 온 사람이 어느새 일흔 여섯의 나이를 먹었으니 어찌 그립지 않겠습니까.

나는 14살에 서울의 한 절에서 출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절집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여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인생을 내다 보는 눈이 뜨였을리 만무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절에 살며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책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절에서는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때야 시절이 어둡고 당장 한끼 밥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으니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내게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 하는 절에서 일이나 하면서 한끼 밥에 청춘을 걸 수는 없다는 생각에 큰 절로 떠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간 곳이 서대문의 백련사였고 거기서 사집과정을 배웠습니다. 다시 바랑을 짊어지고 찾아간 곳이 멀고 먼 묘향산 보현사 도량이었습니다. 당시 보현사에서는 내전과 외전을 함께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곳에 가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과연 보현사에서는 사집과 대교과정도 가르치고 수학과 역사,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재미도 좋았고 한 겨울에는 윙윙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도반들과 밤늦도록 불경 내용을 토론하고 세상 공부 얘기를 하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묘향산의 맑은 계곡에 앉아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 오르는 한 귀절이 있었지요. '자정기의(自淨其意)'라는 단어 였습니다. 저토록 하염없이 흐르는 물줄기, 그 맑은 물빛을 보며 "물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맑은 것인가. 더러 흙탕이 져도 이내 맑은 제 모습으로 돌아 갈 줄 아는 저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맑아질 줄 아는 힘,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힘이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본래 저 물처럼 맑고 투명한 것일진데, '너'를 만나고 이일 저일에 부딪치며 혼탁해지고 화를 내고 싸움을 하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혼탁해 지는 것이 인간 삶의 과정이라면 빨리 그 탁한 모습을 내던지고 맑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혼탁한 마음자리를 빨리 정화해 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 맑은 자리를 오래오래 지키는 것이란 생각에 이르니 아, 내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하여 자정기의(自淨其意)면 시제불교(是諸佛敎)라."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일만 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업이 되는 이치도 결국 생각으로 마음을 흐트리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도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선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면 모두가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맑은 마음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이니 어디가서 따로 부처의 진리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줄기 흐르는 냇물도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 다만 눈밝고 마음 밝은 사람만 그 가르침을 새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묘향산 계곡에서 마음을 맑히고 사는 지혜를 생각한 뒤로 나는 될 수 있는대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과 다투고 시비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은 나라는 부처를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니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일도 조금씩 줄어 들더군요.

흔히들 계정혜(戒定慧) 3학을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라 말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혜학이 으뜸이라 봅니다. 진리의 자리에서 으뜸과 버금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굳이 따진다면 지혜가 없이는 계율도 지킬 수 없고 정진의 힘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맑고 맑아 하염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순간 혼탁해지더라도 얼른 다시 맑아질 수 있는 그 마음 자리에서 지혜가 솟아나고 그 솟구치는 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 계율도 잘 지키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열고 닫음이 명확해집니다. 정진의 문에 들어서도 태산같이 의연한 진리의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청정심이 곧 부처인 겁니다.

보현사에서의 공부는 불전의 한량없는 바닷물을 맛보는 계기이면서 몰려오는 서구 정신과 학문의 첫 물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출가한 사람이 보듬고 살아야 할 마음 보따리를 잘 꾸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6년 시절을 마치고 남으로 내려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 · 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추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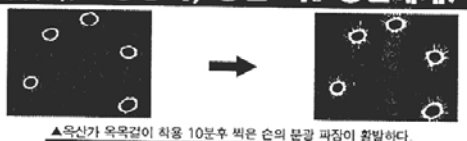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확발하다
원옥 사용전 1.5μV 원옥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 옥만을 찍찝어서 시아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소무뢰다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可)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 큰스님 수행한담

# 자리에서 만납시다"



◇70년대 후반 도봉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 후 기념 촬영. 앞줄 오른쪽부터 벽암 스님, 前 태고종 사정원장 오시권 스님, 前 태고종 총무원장 이남채스님, 최근 입적한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

**효도야말로 바른 삶의 이정표**
**나 내세우지 않고 하심하며**
**주변 사람의 마음 헤아려**
**계율 지키는 마음입니다**

## "오늘의 내가 어제의 너 였음을 알면 어찌 시비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와 허방을 맞았습니다.

스물 여섯의 어린 나이로 청와대 뒷편 자하문 고개에 아담한 절 하나를 지었습니다. 자명사라 이름한 절이었는데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아 절을 통채로 헐어내야 했습니다. 68년도에 일어난 김신조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자명사 앞 뒷길이 은통 공비들과 경찰이 접전을 벌이는 전투장이 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가 열리고 그 와중에 절 땅이 정부에 수용되어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런 연유로 절을 헐고 이듬해에 지은 절이 지금의 도봉사이니 이곳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의 도봉사는 서울에서도 먼 절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속의 절이 되었습니다.

나날이 넓어지는 서울땅은 나날이 분주해지는 세상살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집이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 나며 서울땅도 넓어 졌지만 늘어나지도 넓어지지도 않은 것은 인간의 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어나거나 넓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찌들리고 삭막해져 오그라드는 것이 양심이란 두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도덕심의 붕괴는 넓어지는 서울땅 만큼이나 인간 정신을 공허하게 합니다. 나는 도덕이 붕괴되면 인간도 붕괴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인간 도덕심의 가장 근본은 효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침, 수해로 얼룩진 여름도 가고 어느새 바람이 선들선들해지고 있습니다. 한가위 둥근달이 벽공에 떠오르는 중추가 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조용히 '효'의 도리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가정에서 불효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성공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효도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이란 말은 한치도 어김이 없는 말입니다. 집안에서 어버이를 잘 모시고 어른의 뜻을 그르치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일을 어른 모시듯 하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한치의 실수가 없으며 모든 일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니 이른바 출세라는 것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심을 할 줄 아는 것이며 그 하심의 자리에서 주위를 잘 정돈하여 실수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효도는 삶의 근본을 이루는 정신인 겁니다. 또 집안에서 어른의 심기를 잘 살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아량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됩니다. 역시 무슨 일이든 실수가 없어 분명하고 밝아 소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건강해 집니다.

효는 그저 윗사람 잘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정신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요 선정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며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은 나의 다른 이름인데 조상을 부정하게 생각해 절하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곧 나를 꺼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상과 후손은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나의 다른 이름일뿐 결코 둘이 아닌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회주의 소가 볏짚을 실컷 먹으면 익주의 말이 배가 터지도록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주땅의 소와 익주땅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한쪽에서 먹었는데 다른쪽에서 배가 부르겠습니까.

윤회하는 중생은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양이가 영원토록 고양이일 수 없고 지금의 소가 영원토록 소로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가 지금 먹은 볏짚이 어느 생에서인가 말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도리입니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너 였음을 알면 어찌 시비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생의 부모를 남매하듯 하는 것은 윤회 인연의 실타래를 마디마디 끊어 놓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어제의 나 혹은 내일의 나를 잘 보살피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도봉산 계곡에 가 보십시오. 나이들수 외롭고 서글픈 노인들이 많습니다. 계곡 바위등걸에 앉아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다 가는 노인들의 뒷모습에 걸리는 저녁노을. 참으로 허망한 것이 인생이어서 하루해가 저토록 길어지는 때를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망각하고 젊음만이 최고이고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제 갈길만 갑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외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법입니다. 노인이 늘 즐겁고 편안한 사회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충효(忠孝)를 가르치기 이전에 효충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효심이 지극한 사람은 충성심도 지극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마구 자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효라는 말보다 효충이란 말을 즐겨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효심으로 사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회는 온갖 범죄가 들끓게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도리의 근본을 못배운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 많은 법이 있지만 그건 인간을 얽어매는 것이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이끌어 주는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 갖는 한계입니다. 바른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법이 진짜 법입니다. 효도야말로 바른 삶의 이정표여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넓은 아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보다 더 크고 밝은 법은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도 아니고 하라는 법도 아닙니다. 그저 가장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가장 맑고 순수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넌지시 일깨워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는 곳이 바로 부처님 법이어서 벽공의 둥근달 같이 여여한 자리를 지키고만 있습니다. 인연있고 깨우침이 있는 자는 그 환한 빛에 의지해 제 갈길을 잘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채이고 비틀거리며 축생과 아수라의 세상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 깊은산 시냇물 같이 맑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도 효심도 다 이 마음 한 자락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마음을 맑히며 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마음 한량 없어 해가 떠도 그 늘지지 않고 해가 져도 어둡지 않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정리=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나의 수행일기



이 용 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 경주엑스포 불교문화 알리는 공간
## 불자들 꼭 들러 '새천년' 비전 보길

나는 철저하게 인연법을 믿는다. 내가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경주문화엑스포 홍보담당 이사로 활동하게 된것도 모두 전생에서부터 불교와 지중한 인연을 맺어왔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경주관광개발공사는 문자그대로 관광을 개발하는 곳이다. 경주에는 최초의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가 개발돼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경제성있는 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할 때다. 미개발지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지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관광개발공사의 몫이다.

관광사업은 관광개발을 아무리 많이 해 놓더라도 관광경기가 없으면 성과가 없다. 따라서 오는 11월10일까지 열리는 경주문화엑스포와 경주관광개발공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경주문화엑스포는 신라천년 불교의 중심지였던 경주지역의 문화와 유적, 즉 불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다. 따라서 내외관광객이 찾아와 불교문화를 널리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불교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어찌보면 불교문화엑스포라 할만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불자인 나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이번행사의 성공여부는 불교계의 관심과 홍보에 있다고 본다. 불교계 홍보를 위해 이미 주요 종단과 전국의 사찰에 경주문화엑스포를 홍보하는 안내장을 직접 보내는 등 교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에도 비중을 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심어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남태평양 등지로 직접 나가 홍보를 하고 돌아왔다.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지금까지는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면서 기대를 훨씬 넘는 성과를 내고 싶다.

현재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장 주변의 사찰과 유적지 등을 하나로 연계해 문화엑스포 현장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을 문화유적지로 직접 안내하는 2차 관광코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는 경주 감포 개발사업과 감은사 복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인이라면 이번 경주문화엑스포를 꼭 들러봐야 한다. 신라 1천년의 문화를 음미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천년의 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48개국의 문화도 접할 수 있어 우리 문화와 비교해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질적인 문명, 종교, 물질문명의 갈등과 대립, 분열과 전쟁으로 점철돼 왔다. 앞으로 이 세계는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한다. 그 문화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불교가 없는 우리 문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새 천년의 문화는 불교적 문화토대 위에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번 경주문화엑스포의 주제 '새 천년의 미소'와 부제인 '전승, 융화, 창조'는 세계의 문화와 조화를 이뤄 새 인류에 맞는 새 문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다짐과 각오를 담은 것이다.

21세기의 희망은 불교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불교가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스님과 불자들 개개인이 자신속에 잠재돼 있는 진실한 생명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삼아 더욱 수행 정진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사람의 불자로서 그 수행정진을 우리 불교문화역사를 일깨워주는 문화관광사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로 회향하기 위해 일심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 | |
|---|---|
| 부산지사 | 051-634-5114 |
| 광주지사 | 062-375-9986 |
| 대구지사 | 053-768-8008 |
| 목포지국 | 0631-281-2534 |
| 속초지사 | 0392-636-3923 |
| 북인천지국 | 032-541-8770 |
| 청주지사 | 0415-63-3873 |
| 강릉지사 | 0391-653-1518 |
| 인천지사 | 032-461-3461 |
| 춘천지사 | 0361-241-0633 |
| 대전지사 | 042-625-1080 |
| 안산지사 | 0345-411-4580 |
| 진주지사 | 0591-747-0106 |
| 마산·창원지사 | 0551-64-0735 |
| 공주지국 | 0416-55-0020 |
| 고성지국 | 0556-72-0078 |
| 예산지국 | 0458-33-5097 |
| 포항지국 | 0562-252-7749 |
| 고양지국 | 0344-912-2323 |
| 영주지국 | 0572-34-3429 |

氣가 통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 全身氣通의 오묘한 功法-천문을 통해 氣가 들어오면 병기, 사기, 탁기가 빠져나오며 명문혈에서는 옷자락이 펄럭일 정도로 찬기운이 빠져나오고…
- 누구나 좋은 집터, 명당을 얻는다 - 한 유명한 지관이 길을 가다 분묘에 서본다. 이자리에 분묘는 명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좌향이 15 틀어져 아무리 이 자리가 명당일지라도 그 자손이 비참하게 멸망하는데…「이 묘 쓰고 크게 번영했는데 사초하고 망했구먼」 집안청년 17명이 1년내 죽어 버렸고 재산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 암, 당뇨요법 - 이제껏 이 자료를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대학교수가 뇌종양환자의 치료를 한다고 나의 문헌을 요구해왔다.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었던 바 그 교수는 수개월후에 제약회사에 갖고가서 신약을 발표, 의학박사 학위를 획득,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자료는 개업의에서부터 여러 대학의 의사들이 노력도 하지않고 박사학위를 획득하는 제물이 되어 버리므로 공표를 굳게 거절해왔다.

●숯가루요법, 설사, 장염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氣功治療秘法 ●소주천 속성법의 비밀
●氣주입법(미국 일본 등에 알려진 氣주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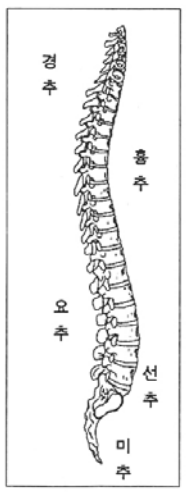



· 氣를 높여주는 육각성
· 피라미드와 목걸이
●전제품 순은 99%●



■책자 정가 ; ₩10,000 · 우체국: 014092-0035728-17(김건순)
氣功硏究會 ☎ 02)455-6944/453-5851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허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 · 법사 · 포교원은영자 · 물리치료사 ·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황토 토굴 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 문수보살 머무는 청량한 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7←



◇상원사 문수보살상(국보 제221호).

**오대산**

'98 사진영상회 展

오대산은 백두대간의 심장이다. 위로는 동해안을 끼고 진부령을 넘어 설악과 금강산으로 이어지고 아래로는 대관령, 두타, 태백, 소백 산맥의 장엄한 산경을 펼치고 있다. 〈산경표〉와 〈대동여지도〉등에 따르면 오대산은 남쪽 대관령, 북쪽 구룡령, 서쪽 계방산, 동으로는 동해를 품으며 1563m의 주봉 비로봉을 솟구쳐 올린 거대한 산역을 갖추고 있다. 동서 20km, 남북 33km, 660㎢의 광대한 면적이 모두 오대산의 품이다. 평창군과 양양, 홍천, 명주군을 가르며 강원도 지세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주처로서 '오대산 신앙'의 중심 도량을 이루고 있다.

계곡이 깊어 어머니의 품 같고 봉우리가 높아 아버지의 사랑 같은 산. 오대산에 가을 빛이 시나브로 악어가고 있다. 오대산의 풍광 속에 들면 금새라도 문수보살을 만날 것만 같다.

산 전체가 산이면서 다섯 대(臺)로 하나의 법당을 이룬 오대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대산 신앙'과 신라 고승 자장율사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하루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백년을 파계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며 출가했다는 자장율사는 선덕여왕 3년(636)에 당에 들어가 구법수도의 행장을 펼친다. 스님은 중국의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너희 나라의 동북쪽 명주땅에 오대산이 있고 거기에 일만명의 문수보살이 늘 머물고 있으니 만나보라"는 얘기를 듣는다. 환국한 자장스님이 명주땅을 찾으니 다섯봉우리가 우뚝한 산이 있고 중국의 오대산과 흡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되어 문수도량 오대산을 열었다.

### 전나무 숲길 유명

중국의 오대산이 청량산이라 불리는 것은 위치가 나라땅의 동북쪽에 있으며 기온이 청냉량쾌(淸冷凉快)하기 때문인데 고국의 산 역시 그 여건에 부합돼 있었던 것. 자장스님이 오대산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시고 적멸보궁을 창건함으로 돈수도량 오대산이 불교의 중심을 이루게 됐다.

이로써 주봉인 비로봉(1563m)과 호령봉(1560m), 상왕봉(1493m), 두로봉(1422m), 동대산(1433m)의 다섯 봉우리는 저마다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북대 미륵암, 서대 수정암,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을 중심으로 오대도량의 면모를 계승해 오고 있다. 다섯 봉우리의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사찰의 이름 주처보살의 명호는 문헌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나 중대 사자암이 문수도량의 상징이란 점과 보궁의 자리가 법신불로서의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라는 믿음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즉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보살이 주처하는 형상이 오대산 신앙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대산 신앙은 자장스님 이후 신라의 보천과 효명태자가 중대와 북대 밑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풀로 엮은 집을 짓고 불법을 닦아 일만 문수보살을 친견함으로 더욱 확고해 진다. 특히 효명태자(성덕왕)는 왕위에 즉위하고 4년째 되는해(725)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자리에 진여원(지금의 상원사)을 창건, 동종을 주조해 걸었다.

보천과 효명태자가 오대산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이들의 수행 그 자체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는 호국신앙의 발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 효명태자는 입종에 이르러서까지 나라를 위해 산중에서 행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산중에서 행할 일이란 '산의 사방에 관음, 미타, 지장, 나한 방(房)을 설치하고 밤낮으로 경전을 염송하라'는 것. 말하자면 오대산은 본존불과 사방불이 함께 주석하는 곳으로 나라의 평안은 물론 개인의 성불을 위해 수행하는 하나의 도량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상원사 적멸보궁 탑비.



◇상원사 적멸보궁에는 3독심을 끊고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불자들이 매일 수백명씩 찾는다.



◇월정사 전나무숲. 하늘을 찌를듯한 전나무 숲길을 거닐며 절을 향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문수보살을 만날것만 같다.

## 보천·효명태자 수행 '信行結社'

### 5개 봉우리마다 암자… '오대산 신앙' 싹터

### 보궁은 법신불 상징… 慈藏 개산정신 한암·탄허로

### 王이 본 문수보살

현존 최고(最古)의 동종 상원사동종(국보제36호)은 화려한 당초문과 그 사이사이의 불보살 조각, 공후와 생을 연주하며 하늘로 솟아 오를 듯 경쾌한 모양새를 한 비천상이 보는 이의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종의 보호를 위해 타종을 금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선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묘음을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청냉량쾌한 산자락을 휘감으며 고해중생의 마음을 달랬던 동종의 여운은 온 가슴을 적시는 듯하다.

상원사 청량선원에 모셔진 문수보살상(국보 제221호)도 문수보살을 친견한 국왕의 환희심 어린 발원으로 조성된 성보다. 월정사를 참배하고 상원사로 오르던 세조가 계곡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모의 종기가 씻은듯이 나았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문수보살의 가피력에 환희심을 얻은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보살을 그리게 하고 조각해 상원사에 봉안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팔각9층석탑(국보제48호)과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으로 이룹 난 월정사를 중심으로 다섯 암자가 이룬 오대산의 불교 신앙. 자장스님의 법력에서 면면히 이어져 근세 고승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으로 전해진 오대산의 선풍과 교학이 오늘날 다시 발흥되고 있다. 6·25전쟁때 소실된 월정사는 해를 거듭하며 옛 사격을 복원하는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불이문이 중건되고 성보박물관인 보장각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보장각에는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유물(보물 제793호, 세조의 저고리등 23점)과 팔각9층석탑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37과를 비롯한 유물등 월정사 본말사가 소장한 성보문화재들이 전시된다. 또 새싹 포교의 중심인 진부 유치원건립불사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경제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진부 유치원 건립

상원사는 3년전부터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대 사자암을 새단장하고 상원사 요사채와 청량선원의 선풍을 진작할 선원 신축도 진행하고 있다. 상원사 주지 정념스님은 "한암스님께서 목숨을 걸고 전화(戰火)로부터 지키신 상원사를 중창해 보궁과 오대에 상주하시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세상에 전하고 근세에 한암스님께서 일으키신 선풍을 잇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동종의 용뉴.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각이 일품이다.



◇오대산 다섯봉우리중 가장 높은 비로봉.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청설모 잣새와 함께 사는 강수자보살

##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부처님세상"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강수자(60) 화주보살은 요즘 아침마다 청설모로부터 잣 한송이씩을 선물 받는다.

잣나무를 오르내리며 겨울양식을 준비하는라 분주한 청설모 한 마리가 매일아침 강보살을 향해 잣 한송이씩을 굴려 주기 때문이다. 강보살은 잣을 받아 알맹이를 정성스레 모아둔다. 올 겨울 잣새에게 줄 양식이다.

3년째 사자암에 살고 있는 강보살은 겨울철 먹이가 없어 화주실 유리문을 두드리는 잣새에게 청설모가 준 잣 알맹이를 주어왔다. 또 마당까지 찾아 오는 청설모에게도 잡곡이나 잣알맹이를 준다. 그렇게 겨울을 난 청설모는 가을철에 강보살에게 하루 한 송이씩의 잣을 굴려 주는 것이다. 잣새는 중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 주는 것으로 잣값을 치른다.

강보살과 청설모, 그리고 잣새는 먹이를 나누고 서로에게 보은을 하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다.

강보살은 "한 알의 잣으로도 세상은 아름다와 질 수 있음을 실감한다"며 "모든 중생이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야말로 부처님 세상"이라 말했다.




**용성스님 어록**



우리의 본원각성은
본래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며,
자연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아닌 것도 아니니
일체의 형상을 여의고
일체 형상에 나아가서
살살이 사무친 것이다.

협찬 대성사(583-1475)·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바로 알지 못하면 실천도 바를 수 없어

**질서를 지키고**
**나쁜 일 안하고**
**자녀를 잘 기르며**
**모든일 좋게 하기위해**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 보고 듣고 말하는게 고정되지 않으니 '空'
## 생각이 모자라니 팔자운명 따지게 되죠

우리가 이 지구 안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불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 이요, 또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는 그 삶이 바로 '교' 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그 단어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그러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실행을 할 때 그게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런다면 그게 실천에 옮겨집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몸뚱이라는 그 한 개체나, 지구라는 그 공기주머니나 마찬가지인 것이, 만약에 지구라는 그 공기주머니가 버스라고 한다면 우린 그 버스 안에서 살고 있는 일체의 생명들입니다. 종교란 우리가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함이고, 또 나쁜 일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함이고, 또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함이고, 모든 일에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가 진리인 줄 알지 마세요. 종교라는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구 안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체 만물만생이 바로 생명과 의식 ·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뚱이 속에서 그 수없는 생명들이 억겁을 통해서 진화해서 형성되고, 또 형성돼서 진화됐다는 이 사실을 판단을 못하십니다. 물론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을 여여하게 살 수 있는가? 어디서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마음으로서 없다 · 있다를 떠나서 들이고 내는 그 마음은 또 어디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마음이란 자유스럽게 쓰라고 내 논 건데 과연 자유롭게 쓰고 있는가?

그 갈을 하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한 마디 하고 싶군요. 지 · 수 · 화 · 풍으로부터 미생물이 생겼습니다. 지 · 수 · 풍이 한데 합치면 거기서 온기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여러가지가 다 생기고 사람은 제일 나중에 형성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생물로 태어나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살면서 또 진화되고 이렇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형성되고 진화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하면서 인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서부터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아님도 없구요. 내 모습 아님도 없고, 내 한도량 아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각자가 어디서 그냥 떨어진 줄 알지 마세요. 동일하게 서로 서로에 응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걸 알고, 넓게 보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라고 하더라도 내 도량 아닌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 뿐만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그 움집이 다 우리의 한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 안에서 사는 것도 지구가 우리의 생명들의 집합소밖엔 안됩니다. 우리 몸뚱이도 생명들의 집합소밖엔 안되고요, 집이예요 그냥. 그 집 속에서 더욱 묘한 것은 말없이 모습과 의식과 생명들이 보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미 예전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왔노라' 고 말입니다. 지구 안에서도 사람이 한 발짝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만 벗어났다 하면 죽지요. 인간의 몸뚱이 속에서 생명들도 이 몸뚱이 밖을 한 발짝만 벗어났다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이 진실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싸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고 모든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쑥 빼놓고 '주여! 부처님이시여.' 하고 이름과 형상을 믿고 찾고 기도를 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이 지구 안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몸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많은 마음을 쓰면서도 쓴 사이가 없으며 또 마음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마음으로 썼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쓴 것이 마음으로 쓴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예를 들어서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으니까 모두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해서 그것도 부처님이라고 한 겁니다. 즉 부처님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것이 고정됩니까? 말하는 것이 고정됩니까? 만나는 것이 고정됩니까? 일하는 것이 고정됩니까?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저것 보면 이것 봐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천차만별로 그저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바람결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공했다고 합니다. 초월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초월해서 살면서도 항상 '내가 했다. 내가 봤다' 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돈을 벌었다. 망한 것은 상대방에서 망하게 했다.' 이러거든요, 모두. 왜 인간이 자기를 좀 더 보지 못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고정된 그 일만 했느냐? 집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저기 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할 때 어떤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몸뚱이 속에는 만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라는 뜻에서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진화됐느니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 '모든 생명들을 네 생명과 같이 아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그 몸뚱이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을 마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잡수신 겁니까?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누어 먹은 것입니까? 더불어 같이 나누어 먹은 것이죠.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모든 게 작용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니까 먹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작용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송장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름과 형상을 보고서 기도를 하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르면 그래요. 자기 자성이 즉 자기 주처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몸 속에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쭉거릴 수 있도록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쭉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철저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어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잠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주고 죽어주고 깨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말도 있지요.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아닌 길이거든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오셨지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6)

# 수도꼭지 잠구어 놓고 우물 물 길어다 먹으려나.

"만물 만생의 근본이 하나로 뭉쳐서 시공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이라 하니 내 한마음 주인공은 전체로 가설된 자가 발전소와 같아 무한량의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그 에너지야말로 내 몸이 아프면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며 지장보살이 되어 내 명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우물 물을 길어다 먹던 시절엔 집집마다 커다란 물독이 있었다. 거기에 항상 물을 가득히 채워두고 사용했다.

그러나 요즘엔 몇 병의 식수가 있을 뿐 물독은 사라지고 없다. 우리 모두 물 없는 집에서 산다. 하지만 아무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 꼭지만 돌리면 언제라도 물이 콸콸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물 쓰듯이' 아무 때나 원하는만큼 쓸 수 있기에 물 없는 집에서 살면서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자가발전기를 소유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스위치만 올리면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 전기 걱정일랑 기우일 뿐이다.

그럼에도 물 걱정 전기 걱정을 하며 산다면 그는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각자는 무한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발전소, 무한정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바다를 가슴 속에 품고 산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바다. 수천 수만의 등을 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발전소. 내 작은 가슴 속에 그런 게 있다.

무엇이든지 한 생각 내는 대로 켜려면 켜고 돌리려면 돌릴 수 있는 무한량의 에너지 보고가 내게 있다. 신분의 높낮이에도 관계없고 학식의 많고 적음에도 관계없고 성별에도 관계가 없고 잘나고 못나고와도 무관한 보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크게 쓰려면 크게 쓰고 작게 쓰려면 작게 쓰고, 선하게 쓰고자 하면 선하게 쓰고 악하게 쓰려하면 악하게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자동적인 보고가 있다.

그 에너지의 보고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 밥 짓고 빨래하고 허드렛일에 물을 마음껏 쓰듯이 각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의사로서 약사로서 혹은 관세음보살로서 지장보살로서 응하고 나투어 준다. 그러니 각자는 부자로 치면 억만장자요 권력자로 치면 자재천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얼마나 반갑고 든든한 소식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물 걱정 전기 걱정을 하며 살고 있다. 억만장자 자재천왕이 부럽지 않을 보고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으로 허구헌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한 생각 내는 대로 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능력은 제쳐놓고 스스로 가난하다 모자란다 힘이 없다 하면서 전전긍긍한다.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운명을 탓하고 우왕좌왕하며 산다.

믿음이 약한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무한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니까 일마다 '어찌해야 하나' 걱정부터 하게 되고 말끝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하며 주춤거리게 된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촛불을 켜고 사는 것과 같다. 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도 우물찾아 물 길러 다니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원력은 믿는만큼 나온다. 믿는둥 마는둥 하면 힘도 나오는둥 마는둥 한다. 목숨 떼어놓고 믿으면 힘은 무한량으로 솟구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많이 쓰려거든 크게 믿고 적게 쓰려거든 건성 믿어도 된다. 걱정없이 살려거든 생각나기 이전 마음의 중심에 일체를 놓고 가라. 그런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린다.

"마음근본의 자가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라 할 수 있다. 아니, 태양보다 더한 빛으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무한으로 쓸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 이는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다."

협찬 : 최광업 최우영 최우성 최우진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우리 몸도 수많은 생명체 사는 중생국토

☞ 15면에서 계속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이, 짊어지고 오시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왔는데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모두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苦)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서 팔자·운명이라든가 고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참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내 안에 모두 갖추어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육조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우리한테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사람이 그냥 먹고만 살면 제일인 줄 알지 마세요. 그렇다고 누가 굶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만

**한발짝 떼면 한발짝 없어지듯**
**'나' 세울게 없고 내몸 없기에**
**함이 없이 하는 것이고**
**어떤 여건도 苦가 될수 없지요**

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삼라간상의 차원 이런 모든 것을 한번 결부시켜서 차곡차곡 생각해 보신다면 지혜로와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신(神)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처, 자기 주처가 있기 때문에, 얕은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는 것이지, 그 싹이 딴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애를 써도 에너지가 딴데로 안가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허허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본체만체하고 자기네 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뒤집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겠고, 별의별 신의 이름을 다 불러대고 야단법석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마음을 선장한테다 맡겨놓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군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저 외식에서 나오는 유전성이나 영계성·업보성·인과성·세균성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더라도 내 근본주처에다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 그것이 관하는 대로 대뇌로 통신이 돼서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이치란, 통신처라는 것은 빛보다도 더 빠르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다. 그럼 정수는 뭘 뜻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것만도 아니예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 이라고만 생각을 안한다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써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마저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는 구나, 초월해서 돌아가는 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참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플 때도 오직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이 가난한 것을 좀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어.'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자기 주인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배타고 바다 건널때**
**우왕 좌왕하지 않고**
**선장을 믿어야**
**무사히 목적지 도착**

**뿌리서 에너지 얻듯**
**내뿌리 근본주처**
**믿고 의지해야**
**싹 푸르게 살수있어**

한다면 될 수 있다' 라는 얘길 했지요. 그랬더니 어느날은 아주 즐겁게 웃으며 오셨어요. 얘기인 즉 어느날 김치 항아리를 닦으며 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썩이던 아들이 어디서 툭 뛰어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왜 불쌍한 어머니 앞에서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되었죠.

이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이 이게 영혼도 건질 수 있고, 천도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이 홍가집이라도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말입니다. 영은 영대로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많이 꺼내 써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교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낳아서 기르는 애들은 태교를 안해서 늦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예요. 이 마음으로는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

# 누가 대신 살아 줄거라고 바깥 대상 믿나
# 묘법 써보지도 못하고 쫓기며 살아서야…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팽개치고 그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뚱이는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번연히 알면서도 왜 진실된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합니까? 싹은 자기 뿌리를 의지해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진짜로 '주인공을 네가 믿고 정말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관하세요. 그저 이름만 '주인공! 주인공!' 부르지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어요. 이 세상에 누가 대신 살아준다고 바깥을 긷습니까? 이 자기 자성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인데 말이예요.

어떤 신도님 얘기 들어보면 '스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있으니 들었고 행했고 잘 사는 거지 누가 해준 건 절대 아니예요. 어떠한 게 와도 어떠한 용도가 닥쳐도 껄껄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죠. 사람이 죽은 영혼 말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산 사람이나 죽은 영혼이나 둘이 아니예요.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영이란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을 수 만개를 여기다 집어 넣어도 영이지, 두드러지지 않아요.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묘한 법을 여러분은 써보지도 못하고 항상 쫓겨다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바쁜 게 자녀들 키우고 가족이 화합해서 사는 문제죠. 요즘 이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겉으로만 듣고서 버린다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자식이, 이틀 사흘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욕을 하고 때리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거니까 마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때리고 말로 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이 마음의 주인공은, 자식이라는 것과 부모라는 것이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 전기 가설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관하면 거기까지도 붙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마음의 그 깊은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모두 결부됐다는 것,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 어머니가 자꾸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들어오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어. 저 아들이 저러지 않게 해.' 하고 자꾸 관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식만 그런 게 아니예요. 자식이나 부부지간이나 마음으로 벌어진 일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고 이렇게 요. 어떤 사람이 어린애를 낳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뚱그렇게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잘 딛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할 텐데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얘를 수술을 한다 해도 어차피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한 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구선 열심히 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몇 달이 갔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아주 곧게 쫙 뻗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 한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딨습니까? 정신계의 자기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육체는 물질계의 자기예요. 정신계의 자기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자기라고 해서 믿지 않는데서야 어떻게 자기 싹이 푸르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말씀하셨죠,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푸르르게 살 수도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딴 이름이나 형상을 믿는다면 그건 도깨비 장난과 같고 마구니 장난과 같으니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의 장난과 같으니라.' 고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자 너희들부터 먼저 알라. 너희들 나무는 너희들 뿌리를 먼저 알라. 나의 고기덩어리를 믿지 말라. 너희들 뿌리를 먼저 안다면 내 뿌리도 저절로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옳아요.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예요. 내려오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틀려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은 그 '나'가 각자 나인데 '각자' 소리를 안했으니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 하나로만 본다 이거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거나 타인을 믿는다면 그건 도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즉 귀신 일이나 같으니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신은 알고 계셨는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각자'라고 얘길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넘어가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연방 다시 돌아가면서 이걸 가르쳐야 할 문제들을 정신계의 근본을 가르키지 못하는 거죠. 정신계는 쑥 빼놨으니까. 왜? 예수님이 같을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자기의 마음부터 알고 진짜로 믿어서, 자기 주처를 믿어서 알면 부처님의 주처도 둘 아니게 알텐데 이건 거죽의 모습을 보고 믿었으니 그것이 될 법한 일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넓지 못해서 그런 분을 누가 되게 하고 이러죠.

나도 예전에 가톨릭교를 좀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만뒀느냐 하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안 그만 둔 것도 아니지만 말이예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야하는데 나는 내가 잘못 하고 신부님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위안은 받을지언정 내가 벌여는 거를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냔 얘깁니다. 문제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몰른 고달프게 살아가더라도 한 번 그렇게 즐겁게 생각을 잘 하면 너무나 즐겁게 풀립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욕을 하고 때린다면 자식이 그대로 되고, 그렇지 않고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좀 마음을 너그럽게 써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물같이 살지, 또 산 같이 살지, 한 철 살다가 모습이 없어질텐데 뭘 그다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까? 하고 슬그머니 좀 놓고 살면 지혜가 좀 더 생기고 행복해질텐데 그걸 놓지 못하고 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데도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니깐 그게 바로 팔자·운명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엇갈려서 되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어떠한 미운 사람도 내가 전자에 저렇게 미웠던 그 시절이 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런 말하기까지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둘 아니게 살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저 돌 아닌 도리를 알려드렸으면 편리하게 자유권을 얻으실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생 동안 살다가 차원이 낮으면 또 짐승으로도 될 수 있고, 차원이 높으면 사람으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차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살다보면 한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고(苦)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죠. 은비까비처럼 모습을 나투어가면 구제할 수도 있구요. 거기서 차원이 더 높아지면 정말이지 선신으로서 어딜 가든지 손색이 없고 앞에서 이끌어 가는 대장부가 될 겁니다.

"너와 나와 이미 죽이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
너와 나와 함께 죽으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
자타가 둘 아니게 더불어 나투니 이름 없는 이름이여.
안과 밖이 없이 텅 비어 고요하니 둘 아닌 둘의 이름 없는 이름이요.
이름조차 없는 그 이름이여!"

여러분도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도 자기 자유대로 태어나시게 되고, 또 태어나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이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자유권을 얻으셔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협찬 주인공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화音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0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물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 건강 •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 강좌 •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상 훈련(N)
소그룹 기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키우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 영축아봐타센터
0523)381-1143/011-882-1149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Avatar.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氣明 綾岬↔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합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108-51471-277 KAA⟷

###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동양역학, 점술, 불교학, 일본어
◆ 자 격 : 연령 · 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점술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개인 수강자는 별도지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1
(목화오피스텔 605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출구)
T. 3412-4582
대길승가대학 교무처

### 꼭 알아야 할 秘要 특강

1. 모든 문제의 成敗 · 可否 판단법
1. 운명 문제의 간단명료한 판단법
1. 현실 문제 적중법 및 각종 방편법
1. 이사, 결혼, 풍수, 건축 등 각종 택일법
1. 정신통일 건강 및 초능력 개발법

02)597-6211
(45일완성 · 통신가능)
正山堂 金 庚 泉 직강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쪽 병풍> 시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 구인구직 •



### 아내를 찾습니다.

배부순 (45세)

■ 98년 6월 18일 집을 나감.
■ 강원도 어느 사찰에 있다는 소식있음.
모든 것 다 이해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오기 바란다. 지금 내 몸도 성기가 있고 성정을 쓰니까 몸에 마비증세도 심해지고 있다.
※혹시 아내의 거처를 아시는 스님, 불자분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019-250-7244
0348-944-2733

## • 불교용품 •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 수련원 •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 공고 •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미타종 귀 하

◆사찰명 : 칠곡사
◆주 지 : 김 순 자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 9.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태고종 귀 하

◆사찰명 : 옥수사
◆주 지 : 이 옥 남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922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 9

## • 기타 •

### 제 적 공 고

정 대 성 ( 강 옥 ) 귀 하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송개마을 395번지

대원사 상주승 정대성(강옥)

위 분은 1997년 11월 10일자로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미타종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 • 사찰안내 •

### 사찰 및 임야 안내
(대사찰지가능 총 만5천평)

1. 사찰 석굴암 50m 길이 석존 7자 불상, 요사채 1~2층 힐 34평, 법당 15평, 3층 현대식 아미타불 4자 죄불상관세음 불상 15척 ◆호가 2억 5천만원
2. 제2석굴암지 정지작업 완료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된 법당 사찰 제반 설치가능
* 천평-2천평 양도가 @15만원(위물건 대전, 청주, 수원, 대구, 서울등지 건물 물물교환도 가능)
3. 사찰하부지 강변 진입도로간
◆부지 2천평 @20만원 밭(전) 2,700평 (전원주택지 가능)
등도 실버타운, 모델하우, 산장식당 강변도로적지
(1/3%DC함 중계인불교 직접상담)

문의전화:0441)848-1766 최 /851-3866

###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 규 모 : 2층 건물 40평.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지장탱화,칠성탱화
◆ 요사채 방5개
◆ 가 격 : 전세 3천에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
(공양주보살 구함)
051)208-9966

###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 신림본동
신림4거리 보도10분거리
대로도변 2층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칠성탱화,각종만다라화 여러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시설및 일체물품(1천 2백만원)
02)888-1642
011)686-9925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 사찰 안내

◆ 위 치 : 밀양시 산내면
◆ 대 지 : 300평
◆ 건 평 : 30평.
임법당,요사채,현대식건물,
부처님 모셔져 있음.
※밀양시내에서 15분
도로도변 인접 200m
0527)352-0239

### 사찰 안내

◆ 위 치 : 전북군산시 월명공원내
◆ 전 세 : 최저 가격절충
◆ 요사채 : 30평, 대웅전 18평
※급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 하고져 합니다.
0654)461-4152
011)579-9865

### 사찰 안내

◆ 위 치 : 미야 3거리
◆ 건 평 : 50평,
5층건물의 2층
◆ 전 세 : 7천만원,
시설비 · 권리금 안받음.
※ 4호선 전철역에서 가까움.
교통편리
02)941-3195

###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신림동
(신림 4거리 도보 10분거리)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보살 및 명부시왕 10분, 지장탱화, 각종 최고급 만다라화 여러점.
◇가격 : 보증금 1천 5백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일체 집기물품 포함-가격 6천만원▶급히양도함.
02)888-1642

###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사찰(급)안내

◆위치 : 삼천포 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약 1,700평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20평
◆주지실 : 12평
◆버스진입도 됨 주차장 약 200평
◆가격 : 2억
◆특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울창한 송림속에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빼어난 경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편리한 교통과 사계절 일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하고 있는 청정한 기도도량
017)557-9448(주지직접)

###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산포 목조 문화재급(시설은 A급)
◇요사채: 지상 20평(목조),지하: 50평,
산신각: 5평(돌벽),채공실: 17평,(조립식)
◇양도가액 : 15억
◇특징 : 산세 수려하고 물좋고 남공당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시내 버스(124) 종점 5분거리,
주차장 완비(50대)
※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요망.
02)899-4281

### 사 찰 안 내

◆위치 : 중랑구 상봉2동
(상봉터미널 부근)
◆평수 : 50평
◆방3개,주방1,욕실1개,기름보일러,에어콘 완비
◆삼존불,부처님개금,백팔불 불사되어 있음.
◆가격 : 보증금 5천만원(월세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입주시 바로 법회 볼수 있음.
주지스님 공석 관계로 사정상 내놓음.
011)775-7656/02)496-7656

###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서울에서 열차 2시간거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전면주택과 후면임야 대발)
◆대지 : 774-1번지 등기분 95평내에 기존건물 약50평,775번지 등기 90평
◆구조 : 법당1, 삼존불, 탱화4점, 방 3, 거실 및 조리장1, 샤워 및 보일러실 1, 마루 현관 있음. 옛날 기와집터 현재 밭으로 사용
◆특별할인가 : 총 3600만원
0451-641-7569/011)401-8259

###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대지 : 260평
◆ 건물 : 약 80평
◆ 매가 : 1억 3천만원
0333)691-2351

### 사찰 안내

◆ 위 치 : 경기
◆ 법 당 : 10평, 요사채 : 26평
◆ 가 액 : 1억 3천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안내

◆ 위 치 : 공주근교
◆ 부 지 : 500평,
요사채 33평,법당 16평
◆ 가 액 : 1억 3천(절충가능)
※ 산세 수려하고 고찰로 기도 영험도량
차량진입가능 주차장완비
마을에서 1Km 떨어진 산중턱으로
자연 석수 풍부함
(스님사정으로 급히 양도)
02)723-4082
광진불사

### 사찰 안내

◆ 위 치 : 예산근교
◆ 부 지 : 570평,
요사채 43평,법당 48평 2동
◆ 가 액 : 1억 5천(절충가능)
※ 청룡,백토가 확실한 고찰 동향으로 차량 진입 가능하고 주차장 완비
산중턱으로 자연 석수 풍부
일체 시설완비함.(사정상 급히 양도)
02)723-4082
광진불사

### 사찰 안내

◆ 위 치 : 고흥근교
◆ 부 지 : 3200평,
요사채 50평,법당 32평
◆ 가 액 : 3억 5천(절충가능)
※ 산세 수려하고 자연 석간수 풍부함
남향으로 버스진입가능,주차장 완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고찰로 영험도량,
스님의 개인 사정으로 급히 양도원함.
02)723-4082
광진불사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지정면
돈지마을 **고당암**
◆ **2층건물(신축건물)**
◆ 가격 : 상담후 절충
0555)72-1117

### 포교당 안내

◆위치 : 광명시
(시장코너, 위치좋음)
◆건물 : 4층 건물에 3층
◆평수 : 35평
◆전세 : 5천만원
10년간 포교해오던 자리로 여건좋음
011)753-0768

### 사찰 안내

◆ 위 치 : 삼척시
(사찰안까지 도로포장 잘되어있음)
◆ 평 수 : 540평
◆ 건 물 : 대웅전, 종각, 산신각, 요사채3동
◆ 가 액 : 2억
011)753-0768

### 사 찰 안 내

◇위치 : 진주시내 산옆
◇법당 약 45평, 방 4칸,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름보일러 금년도 신축
◇대지 : 300평(가격은 상담후절충)
0591)746-7350
017)552-7350
김 강 철

###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노원구상계동
◇ 평수 :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주차가능)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 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011-561-9005

### 寺, 꼭 필요하신 분

◆ 사찰, 수련원, 연수원, 휴향림 최적지
◆ 정읍시 감곡면 천애산 휴게소 뒤
◆ 임야 : 18,183평(산림도로 있음)
◆ 평당 10,000원
(절충가능, 현금+물건 교환)
0561)775-0545
011-561-9005

### 포교원 안내

◆위치 :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8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 총 3천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7)282-1998
02)482-4550

### 포교원 안내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500만원(조절가능)
02)461-6091
011)493-8936

###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토목완료)
◇면적 : 총 5,900㎡ (1,785평) - 준농림지역
(이중 400평은 건축 허가 완료 및 전용 부담금, 세금 납부 완료)
◇환경 : 전망 최고, 현지에 작은 계곡있고 3~5부 능선
(전원주택 및 별장도 적합)
◇교통 : 대전↔청주 국도(4차선)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2분 거리
청주에서 10분, 대전 광역시에서 25분청원 논게이트에서 5분
◇도로 : 4차선에서부터 4~5M (대형차 진입 가능)
◇매매가 : 1,785평 × 11만(주변 시세보다 50% 저렴)
011)484-4555/012)453-4555/자택 0431)257-3573

# 불자 세상보기

## 남은 음식 이웃에 전화 1377

### 먹거리 나누기운동 확산…정부 적극 지원

### 조계종 냉동차 3대 확보 푸드뱅크 복지사업

예전부터 우리네 인심은 '밥'을 나눠 먹는 것에서 잘 나타났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나그네나 집을 찾아 온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 밥을 나눠달라며 찾아 온 사람에게 찬밥이지만 그릇 가득 담아주곤 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IMF사태로 우리 이웃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밥을 굶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음식물 나눠먹기 운동이 확산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과 성공회가 주축이 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전국푸드뱅크연합 등의 종교·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시설이 관공서나 기업체의 구내식당, 그리고 제과점과 결혼예식장 식당들과 연대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거둬 무료급식소, 경로당, 고아원 등에 보내주고 있는 것.

정부도 먹거리나누기 운동의 확산에 따라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남은 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에 쉽게 전달하기 위해 17일부터 '푸드뱅크(잉여식품 나눔은행) 특수전화 1377번'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가동했다.

푸드뱅크가 설치된 지역에서 식품을 기탁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는 국번없이 1377번을 누르면 된다. 식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업체는 푸드뱅크가 끊어주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세의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IMF사태 이후인 지난 1월부터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돼 사회단체의 협조로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4천6백30건, 8억여원어치의 식품이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나눠졌다.

조계종은 모두 3대의 냉동차량을 보유, 푸드뱅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8월 1대의 냉방차량을 구입,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기부자들의 쌀·부식·음식 등을 가공해 서계동·수송동 보현의집,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등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방에서는 통도사 부산포교원과 대구 불교사회복지회가 냉동차량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거나 불자들의 기부 음식을 실어나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사태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데도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이 8조원어치나 된다"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돌보며 이웃을 돕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이 사업을 국민적인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은 '푸드 뱅크'용 냉동차량으로 매일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서계동·수송동 보현의집에 음식을 배달한다.

### 불교의 눈 "음식 보시는 사랑의 양식"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증일아함경〉 부처님은 중생들이 자비심을 발해 골고루 복덕을 받고 삼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집마다 차례로 일정량의 음식만을 공양받았다.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자는 아귀계(餓鬼界)의 문을 여는 것이 된다"는 〈보살본행경〉의 가르침도 있다. 〈잡아함경〉은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자기를 따르는 양식이 된다"고 하고,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는다"고 설하기도 했다. 한편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삼백 가마솥의 밥을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소젖을 짜는 잠간 동안이나마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 익혔다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는 〈잡아함경〉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불자들 역시 "풍미한 음식을 보면 마음을 경계하고, 무미한 음식을 보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화엄경〉

## 청소년 '귀신점' 유행

### 학교행사 변경요구·이지메 등 놀이수준 넘어 후유증 심각

"O일에 학교 행사를 하면 학생들이 여럿 죽는다" "OO는 귀신이 붙은 아이다". 최근 초·중·고등학생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점괘 보기"가 놀이 수준을 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 놀이는 2명의 아이가 빨간 볼펜을 마주 잡고 '분신사바'라는 주문을 의워 점괘를 얻는다는 놀이의 일종. 그러나 어린이들이 점괘라고 주장하며 학교 행사일 변경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특정 학생을 골라 따돌리는 '이지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귀신 점'을 보는 순간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들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같은 '귀신 점' 열풍의 진원지는 올여름 귀신을 다룬 하이틴 영화로 히트한 '여고괴담(女高怪談)'. 학교마다 학생들 두서넛만 모이면 영화의 한 장면인 귀신을 불러내는 '분신사바' 의식을 흉내내는 진풍경이 펼쳐질 정도로 '귀신 신드롬'을 낳았다.

이에대해 심리학자들은 "점괘 놀이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며 "어른들이 궁합과 풍수 등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귀신 점'의 후유증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사오정 유머

### 대화단절·뒤틀린 세태등 풍자 IMF 스트레스 해소엔 긍정적

사오정과 삼장법사가 대나무 숲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오정의 PCS에서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사오정이 하는 말 "스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불쾌해진 스님은 사오정의 PCS를 직접 빼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사오정이 갑자기 PCS에다 대고 "본부 탈출한다"라고 말하고, 스님을 업고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중국의 불교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이 장안의 화제다. KBS의 〈날아라 슈퍼보드〉에 나온 사오정을 주인공으로 한 이른바 '사오정 시리즈'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생산·유통되고 있다. 가는 귀가 먹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멋대로 말하는 사오정. '뒤틀린 세태의 반영'이란 시각도 있지만, 사오정은 요즘 IMF 한파로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사오정의 동문서답,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적 해석은 대화 부재의 현대사회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로는 듣고도 못들은 척, 때로는 자기중심적 '일방통행' 신호를 아무렇지 않게 내보낸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IMF사태를 타개할 전망 부재 등이 '판소리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현실바깥으로의 도피심리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허영만 作 '사오정'

사회심리학자들은 사오정 시리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장애용품 의료보험 적용" 장애인부모회, 정부건의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엄요섭)는 9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장구와 의료기기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특수학교의 증설 또는 일반학교와 통합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호화-불법묘지 처벌강화 내년부터 5년이하 징역

내년부터 호화묘지와 불법묘지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고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호화 또는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 "자전거타기 생활화 하자" 시민운동본부 본격 활동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홍배)가 9월1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단체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한 운동본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발급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론

### "나도 지도자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와 근기에 따라 몸건이나 상황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많은 값을 치르면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오래 끌지 않으면서 비용도 적게 치러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진정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얻어야 할 것은 간과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에는 오히려 톡톡한 값을 치르는 전도몽상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IMF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마음뿐이고 실제 행은 그렇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것중의 하나다.

우리나라가 IMF의 협조를 받은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뚜렷한 방향이나 분위기는 보이지 않으니 경제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큰 걱정이다. IMF의 지원을 받은 것이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려웠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이겨낸 나라가 있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있다. 도립선사가 백락천에게 "효도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고 했듯이, 어떻게 해야 IMF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IMF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각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공정한 게임룰에 의한 법 적용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법의 집행과 적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지적한다. 지난 해 홍콩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홍콩에서는 관공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한번 안 된다고 한 일은 누가 해도 안되지만, 된다고 한 일은 꼭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 한국에서는 된다고 하는 일이 갑자기 안되기도 하고 안 된다는 일이 다른 사람이 가면 되어질 때 어떨 줄 몰랐다"라고 말할 때 부끄러웠다. IMF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된다. 국가가 일관되고 확실하게 법을 집행하고 적용해야만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 신뢰성 회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을 분담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



오종근
〈호원대 교수·경영학〉

> "이젠 남탓 말고 나부터 솔선수범 공동체의식 키워 전화위복 기회로"

IMF 사태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소 다를 지 모르지만, 최소한 공동체로서 부담해야 할 업(業)은 우리 다같이 부담하고 극복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들은 지도층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일부 지도층에게만 요구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현재 자기 위치에서 나도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나도 가정에서는 지도자이고, 형제간 증의 지도자이며, 친구들 증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도 잘 했고, 88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끼던 금도 모으는 등 국가가 필요로 할 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저력과 열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보다는 자기 목표와 자기 완성을 위해 정열을 다하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이라는, 남탓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큰 원(願)과 열정을 가지고 정진하여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해 보자.

H·Y·U·N·D·A·I P·R·O·D·U·C·T·I·O·N

확 장 이 전 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현대프로덕션은…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든 영상매체의 노하우와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정보사회 포교수행의 동반자 「현대프로덕션」이 본격적인 영상 포교의 시대에 참여하고자 100평 규모의 첨단 설비를 구성하여 확장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한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7-4 얀텍스 B/D 지하
대표전화 (02)553-8881 · FAX 554-8881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 "청소년 맑고 푸르게 키우자"

## 파라미타 유해환경감시단 발족

## 스님 · 재가불자등 97명 전국서 활동
## 성적 유혹 · 폭력등 사회악 감시지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 · 조계사 주지)는 20일 포교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발족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다.

불교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파라미타 유해환경감시단에는 관행(월정사 포교국장) · 경성(해인사 포교국장) · 무구스님(수효사 주지) 등 스님과 고우각(동대부중) · 권진영법사(동대부고) 등 재가자 97명이 각각 감시단원으로 활동한다.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의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비행을 촉진하는 등 인간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의 총체를 뜻한다.

감시단원으로 선정된 스님 · 재가자들의 지역 분포는 서울 37명, 인천 1명, 대전 1명, 부산 5명, 대구 2명, 광주 1명, 경기 14명, 경남 · 북 10명, 충남 · 북 7명, 전남 · 북 2명 등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영상 · 인쇄 · PC통신 등 모니터 △시설 감시단 운영 △청소년유해환경 고발창구 개설 △유해환경 없는 시범마을 조성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2천여만원을 투입, 감시단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라미타는 감시단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중앙사무국에 고발접수 창구도 상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비의전화와 연계해 상담활동을 전개하며 오는 연말께 연중활동 백서를 제작 · 배포할 계획이다.

감시단 초대 단장을 맡은 현근스님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역군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집근처에 유해환경이 갈수록 늘어나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며 "청소년을 올바로 지도하는 것도 불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불자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정부가 서울시와 5개 광역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는 각 종교 · 사회단체에서 위탁 · 운영하고 있는 유해환경감시단은 총 30여개, 이중 불교계에서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등이 위탁 · 운영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는 20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켰다.

### 청소년 포교지 '좋은친구' 창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포교지 〈좋은친구〉가 19일 창간됐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에서 펴낸 〈좋은 친구〉는 초 · 중 · 고교생에게 무료 배포됐다. 창간호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풀어논 △바르고 지혜롭게, 삽화가 실려있는 △생각이 있는 작은 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최완수 연구실장이 연재를 맡은 △우리문화의 향기 등이 실려있다.



◇5C 고구려 동명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찰로 폐허가 됐다가 최근 복원된 평양 정릉사.

## 한가위에 보는 북한 불교유적

### 불교TV 6일 '그리운 산하…' 방영

### 금강산 · 묘향산 사찰 · 평양 정릉사등 소개

정부의 금강산 관광 허용으로 어느 때보다도 북녘 산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북한의 불교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불교TV(사장 정우스님)는 북한의 불교문화 유산들을 조명한 '그리운 산하, 북한불교 유적을 찾아서'(담당PD 김충현)를 10월6일 오전 10시15분부터 50분간 방영한다.

'날마다 좋은 날' 추석특집으로 방영되는 이 프로는 평양시에 있는 중흥사 당간지주와 대동문의 '평양종', 고구려 동명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로 최근에 복원된 평양 근교의 정릉사 등이 소개된다. 특히 정릉사의 불사현장을 통해 북한 문화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북한불교계의 노력도 함께 전달해 준다.

또 개성의 화장사 사리탑과 영통사 대각국사비 등을 비롯해 금강산과 묘향산의 사찰 및 불교 유적들이 고은시인과 은혜사주지 법타스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법타스님과 북한스님이 예불하는 장면과 남한 불교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리원 국수공장의 전경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이 프로의 볼거리다.

김충현PD는 "이 프로를 통해 불교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남북한 불교인들의 노력과 화합된 모습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며 이 프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주부신행담

###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②

너무도 다급한 마음에 처음 보는 스님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우리 소희 살려달라고 스님의 기도로 살려만주면 열심히 절에도 다니겠다고 말하며 매달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떼를 썼던 것이다. 생전 처음으로 스님이라는 분을 가까이에서 뵙게 되었던 나는 물불 가릴 것이 없었다. 말만 하면 그 스님이 우리 소희를 살려 줄 것만 같았다. 그 스님이 굉장히 위대하고 마치 큰 바위에 새겨진 미륵부처님 같이 보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매달린 나에게 스님은 엉뚱하게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보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아이 살려 달라니까 왠 보살심, 부처님 정법은 또 뭐야' 하는 생각만이 들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정법인지, 도무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난 열심히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했다. 스님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다. 오시면 우리 소희를 꼭 들여다보고 가셨는데,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스님이 들여다본 만큼씩 내 딸이 낫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노력도 무시한 채 소희는 짧은 삶을 마감하고 나의 곁을 떠났다. 채 두달도 안되는 52일간의 투병생활 끝에 한마리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림 · 문병성

### 짧은 삶 마감한 딸 가슴에 묻고…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소희와 나눈 이야기는 참으로 많았다. 어느날인가 몹시 아파하면서 '엄마 나 죽을 것만 같아' 하는 소리에 목이 메인 내가 겨우 한다는 말이 "소희 너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였다. 그런 엄마를 소희는 아픈 와중에도 언니와 동생이 있다며 위로해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에서는 무엇인지 줄줄 흘러내리는 느낌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희를 떠나 보낸 내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난 늘 술을 마셨다. 남은 두 아이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난 소희를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만났던 스님이 계신 사찰로 마음 속에 묻은 소희와 함께 갔다. 그리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하면서 기도를 했다. 기도하면서 법당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스님에게 억지 소리도 참 많이 했다. 새벽 2시에도 잠을 못 자고 산 속에 있는 절을 미친 사람처럼 올라갔다. 무서움도 두려움도 내겐 없었다. 난 정말 나쁜 짓 안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했다. 스님 말씀대로 전생에 어떤 악연을 지었는지, 무슨 죄업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또 물었다. 이것이 내 업이라고 스스로 위로도 해 보았다.

그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지장보살님께도 매일 기도를 했다. 나 죽으면 소희랑 꼭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 속의 독소는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이은희〈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따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건강 365일 〈34〉 치자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 소장 · 심장의 열 다스리는데 특효
### 위염 · 만성소화불량 · 당뇨병 치료

가정 주부들에게 치자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이는 식용작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대떡을 만들 때 치자물을 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옛부터 술안주로 애용하고 있는 빈대떡에 왜 치자물을 들였을까?

우선 녹두 자체를 보면 독을 없애주는 해독작용이 강하다. 거기에다 술의 열독을 없애주는 치자물을 곁들인다. 단순한 음식 하나에서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술을 오랫동안 과음하다 보면 말년에 가서는 중풍이 온다. 알콜이 몸안에 시간을 두고 쌓이면 몸안의 진액, 다시 말하면 피나 흐르몬 등이 술의 열독으로 인해 말라 버린다. 그 후유증으로 중풍이 오는 것이다. 진액을 말리는 술의 열독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빈대떡이다. 그래서 술상에는 빈대떡이 자주 오른다.

그러면 치자는 어떤 병에 좋은 효과가 있을까?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끼면 몸속에서는 그 열로 인해 피가 마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열을 잘 받는 체질이 있다. 급한 성격이거나 욕심이 많은 소양인 체질이 바로 그렇다.

소양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열을 받으면 그 화기가 췌장으로 들어가 몸이 무거워지고 손발이 저리며 얼굴이 붓는다. 먹는 것이 없어도 살이 찌며 눈에 피로가 자주온다. 또 소장, 십이지장염을 일으키면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며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온다. 어깨 관절통과 손가락 관절이 안 좋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 화기가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염과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위에서 나열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치자는 좋은 효과를 낸다.

이렇듯 치자는 식용뿐만 아니라 소장과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데 긴요하게 쓰인다. 〈동의보감〉 약성가에 보면 치자는 소장과 심장의 열을 다스리며 위염에 효과가 있고 소변을 시원하게 해주며 황달을 제거해 준다고 한다. 또 소갈병(지금의 당뇨병)을 그치게 하며 눈이 충혈될 때도 쓰인다고 적혀있다. 치자 8g과 감초 4g을 달여 1일2회 복용한다. (02)762-5510

### 문화재 사생대회 불국사 10월 18일

불국사(주지 성타스님)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10월 18일 경주에서 문화재애호활동 및 '문화재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경남 · 북, 부산지역 파라미타 회원 4백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경주 엑스포 행사장을 다니며 관광객들에게 불국사, 석굴암 등 불교문화재를 홍보하고 성보에 대한 친근성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 불국사에서는 문화재 정화 및 사생대회가 개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문화재 애호활동 4시간 봉사증'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10월 12일까지. (02)723-6165


# ♣ 불/자/정/보(사찰) ♣

##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대로변 산밑)
◆평수 : 대지 204평, 사용평수 280평
◆건물구조 : 연면적 160평, 지하1층, 지상 3층 (현대식 신축건물)
3층-법당 40평 , 2층-요사, 종무소 40평,
1층-전통찻집 40평, 지층-공양실 40평
(채광, 통풍양호)
◆매매가액 : 6억 5천만원
◆특징 :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포교 최적도량임
0331)263-0911/015)272-8895

## 창건주 보살님 모심
◆ 위 치 : 강원도 홍천 ◆ 부 지 : 垈, 田, 林 총 1,482평
◆ 법 당 : 13평(고전 한옥기와)
◆ 요 사 : 28평(고전 한옥기와)/시설:별도
◆ 기 타 :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 청정 자연계곡과 사계절 1급수물이 흐르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도량입니다. 본 도량의 시세는 3억원선 이오나 단돈 7천만원 채무관계로 인하여 삼보개물이 사채업자 손으로 넘어가서 폐사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본 청정도량을 IMF가액인 2억 5천만원에 인수 하셔도 좋고 7천만원 정도만도의 주시어 본 도량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은 평생 가족으로 모시고 창건주로서 예우하여 드리고 사후 부도비와 공덕비 및 49재 기일 일체를 책임지겠습니다.
스님 직접 : 0366)433-7650/433-2171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회장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절충가능)
02)936-4785

##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규모 : 2층건물, 법당 28평
◇삼존불 · 동불 · 후불탱화 · 신중 탱화 · 산신탱화, 법당시설 완비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종무소, 반지하 식당-13평
◇매가 : 1억 3천
053)656-6609/011)790-7162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산(대구 인접)시 옥산동 소재
◇대지 : 상가겸 126평 (도로 인접, 철도 굴다리옆)
◇법당 : 가건물 40평
요사 : 25평 (※시설완비)
◇가격 : 1억 5천만원 (전세 4천만원, 월세가능)
◆특징 : 대구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밀집지역으로 포교당으로 적합
◆ 포교용도로 시설설비후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현 7천만원 농협 융자 포함)
011)308-4225/02)215-7978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 · 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 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 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 · 험 · 사 · 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진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바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옅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없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 한 국 원 동
☎.3437-828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코스모스
바람결 흔들리는
코스모스
고운자태
홀로 아픈 가슴 묶고
소슬한 바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으로 떠오르는
청겨운 얼굴
빈 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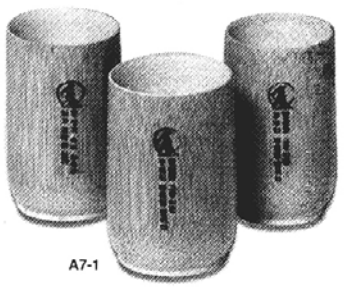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가격 ₩ 120,000**

##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A7-1

크기 :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 법성게 걸망



A12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일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되는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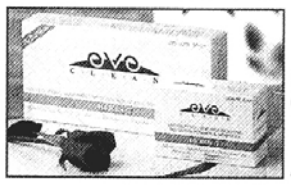
A11



색상 : 진녹, 검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14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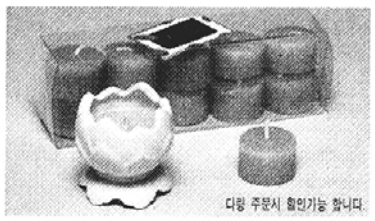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궁비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이용분야등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향 주문시 할인가능 합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남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꽂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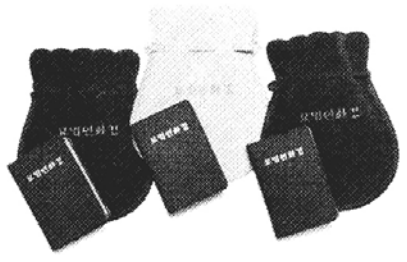
A4-1 골동품형 / A4-2 개금형 / A4-3 브론즈코팅형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 부다피아 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응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산소등 용도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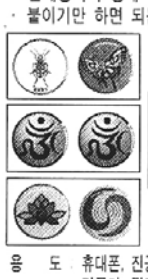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가 격 : 1세트 ₩ 25,000

## 신소재 전자파 방지장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전자파, 우리주변에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수맥의 공포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 인체공학적 생체 리듬 보호, 휴대폰 수신 감도 증가
- 붙이기만 하면 되는 편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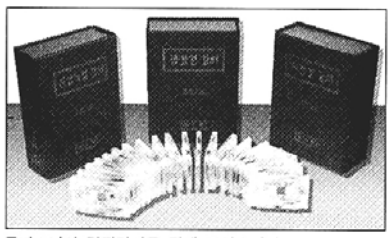


강력한 키릴리안(Kirillian)이 유해 전자파를 흡수, 용해 합니다.



응 도 : 휴대폰, 진공청소기, 믹서, 컴퓨터, 전기면도기, TV등과 수맥방지가 필요한 모든 장소
규 격 : 2개 1세트 **가 격 : ₩ 9,000**

##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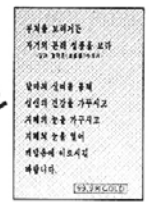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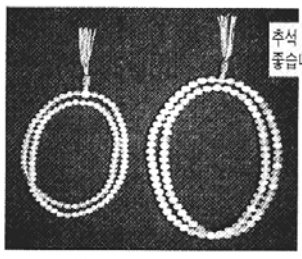
순금 99.9%

특 징 :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 순금99.9%
크 기 : 5.2㎝ × 7㎝

**가 격 : ₩ 20,000**

## 건강 옥 염주

옥은 군자의 길이 비기며 회남자(淮南子)에는 천지의 정(精)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두통,소화불량,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추석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종 류 : 청옥·백옥염주(小) **₩ 30,000**
청옥·백옥염주(大) **₩ 40,000**

## 앞치마

연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생활 앞치마



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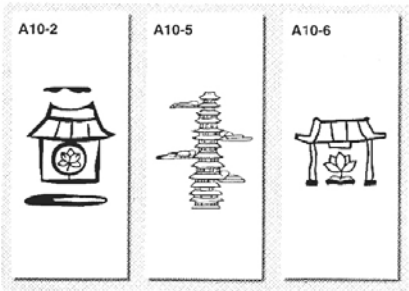
내부그림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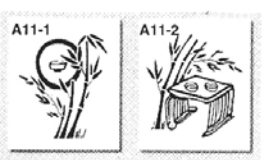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가격 ₩ 5,000**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 기도포



A10-2 / A10-5 / A10-6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A11-1 / A11-2

## 다포

기장 : 50㎝ 폭 39㎝
재질 :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 반야심경 종 차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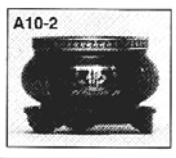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9-2

종 류 : 검정, 밤색, 흰색
**가 격 : 낱개 ₩ 3,000**



A10-2

##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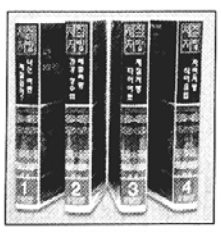


A8-1

재질 : 동
특징 : 수공에 작품
규격 : 39㎝ × 43㎝

**가격 : ₩ 50,000**

##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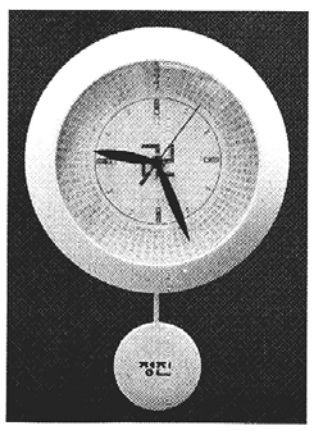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일까?**
-체질이란 무엇인가?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상의학이란?
-체질 감별법
-자신의 혀모,심성,병증으로 체질 진단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체질에 맞는 식생이란?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보약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과일,해물,차 등
-건강 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살찌는 체질?
-체질과 비만의 관계
-조리법이 비만을 부른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조리법
-다이어트 음식
-살빼는 민간차
-지압으로 빼는 군살
-비만의 원인부터 억제하는 씨앗요법
-살 빼는 심리요법

**제4부 자연치방 식이요법**
-비만은 종합 질병이다
-다이어트의 부작용
-선택이 중요하다
-몸식요법이란?
-쉽게 할 수 있다는데
-혼자서 하는 물리요법 7가지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생태학적 영양학의 식생활 실행조건
-멋지게 보내는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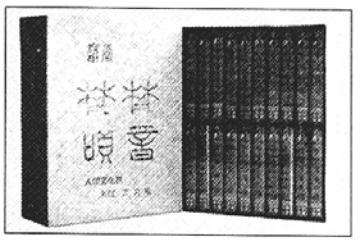
##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색상 :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 200×260×6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 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심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접안
20 종성 · 천수작법 · 요잡

## 법회안내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 10월16일 오후3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수계대법회. (0561)770-2016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 조실) 9월30일 대구 법왕사 주최 국난극복을 위한 백고좌대법회. (053)766-3747



고산스님(쌍계사 주지) 10월11일 오전 11시 화성 신흥사 10년기도 회향법회. (0339)357-2695



법조스님(고운사 주지) 동국대 경주캠퍼스 10월14일 교직원법회서 '초발심시변정각' 주제로 법문. (0561)770-2016



김열권법사(〈위빠사나〉 I·II 저자)는 10월13일부터 한국불교문화대학에서 '위빠사나 붓다 명상호흡'을 지도한다. 김법사는 부처님의 수행법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게 한다. 매주 화 오후2시30분, 4시, 5시30분. (02)336-1090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 신행 캘린더

### 10월1일 (목)

■실천승가회 6돌 법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오전 11시 파주 보광사에서 '98 추계정진도량 및 창립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25-4277

■불교법사회 창립10돌=대한불교법사회는 창립 10돌(10월3일)을 기념해 서울 장충동 법사원 중앙법당에서 수계식을 겸한 10주년 기념법회를 거행한다. (02)266-1827

■'자비의 절편나누기' 행사=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2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의 절편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 (02)571-2988

■'추석맞이 송편 나눠드리기' 행사=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일까지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들을 위한 '추석맞이 송편 나눠드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02)852-0525

■자비의 쌀·제수용품 나누기=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자비의 쌀 및 각종 제수용품을 후원받아 영세가정에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 (051)363-2063

### 10월2일 (금)

■노인 경로잔치=대전 서구노인복지회관은 오전 10시 지역노인 1천여명을 초청, 민요공연과 윷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로잔치를 연다. (042)488-6297

■추석맞이 주민 어울잔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의탁노인 및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주민 어울잔치를 연다. (02)817-8052

### 10월5일 (월)

■추석다례 불공=태고종 봉원사는 중추절을 맞아 조상님께 추석다례 불공을 올린다. (02)392-3007



◇전국 각 사찰에서는 중추절을 맞아 추석다례불공을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천종사의 추석다례법회.

### 10월6일 (화)

■금오문도회 수련회=금오문도손상좌문도회는 오후 4시부터 7일 오후 2시까지 법주사에서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433)43-3615

### 10월9일 (금)

■종교미술제=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0월 16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종교미술제를 개최한다. (02)580-1114

■'분황사 고찰' 학술회=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는 경주 현대호텔에서 '분황사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0561)770-2502

■불국사 수계법회·영산재=불국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산대재 및 보살계수계대법회 및 전통국악 특별공연을 거행한다. (0561)746-1476

### 10월10일 (토)

■'장기기증 거리 캠페인'=수덕사 광명포교원 서천사와 생명나눔실천회는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6~10시 광명시청앞에서 '생명을 나눕시다. 삶을 나눕시다' 거리캠페인을 벌인다. (02)734-8050

### 10월11일 (월)

■관문사 낙성기념법회=천태종 관문사는 오후 7시에 삼존불 봉안식 및 낙성축하 불공법회를 봉행한다. 이에앞서 9일 관문사 점등식 및 특별기원법회, 10일 관문사 낙성기념 한·중·일·미얀마 4개국 대표 상견례 및 전야예술제가 있다. (02)3460-5300

■신흥사 10년 기도회향=경기 화성 신흥사는 오전 11시 10년기도 회향 및 불사낙성식을 거행한다. 제2회 라야 어린이, 청소년 포교대상 시상식과 신흥사 포교 공로대상 시상식, 소년소녀 장학금 전달식도 개최한다. (0339)357-2695

### 10월12일 (화)

■관암사 보살계 수계=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은 오후 2시 대구 관암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535

### 10월15일 (목)

■태고종 비구니회 창립=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오후2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봉행한다. (02)745-2030

## 종단소식

### 조계종

#### 은해사 개산재·보살계

은해사(주지 법타)는 26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3/4분기 교구종회를 열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개산재 및 보살계를 10월 25일 오전 10시30분 본사에서 봉행키로 결의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만등불사 원만회향 기원법회도 동시에 봉행된다. 만등불사 및 보살계 접수문의 (0563)335-3318

#### 봉선사 교구종무회의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10월 8일 청풍루에서 교구종회 및 문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브고, 문도회규약 심의 등이 논의된다. 또 봉선사는 10월 9일부터 23일까지 말사 종무지도감사를 실시한다.

### 태고종

#### 향림사주지에 우담스님

총무원(원장 인곡)은 9일 순천 선암사 말사 향림사 주지에 현 연수원장 우담스님을 임명 발령했다.

우담스님은 취임소감을 통해 "종단과 선암사 그리고 향림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사찰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담스님은 1949년 서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기북부종무원장, 8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교무·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 연꽃불교 장의봉사회

대구 심불정사(주지 자은)는 26일 (주)연꽃불교 장의봉사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조회 형태로 운영되는 연꽃장의회는 수익금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병원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24시간 임종의 전화(053-767-7672)도 운영한다. 회원이 되려면 월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씩 60개월 납입하면 된다.

### 천태종

#### 동광사 원통보전 낙성

속초 동광사(주지 개문)는 29일 관음존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속초시 조양동 산 375 대지 1만50평에 위치한 동광사는 원통보전을 2년여에 걸쳐 1백50평 규모로 건립했다. 현재 단층으로 건립된 원통보전은 차후 지상 3층으로 증축될 계획이다.

### 진각종

#### 덕화심인당주교 덕정정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4일 대원심인당 주교 덕정 정사(〈사진 왼쪽〉)를 덕화심인당 주교로, 법화심인당 주교 천지정 전수를 대원심인당 주교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종단이 인천지역 교세확장을 위해 인천 여수구 동춘동 822번지에 덕화심인당을 새로이 마련, 10월 헌공불사를 갖는데 따른 것이다.

#### 밀교문화대학 1기 수료

제1기 대구지부 밀교문화대학(학장 석공) 수료식이 24일 대구 진각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수료식에는 1년 과정으로 진각종론, 밀교학개론, 불교의학 등 진각 교양과정을 거친 80여명의 수강생이 자리한다.

#### 실직가정 후원인 모집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실직가정의 자녀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상적 생활복귀를 돕기위해 개원한 선재의집과 실직가정 상담소를 후원해 줄 독지가와 후원물품을 모집한다.

또 실직자녀들의 학습지도와 상담소업무를 보조할 자원봉사자의 지원도 기다린다. (02)942-0144

### 초등종

#### 종단간부·집행부 회의

총무원(원장 송정)은 25일 김해 대인사에서 종단간부 및 집행부 회의를 가졌다.

총무원장 송정스님, 포교원장 달제스님, 승정부원장 연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총림사찰 논의 및 11월4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연수교육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게시판

### ♣ 알림

△경북복지협 홈페이지 개설=경북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csw.or.kr)를 개설했다. (053)814-8550

### ♣ 강좌

△문화 교양강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3시에 태극기공, 한문·한글교실, 한국무용, 노인에어로빅 등을 진행하는 푸른학당(노인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02)282-1100

△수화·피아노 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30일부터 3개월과정의 수화교실을 매주 수·금요일 오후 6시30분에 연다. 또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영화음악·째즈' 피아노교실을 연다. (02)817-8052

△주역 강의=수효사 문화원은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주역 강의를 개설. 중급반은 맹란자, 초급반은 강청옥 선생이 강의. (02)313-3060

### ♣ 모집

△추석 노인민속놀이 후원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추석맞이 노인 민속놀이 대회에 위문품을 후원해줄 개인·단체를 모집. 후원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40명이며 젓갈, 선물세트 등 모든 품목 가능. (02)365-3677

△결식아동 돕기 후원인=한국이웃사랑회는 결식아동과 북한 어린이, 방글라데시 홍수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를 모집한다. (02)704-9923, 한일은행(예금주 사랑의굶기운동)=077-174956-01-401

△꿈나무 학습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맞벌이 부부 자녀인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꿈나무 학습교실 원생을 모집한다. 월~금요일 오후 1~5시간 교과학습 및 컴퓨터, 피아노, 서예, 방학특별프로그램을 지도한다. 월 8만원. (02)421-6077

△어린이 지도교사=이웃을 돕는사람들은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의 지도교사 6명을 모집. 대졸 미취업자로서 컴퓨터·예체능 전공자. (02)3:47-2600

△이동목욕 지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목욕봉사 지원자를 모집.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1회 요일·시간 선택 가능. (02)852-0525

### ♣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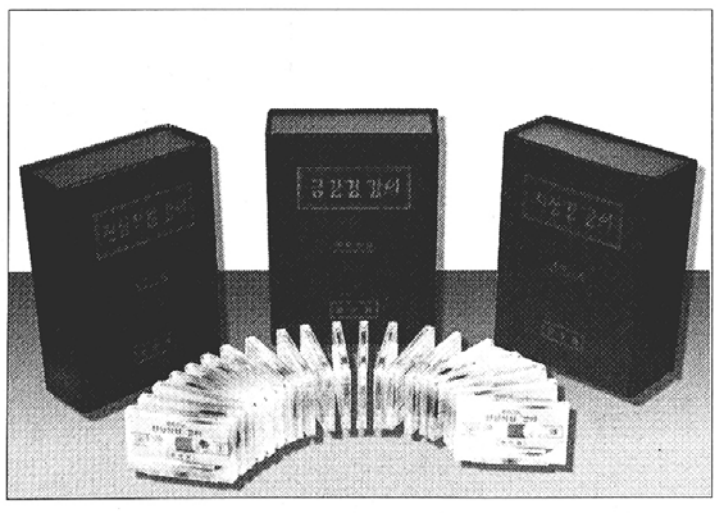
△개천절에 떠나는 통일기행=국토문화순례 단체인 '터사랑'은 10월3일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씨의 안내로 '개천절에 떠나는 통일 기행'을 떠난다. 철원지역의 승일교, 철의삼각 전적관·전망대, 고석정, 월정역, 백마고지 전적지, 노동당사, 도피안사 등을 답사. 오전 7시30분 서울 운현궁 정문에서 출발. (02)725-1284

△탐라문화 답사=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10월 2~4일 2박3일간 제주도 탐라문화 답사를 떠난다. 김포공항 1층 에스컬레이터 앞서 출발. 우도, 마라도, 송악산, 수월봉, 추사적거지, 관음사, 서자미록, 불탑사, 항몽유적지, 4.3항쟁유적지 등을 둘러본다. 회비는 23만원, 어린이 18만원. (02)275-4333

### ♣ 부음

△동국대 불교학부 김호성 교수의 모친 박찬경여사(향년 80세)가 9월25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 (02)3410-0915


#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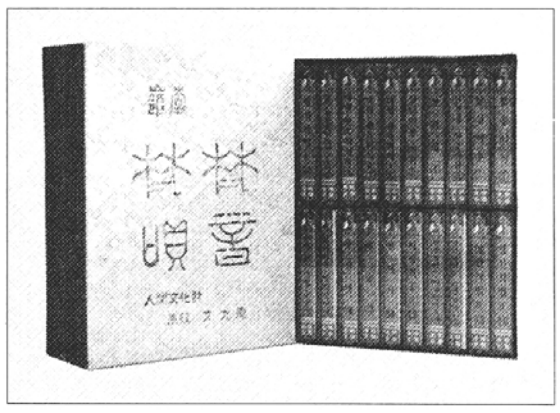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지장경·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 강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 장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 TAPE 목록

①불공의식 ②삼신이운 ③신장청·신중권공
④상단청 ⑤상단권공·거목 ⑥대령·관욕의식 I
⑦대령·관욕의식 II ⑧대령·관욕의식 III
⑨영반·복청소리·대천수소리 ⑩영산작법 I
⑪영산작법 II ⑫영산작법 III ⑬영산작법 IV·지장청사 I
⑭지장청사 II·지장권공 I ⑮지장권공 II ⑯전시식
⑰배 송 ⑱운심게 ⑲법사이운·명전점안
⑳종성·천수작법·요잡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가격 ₩50,000)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

# 제주불교 사회사업 새바람

## 불교사회문화원 개원…지역경제 · 사회 · 문화 발전 모색
## 보국사 휴양원 추진 · 붇다클럽등 소년가장 · 장애인 후원

제주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 · 관음사 주지)이 개원됐고 보국사 휴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되는등 제주 불교계가 사회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불교계의 사회운동은 간헐적으로 실시돼왔으나 이번 제주불교사회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던 보국사 휴양원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제주불교의 대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29일 제주 칼호텔 소연회실에서 개원기념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드출하게될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34명의 불자들이 참가, 제주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방면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발전방안을 수립, 제주도 사회 발전과 문화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지방행정 경제연구소, 문화예술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를 두고 제주도의 21세기를 준비하며 인재양성사업에 매진하게 된다. 또 주요활동계획으로는 연 2회 언론계와 연계하여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연다는 계획이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장 중원스님은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진 지리적 위치로 독특한 생태와 정서를 가진 내면의 문화가 있다"며 "제주지역 불자들이 불타의 자비정신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을 창립케 됐다"고 밝혔다.

주민반대로 불사가 중단됐던 남제주군 대평리 보국사 휴양원(대표 오인환)은 최근 주민들과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평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 임시총회를 갖고 휴양원 건립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휴양원 건립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휴양원 건립은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마을의 지맥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서 불사가 미뤄져왔었다. 보국사 휴양원은 지하2층 지상1층규모의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단체 제주붇다중앙클럽, 제주불교사회봉사회 등의 각 사회단체들이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 김종근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밀양 '여여정사' 만불전



◇밀양 삼랑진읍에 건립중인 여여정사 만불전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원내는 주지 정여스님.

## 3층규모에 수련원등 복지시설

### 7년전 착공…공정 50%
### 부지 6만여평 매입
### 대웅전 · 선방도 계획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에 또 하나의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어린이및 청소년수련원과 실버타운을 겸하게 될 여여정사(주지 정여)도량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전부터 터닦기를 시작한 여여정사의 1차불사는 만불전 건립. 만불전에는 요사채(1층), 어린이 수련원(2층) 만불전(3층)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정여스님은 "재가자와 스님이 함께 불법을 따라 공부하고 신행생활중에 취미활동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여정사는 평생을 불교에 귀의 공부해 온 불자들을 위한 실버타운 역할과 어린이 · 청소년들의 수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여여정사는 20년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만불전 불사외에도 대웅전, 선방, 재가자를 위한 선원을 비롯 도자기 제작, 꽃가꾸기 등의 취미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량을 목표로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처음 땅 매입에 들어간 정여스님은 뜻밖의 장애와 맞닥뜨렸다. 절터에 타종교인들이 생식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 그들을 설득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스님은 불사를 위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백일기도중 타종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 땅을 팔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불사는 원만하게 풀려 나가게 되었다. 마을에 전해오던 '언젠가는 공부한 스님이 들어와 그 터에 절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실현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불사는 6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 4백50평 규모에 수용인원 6백명에 달하는 대규모 법당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도량을 조화롭게 조성한다는 것이 불사에 대한 스님의 지론이다. 범어사 금강암 불사의 경험을 살려 여여정사 불사도 스님의 생각과 고민으로 설계에서 공사까지 하나 하나 재가자를 배려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량에서 시비가 끊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한결같은 부처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길 발원하는 여여정사 불사는 서두름이 없이 여여하게 이어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사단이상 군 법당완비

## 75사단 '호국철마사' 3일 기공

사단급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법당이 없던 경기도 남양주 75사단에 법당이 건립된다.

이번 불사가 완공되면 우리나라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모두 법당이 들어서게 된다.

10월3일 기공식을 갖는 호국 철마사(주지법사 한주회)는 1백평의 조립식 건물로 조성된다. 그동안 75사단 불자장병들은 부대 창설때부터 20여년동안 봉선사에서 정기법회를 실시했다.

또 최근까지도 군법사조차 없어 군불자 포교는 고사하고 신행활동을 원하는 불자까지도 어려움을 겪었다. 2천여명의 장사병가운데 불자는 약 4백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타종교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국 철마사 불사는 금년 부처님 오신날 75사단에서 봉선사에 법당 건립을 요청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철마사 법당 건립 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밀운 · 봉선사 주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돼왔다.

이희용 군승단장은 "사단급이상의 부대에 법당이 갖춰진 것은 군승 30년사에 의미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는 사단예하 부대내의 법당 건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결식아동에 1백만원
### 부산 불교대 총포교사회

부산불교 교육대학 총포교사회(회장 이동열)는 16일 동삼동 봉삼초등학교(교장 류병관)를 방문,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7월에 무의탁 · 독거노인과 결식 아동 후원을 위해 열었던 하루찻집 수익금 중 일부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결식하는 아동을 위해 1차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사진〉

이동열 회장은 "급식비를 못내고 결식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총포교사회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11월중에는 무의탁 · 독거노인들을 위한 경노잔치를 개최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 본부 창립 대회가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개최됐다.

# 생명나눔회 광주본부 창립

### 불자 30명 장기기증 서약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창립대회'가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영조스님 · 증심사주지)는 창립대회 및 청화 큰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초청대법회를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라는 주제아래 개최했다.

이와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경제살리기 헌혈 캠페인이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불청 광주지구, 대불련 광주지부 등 지역 청년 · 학생불자들의 실천행사로 전개됐다.

이날 영조스님은 "생명나눔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 서로 돕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서로가 각자의 생명속에 잠재돼 있는 보살심이 묻히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생명나눔실천회, 광주 · 전남 4대본사주지협의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교육원, 금륜회 등이 후원했다.

특히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사후각막기증 및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등 3명의 스님이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30여명의 불자가 장기기증을 서약해 생명나눔운동의 인식확산에 큰 전기가 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보안당 무룡스님 입적



보안당 무룡스님이 17일 세수 87세, 법납 56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43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만공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한국비구승대표 15인중 1인이기도 한 스님은 조계종 감찰위원장, 김제 금산사주지 표충사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20여년간 은거생활을 하며 수행정진했다.

영결식은 20일 대구 해원사에서 엄수됐다.

# 부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

## 체육 · 상담 · 오락실 갖춰 건전문화 조성

양정청소년회관(관장 범산스님)이 15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98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계획에 따른 시범 설치기관으로 확정돼 청소년 포교의 새장으로 열게 됐다.

이에따라 양정청소년회관은 기존 강의실을 개조해 소극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상담실, 어학실, 음악실을 비롯 포켓볼과 건전게임기를 갖춘 종합오락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및 취업관련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탐색 부스, 보컬과 사물놀이, 춤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 · 음악 연습실, 인터넷부스, 음악 · 비디오 감상실, 청소년가페, 사랑방, 창작공방 등도 갖추게 된다.

양정청소년회관은 문화의 집 설치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제공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을 잇는 청소년 고충상담처리시스템 및 청소년 미래를 위한 정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정청소년회관 최문철부장은 "2003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150개 설치 예정인데 이에 따른 교계의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 광주사직공원 팔각정 무료급식 쉼터 활용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이 IMF경제난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노인층의 무료급식 시설과 쉼터로 이용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사직공원 팔각정이 지난 91년 동물원 시설이전과 이에따른 공원복원 공사로 인해 탐방객이 급격히 줄어든데가 1층 매점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져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한 끝에 원효사(주지현지)로부터 급식시설 제공 제의를 받고 용도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효사는 96년부터 광주공원과 운암동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과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중근 기자

## 국난극복 기원 탑돌이

충주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성 · 동가섭사 주지)는 10월18일 가금면 중앙탑에서 국난극복 기원 영산대재및 탑돌이 대법회를 봉행한다.

제28회 우륵문화재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1부 대법회에 이어 2부 혜원스님(혜원정사 주지)의 집전으로 영산대재, 3부 불자연예인 초청공연, 4부 점등식 탑돌이 등이 펼쳐진다. 김중근 기자

## 지리산 수해 희생자 위령재

지리산 폭우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위령재가 17일 경남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지리산 폭우 희생자 위령재'에는 유족 1백여명과 해인사 쌍계사 화엄사 주지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진주사암연합회는 수해의연금 1천9백여만원을 모금, 경남도 재해대책본부측에 전달했다. 김중근 기자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 둘째 부(富:부와 귀) · 셋째 강녕(■:편안함) ·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회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디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 로 화 정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強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 '신앙의 자유'도 모르는 교사

## 서울 용곡초등교 교사 학생들에게 교회출석 강요
## "하나님이 최고신 다른 신은 잡신" 1시간씩 종용

"스님, 학교가기 싫어요. 선생이 자꾸 교회에 다니라고 해요."

서울 용곡초등학교 6학년 이지군은 아침마다 학교 가기가 싫다.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밝혔지만 지속 "교회에 나가라"는 담임 선생님 때문이다. 절에 사는 지성이 말고도 양승훈, 이효재군 등 불자 가정의 아이들도 등교가 싫은 이유가 같다.

용곡초등학교 후문에 인접한 용암사 주지 효성스님이 올 여름에 입양해 용곡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성군은 "너는 아버지 스님과 상관이 없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최고신이고 다른 신은 잡신이다"며 한시간씩 종용하는 선생님 앞에서 고통만 감내해야 했다.

공립학교인 용곡초등학교 박숙희 교사의 제자를 향한 전도가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용암사 주지 효성스님과 교계 기자단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측은 "박교사의 잘못을 인정한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교사 및 부장단회의를 거쳐 박교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앞으로 학교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강요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숙희교사는 "학생들한테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전도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곡초등학교에서는 올봄에도 최모교사가 "절에는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다"며 "목탁소리는 귀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망언을 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자진 퇴교한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옴마니반메훔' 왜곡관련 일간스포츠 사과문게재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주살(呪殺)의 주문으로 표현한 일간스포츠 연재만화 '도시유혼'과 관련해(본보 191호 23면) 일간스포츠가 24일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간스포츠는 사과문에서 "잘못 사용된 어휘로 불교신자와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종교믿는 경영인중 불교신자 34.5%

국내 경영인의 34.5%가 불교신자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김창성)가 최근 국내 기업경영인 5천1백명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 종교인 1천8백83명 중 개신교 7백90명(42%), 불교 6백50명, 천주교 4백5명(21.5%)순으로 분석됐다. 김원우 기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상량식**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20일 안양본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대행스님을 비롯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효성건설 송현진 사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했다. 안양본원은 건평 2천9백평에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로 대웅전 및 선방(5층), 강당, 종무소, 식당, 주차장 등을 갖추고 내년 2월 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등 앞두고
# 공명선거 촉구 여론
## 선관위 담화문발표…공불협 감시단도 구성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의원과 129대 총무원장 선거가 25일과 9월 8일자로 각각 공고된 가운데 공명선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25일 본격적인 선거업무를 시작하며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담화문에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합심해 △전통승풍이 보호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상호비방과 부정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원활하고 양명한 선거업무를 위해 '선거업무운영안내서'를 발간하고 선거실무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25일 전국 교구본사 사무장 회의를 통해 선거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등 13개 단체도 22일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상임공동의장 혜총, 공불협)'를 구성했다. 공불협은 감시단을 조직해 △관권부정선거 저지, 감시고발운동 △불법금품 타락선거 저지 감시 고발활동 △투개표과정의 부정저지 감시 고발활동등을 골칠 계획. 또 공불협은 계단위원회를 통한 총무원장 입후보자 자격 심의를 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입후보자들로부터 종책을 듣는 공개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사찰 납골당 지으면 혜택"
### 서울시 용적률 확대 · 세금감면등 검토

앞으로 사찰이나 불교시설 등을 지을 때 건물 지하나 밖에 납골당을 만들면 용적률을 확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서울시장은 21일 시 정례 간부회의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납골당을 지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 시장은 또 "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매장중심 묘지문화의 문제점과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 등을 물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는 납골당을 설치하는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늘려주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등을 통과시킬 경우 시 관할 구역에 들어설 대규모 사찰과 포교당, 불교회관 등의 납골당 설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돼 사찰 영탑 및 납골당 건립이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 北 구호 3차분 지원
#### 한국JTS · 불추위

한국제이티에스(대표 법륜)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효림)가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옥수수와 분유를 지원한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는 25일~10월15일 2억7천여만에 달하는 옥수수 1천톤을 전달한다. 이에앞서 한국제이티에스는 21일~23일 옥수수 10톤과 분유 10톤을 지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종교교도소 위탁운영해야"
### 개신교 사설교도소 설립추진
### 국민회의 · 법무부 법안 검토

정부의 종교교도소 설립과 관련, 국민회의가 검토하고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측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종교교도소 운영방안은 △규모는 교도소당 수용인원을 3백~5백명 △참여 종교단체가 교도소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국가와 공동운영 △시설비와 교화경비는 종교계가 부담하며 사설관리비와 재소자 기본경비는 국가 부담 등이다.

이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지를 제외한 건축비만 2백억원 가량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형벌권의 민간이양 등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만큼 "정부가 시설을 지어 종교단체에 위탁운영케 해 재범률 감소를 위한 민영교도소 도입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도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워낙 큰 돈이 드는 사업이라 준비는 전무한 상태"라며 위탁운영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이 29일 개최한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는 '사립교도소의 역사성과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사례'(이종윤 목사) '한국의 사립교도소의 모델 제시'(김일수 고려대교수) 등의 발제와 3개 정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뉴스 & 뉴스

### 삼보정재 활용토론회

종단자정과 삼보정재의 여법한 활용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10월12일 오후2시 동산반야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보정재의 여법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종단자정과 건전한 비판세력 형성을 위하여'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 정토회 활동평가 좌담

정토회(의장 법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월 9일 오후2시 대불련동문회 강당에서 '정토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기념 좌담회를 갖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법륜스님이 '정토회 활동의 기조와 배경' 박수일씨(정토불교대학 상임법사)가 '정토회 10년의 활동과 평가'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도필선 기자

### 무차선회 법문테이프 출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지난 8월18~22일 개최한 무차선회(無遮禪會)의 내용을 수록한 법문테이프 '한국고승대법회'를 출반했다.

조사선의 전통확립과 조사선을 21세기의 새로운 정신으로 제시한 서옹, 혜암, 진제스님의 법문을 수록, 총 4개 한세트로 제작됐다. (0685)392-7502.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 실천승가회 창립 6돌 행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10월1일 파주 보광사에서 추계정진도량 및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을 비롯해 증앙종회 의장단 및 교구본사 주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다.

도필선 기자

## "노인무료병원 스님 운영해야" 45%
### 연꽃마을 '무료병원 이용노인 인식도' 조사
### 설립주체는 국가-종교단체-복지단체 順

노인무료병원 이용 노인들은 노인무료병원의 운영주체로 스님, 설립주체로는 국가가 가장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최근 10월2일 제2회 노인의 날'과 19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기념, 만 65세 이상 남녀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무료병원 이용노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밝혀졌다.

노인들은 노인무료병원의 적합한 운영주체로 스님(45%), 국가(32.8%), 구청장(7.4%), 연꽃마을(5.1%) 등을 들었다. 노인무료병원의 설립주체로는 국가(69.2%), 종교단체(12.7%), 사회복지단체(10.2%), 지방자치단체(6.4%) 등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99%는 노인무료병원을 현재의 수준보다 더 많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목탁소리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 이상한 방한

최근 교계에서는 일본에서 왔다는 이케구찌 게이깡스님으로 인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됐다. 고야산(高野山) 진언종(眞言宗) 권대종사로 알려진 이 스님의 방한 이유와 일정을 교계 언론사에 처음으로 알려온 사람은 한국진밀교(韓國眞密敎) 준비위원회(회장 김명칠).

위원회에 따르면 21일 2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게이깡스님이 공항 의전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들이 공항에 도착해 게이깡스님을 만난 곳은 '공항 출국장'. 해프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간담회도 22일 불교방송에서 열겠다고 연기했다. 권대종사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진언종의 2인자'. 한 종단의 2인자가 공론을 다루는 기자들과의 약속을 헌신 버리듯 했다는 것이다. 게이깡스님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 이 일을 비추어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스님은 김명칠보살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산 효자원 뒷편 580평 부지에 '최복사'라는 절을 짓기 위해 협의차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게이깡스님을 초청한 '한국진밀교준비위원회'라는 단체 속사정은 아리송할 뿐이다. 최근 용산구 갈월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이 단체는 거의 김명칠씨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나이는 59세. 발심은 했다지만 재적사찰은 고사하고 잘 알고 지내는 스님도 없는 노보살이 대체 교계에서 들기도 힘든 '진밀교'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는 단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환갑이 다된 나이에 김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북한산 자락의 5백여평의 부지 뿐이다. 이 땅은 현재 '잡종지'로 분류되어 있어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23일 게이깡스님을 공항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김명칠씨는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곳에 사찰이 세워지면 남은 여생을 그 사찰에서 보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보살의 행보가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gobaoou@buddha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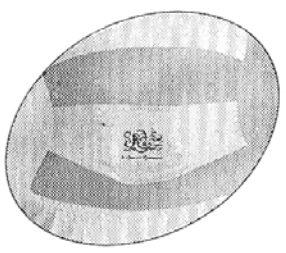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99년 달력 365일 날마다 좋은날 '생활포교사'

〈가나다順〉

## 감로기획




### ■'동자승' '산사의 향기' 단연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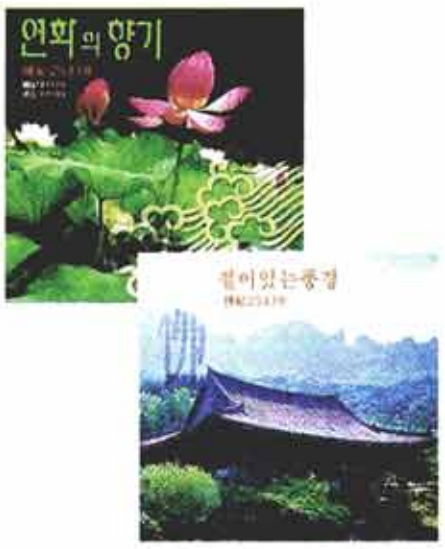
달력뿐사에 오래 전념해온 감로기획(대표 선문빈)은 불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달력 8종을 미련했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감로기획의 달력은 전반적인 불교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해맑은 동자승을 통해 천진불심을 되새길 수 있는 '동자승의 세계', 산사의 4계절을 담은 '산사의 향기'와 사찰문살의 아름다운 문양을 모은 '불교전통문살의 美'도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있다.

8종의 달력 모두 큰 사이즈(30.0×51.0cm)와 작은 사이즈(26.0×26.5cm)의 2종으로 제작했고 가격도 1600원과 1400원으로 균일화했다. 특히 별도로 달력 내용에 전경사진을 넣어서 만들고 싶은 사찰은 해당 사진 1컷을 따로 넣어 제작이 가능하다.

〈주문접수: 전화 (02)723-4306 팩스 738-8682〉

*동자승의 세계(사진작품) *산사의 향기(사진/안장현) *한국의 석불(사진/안장현) *경주남산(사진/안장현) *불교전통문살의 美(사진/안장현) *금강산의 사계(사진작품) *나한도(그림작품) *그리운 금강산(사진작품)

## 극단 바람




### ■탱화등 9종…품위있고 실용적

불교극단 '바람'(대표 현장스님)은 올해 처음으로 달력보급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청정도량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실용적이며 품위있게 꾸며진 달력들은 사진 그림 탱화 등을 소재로 총 9종과 차량용 미니캘린더 3종을 선보였다. 연극 및 각종문화이벤트를 통하여 문화포교활동을 벌여온 극단 바람은 이번 달력사업의 수익금을 제6회 정기공연으로 올릴 연극 '원효대사'의 기금에 충당한다.

〈주문접수: 전화 (02)725-6824 팩스 722-9035〉

*연화의 사계(사진 이승민)
· 크기㎝/30.0×40.0 · 인쇄/5도 · 제본/pv홀더
*달마도(그림/황연스님) · 크기㎝/30.0×62.0 · 인쇄/4도 · 제본/pv홀더
*보살도 · 크기㎝/30.0×62.0 · 인쇄/4도 · 제본/pv홀더
*절이있는 풍경 · 크기㎝/30.0×30.0 · 인쇄/양면8도 · 제본/트윈링
*목아동자 · 크기㎝/30.0×30.0 · 인쇄/양면8도 · 제본/트윈링
*연화의 향기 · 크기㎝/30.0×30.0 · 인쇄/양면8도 · 제본/트윈링
*신사의 마음 · 크기㎝/25.5×26.0 · 인쇄/양면8도 · 제본/트윈링
*천진불 · 크기㎝/25.5×26.0 · 인쇄/양면8도 · 제본/트윈링
*동자요람 · 크기㎝/25.5×25.5 · 인쇄/양면8도 · 제본/트윈링
♥사은품 5백부이상 주문하면 염주와 액자를, 2백부이상 이면 도장을 각각 증정

## 부다가야




· 크기㎝/30.0×21.0 · 인쇄/전면칼라 · 가격/1000원

### ■목조건축 나뭇결 빛과 멋 담아

불교 제1의 도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달력업체로 손꼽히는 부다가야는 내년 달력을 단 1종만으로 전력을 쏟아냈다. 내용은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목조건축의 나무결과 그 속에서 풍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 '목조건축의 美'. 그래서 부다가야 달력에는 불교건축의 빛과 결 그리고 멋이 함께 담겨있다. 나아가 한국 목조건축의 특이성을 고스란히 담았다.

불교출판, 불교용품 기획 제작 보급,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둔 여름불교학교 후원 및 각종 어린이 불교관련 이벤트에 주력해온 부다가야는 달력제작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IMF체제에 적응토록 가격을 1천원대로 낮춘것은 올해의 큰 성과.

조상들의 목조건축 속의 멋과 지혜를 현재의 시간속에 오롯이 되살려내고 있다. 단순히 1년 사용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한국 목조건축의 자료적 가치까지 고려한 달력으로 평가된다.

## 불광출판부




### ■'석굴암' '한국의 사찰'에 승부수

불광출판부(발행인 광덕스님)는 24년여 동안 각종 불교 출판 홍보물을 제작해온 경험이 축적된 전문 편집인과 전문 디자이너 손으로 99년도 달력 2종을 냈다.

내용은 불 보살상들을 모은 작가 안장헌씨의 사진작품 '토함산 석굴암'과 윤명숙씨가 찍은 해인사 송광사 금산사 등 명찰의 특색을 잡은 '한국의 사찰' 2종류를 선보였다. 작품성에 초점둔 '토함산 석굴암'은 불교문화향상에도 복특히 역할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광출판부는 매년 달력 판매 수익금으로 불광출판부 좋은 책 과내기와 군부대 교도소에 불서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문접수: 전화 (02)420-3200 팩스 420-3400〉

*한국의 사찰 · 크기㎝/大30.5×30.5, 小30.5×22.0 · 인쇄/5도 제본/트윈링 · 가격/1400원~1700원
*토함산 석굴암 · 크기㎝/大30.5×30.5 · 인쇄/5도 · 제본/트윈링 · 가격/1700원

## 불교나라





*만다라 · 크기㎝/30.0×61.0, 30.5×30.5 · 가격/1500원
*달마 · 크기㎝/30.0×60.0 · 가격/1500원
*아기부처님 · 크기㎝/26.0×43.0 · 가격/1000원
*원형만다라
· 크기㎝/大30.5×30, 小25.0×26.0 · 가격/大1500원, 小1200원
*유종상작품집 · 크기㎝/25.0×26.0 · 가격/1200원
*대지달력 · 크기㎝/38.0×27.0 · 가격:550원

### ■산뜻한 디자인 · 아이디어 일품

사찰에서 필요한 기획상품에서부터 불사와 각종 이벤트 행사까지 손발이 되어주는 불교나라(대표 오나현)는 우주의 진리를 체계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다라를 대중에게 널리 전파해온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기획사이다.

'불교나라'는 99년도 달력을 불교성물을 주제로 8종류를 제작 보급하고있다.

다양한 만다라의 무한한 세계를 집안에 걸어둠으로 단순한 달력 이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달력은 부처님오신날 봉축 캐릭터로 알려진 아기부처님이 연꽃등을 드는 모습을 이용한 것. 산뜻한 디자인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난 이 기획달력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더없이 인기를 끌것으로 보인다.

〈주문접수: 전화 (02)733-5721 팩스 733-5677〉

## 불교이벤트





*어진이 · 크기㎝/大30.5×30.5, 小26.0×26.5 · 지질/표지 250g/㎡, 내지 180g/㎡ · 인쇄/옵셋8도 · 제본/트윈링 · 가격/大1600원 小1400원
*절이있는 풍경
· 크기㎝/30.5×30.5 · 인쇄/옵셋8도 · 지질/표지 250아트지, 내지 180아트지 · 제본/트윈링 · 가격/1600원
*산과 삶
· 크기㎝/30.5×26.0 · 지질/표지 250g/㎡, 내지 180g/㎡ · 인쇄/옵셋8도 · 제본/트윈링 · 가격/1600원

### ■'절있는 풍경' '산과 삶' 등 세련미

생산불교로 불교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불교이벤트는 공군법사를 역임한 박상균 대표를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불심으로 뭉뚱뭉친 전문 불자기업이다. 사찰농산물 직판, 봉축행사용품 기획, 달력기획 제작, 여름불교학교용품 생산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행사 이벤트를 기획 진행해왔다. "1년을 함께할 생활용품인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불교이벤트 원력으로 모두 3종류의 달력을 선보였다. 내용 소재에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노력이 역력하다. 전통적 불교문화에 동화적 요소의 그림을 접목시켜 세련미가 나타나도록 표현한 그림작품 '어진이', 또한 절의 사계절과 어울어진 풍경 사진으로 짜여진 '절이 있는 풍경', 그리고 자연과 스님의 삶을 통해 산사의 고즈넉함을 표현한 동양화를 담은 '산과 삶'이 그것. 1년내내 집안에 정성으로 걸어두기에 충분하다.

〈주문접수: 전화 (02)716-7790~1 팩스 716-7792〉

## 삼영불교 출판 음반






### ■석정스님 선화 · 연꽃자태 백미

삼영불교 출판 · 음반(대표 이재근)은 대구지역 불교서적 및 용품점의 원조로 30년 전통을 자랑한다. 삼영은 현재 불교서점과 용품점 이외에 출판과 음반제작을 겸하고 있는 종합불사의 전당으로 지역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

99년도 달력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내용과 규격으로 제작됐다.

동욱스님의 사진작품을 담은 '백화도량'은 무명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고고한 자태가 소담스럽다. 석정스님의 선화(禪畵)를 담은 '선화선집'에는 계송이 곁들여져 나른한 오후의 여유가 배어나온다. '불교인의 신행365일'은 일별로 경전구절을 넣어 수행의 길라잡이가 되도록해 관심을 끈다.

특호 8종과 보통(크기㎝:大37.2×26.2 가격600원/ 小26.0×27.0 가격500원) 17종 등 모두25종의 달력이 불자들의 안방을 찾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문접수: 전화 (053)425-4097 팩스 421-3980〉



*백화도량 · 크기㎝/30.0×63.0 · 가격/1300원.
*불교인의 신행365일 · 크기㎝/30.0×63.0 · 가격/1300원
*선화선집 · 크기㎝/31.0×30.0 · 가격/1200원
*신사의 향기 · 크기㎝/31.0×30.0 · 가격/1200원
*불교사진선집 · 크기㎝/30.0×44.0 · 가격/1000원
*명찰순례 · 크기㎝/26.0×26.0 · 가격/1000원
*우담바라 · 크기/26.0×26.0 · 가격/1000원
*보리심 · 크기㎝/15.0×31.0 · 가격600원

## 열린불교



### ■사찰이름 금박인쇄 '품위 배가'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IMF한파 극복

그동안 불교방송, 불교TV 등에 디자인을 공급해온 열린불교(대표 이영근)는 99년도 달력을 IMF한파를 극복함에 초점을 맞춰 심혈을 기울였다. 즉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혁신으로 품위는 최고를 유지하되 가격을 최소화한것. 종류도 '가람을 찾아서 단 1종으로 가능과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발휘했다.

특징은 유럽에서 이용되는 제본방식을 우리 정서에 맞게 적용시킨것. 달력 상단의 홀더에 사찰이름과 법회안내 등을 금박으로 인쇄함으로써 제작공정을 단순화시키면서 사찰달력의 품격을 더욱 높인것이다. 따라서 시원하고 넉넉한 인쇄면적을 확보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

〈주문접수: 전화 (02)739-0108 팩스 734-7998〉

· 크기㎝/30.5×50.0 · 가격/1400원